

1.

서론 :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개 관

청소년 발달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장에서는 “한평생 발달”의 관점을 중심으로, 맥락주의 입장,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과 정의 문제, 고정관념, 그리고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몇 가지 일반이론들 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능하면 특유의 청소년기 행동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밝혀진 여러가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평생발달, 맥락주의, 질풍노도의 시기, 잠재적 가소성, 확률적 생성, 진화론, 규범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이론, 심리사회적 이론, 발달과업.

* 윤진, 연세대학교 교수

2 청소년심리학

1. 머리말

최근 “청소년”에 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제 인간생활과 복지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생겼다는 시대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즉, 청소년과 관계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행·폭력·약물남용·성행동·세대간의 갈등·정신건강의 악화·학업부진 등 그 어느 하나도 어른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특히, 이른바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가동”들이 이러한 문제의 와중에서 충분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할 때 우리나라의 밝은 장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리하여 청소년 선도·비행 예방 등의 논의가 특히 우리의 시선을 먼저 끈다.

그러나 청소년에 관한 진정한 접근은 과학적 연구를 통한 “기본적 성장발달과 행동기제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특성과 성장과정에 대한 깊은 탐구를 게을리한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행동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려 할 때,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심리학도 다른 인접학문과 더불어, “인생 전체주기” 가운데 “청소년기”가 갖는 특성과 변화과정, 그리고 그 잠재력 등에 대한 기초 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본론

1) “한평생 발달”에서 본 청소년기(Life-Span Developmental View)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발달심리학 연구들이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같은 하나의 단편적인 주제에 대해 단기 횡단적(cross-sectional)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방법은 여러개의 다른 연령집단을 1회만 측정하여 그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흔히 발달과정 연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인 출생동시집단(cohort), 연령(age), 그리고 측정시기(time

of measurement) 등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같은 대상자를 장기간 반복 측정하는 장기종단적(longitudinal) 연구 및 이 세 가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여러 가지 계열적 연구(sequential design)를 통한 장기적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예 : Schaie와 Baltes,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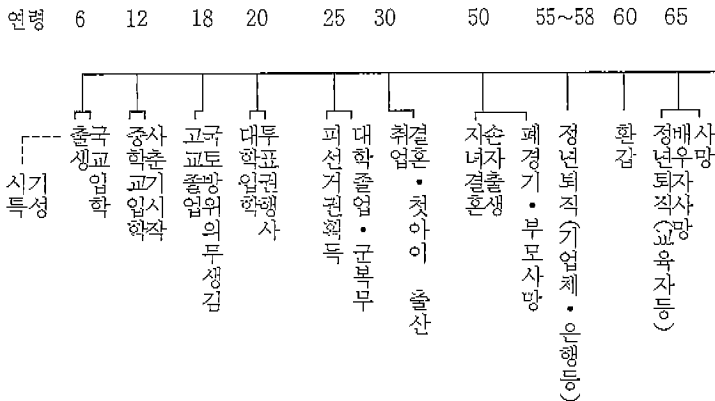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정을 연구할 때, 행동에 대한, 유전적—또는 행동 유전적(behavioral genetics)—특성(신체적 특성, 지능, 기질 등), 영·유아기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들(신체적·생리적·인지적·사회적·물리적 조건들), 그리고 아동기의 가족관계, 훈련과 학습, 교육환경 등이 현재의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이 앞으로 성인기·중년기·노년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성인기 전반기”(대개 20세 이후부터 성인기를 계산한다면 50-60년간)에 걸쳐 그 각각의 발달단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청소년기”는 하나의 고립된 발달단계가 아니며, 그 이전 단계로부터 독특한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이며, 또한 그 다음에 올 여러 인생단계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단계인 것이다. (『인생주기진행도표』 참조). 따라서 “한평생 발달”의 관점에서, 이러한 “청소년기”가 일생을 마감하는 노년기에 이르러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예 : Baltes, 1990).

〈그림 1〉에서 보듯이 12~18/20세까지의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 발달해 왔는가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일생동안 교육·훈련·취업·결혼·출산·은퇴 등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 발달 연구에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심리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 등 두 가지였다. 청소년기에 대한 ①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view)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인지능력, 사회적 행동, 행동특성과 주어진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특유의 연계성이나 인생의 계기를 별로 문제삼지 않는다.

4 청소년심리학

(그림 1) 인생주기 진행도표



반면에 ② 발달적 관점(developmental view)에서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기에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했는가 하는 “역사적 사건”을 중요시한다. 그리하여 청소년기 이전 즉, 유아 및 아동기 등의 시기에서 성적 발달과 인지 발달에 따라 청소년기의 발달이 달라지고, 청소년기에 모든 발달이 종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기 이후에는 주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성인기 및 인생 후반부 발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청소년기 발달을 충분히 기술·설명·예언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새로운 한평생발달의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평생발달” 관점에서는, ① 지나온 시대와, ② 측정시기 그리고 ③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 등 세 가지 변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측면을 모두 함께 고려한다.

첫째, 시대적 변인으로서(예를 들면, 1950년대와 1980년대의) 교육의 기회, 영양상태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발달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측정시기의 변인들을 고려해 보면, 1950년대에 측정했을 때는 청소년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TV와 컴퓨터의 영향은 받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

1. 서론 :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5

는 노소를 막론하고 이들 첨단전자기기의 영향을 받아 지적 능력, 사회생활, 가치관 등이 달라진다. 셋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연령변인이 있다. 즉, 15세의 청소년과 40세의 부모세대는 연령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신체, 성격, 능력,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한평생 발달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이 그동안 살아왔던 독특한 역사와 경험 그리고 시대적 특성(즉, 6·25전쟁의 경험, 농촌의 도시화와 공업화, 고속도로 여행, TV방송의 시작), 현재의 사회상황과 개인적 조건(경제적 불황, 부모의 사망과 이혼, 신체건강수준) 그리고 청소년 연령단계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특성 등 세 가지불 모두 고려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개인내적 변화(intraindividual change)와 환경·상황 등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간의 변화(interindividual difference)를 함께 다룬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개인간의 변화는 성역할(性役割) 사회화과정에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아동기의 육아방법의 차이로 인해, 남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키워진다. 이에 반해 여자는 순종적이며 수동적, 의존적이 되도록 양육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아동기의 육아태도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성역할 분화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고, 성역할 규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그리하여 대학진학·진로선택·스포츠·취미생활·특별활동(요리·재봉·가사·공업·과학반활동 등) 등에서도 남녀 교교생은 구별되는 행동을 하도록 권유받으며 칭찬 또는 비난을 받는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성역할 사회화와 강화의 역사는 성인기에 있어서도 직장에서의 직종의 구별, 봉급의 차이, 그리고 직위의 차별 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전반에 흐르는 남녀의 차별과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더욱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맥락주의 입장에서 보는 청소년기 발달

앞서 지적인 한평생 발달의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연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6 청소년심리학

이론적 관점은 종래의 발달이론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인간발달을 주로 기계론적 입장과 유기체론적 입장 등에서 보고, 유전-환경의 영향, 특성의 연속성-비연속성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리하여, Freud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론과 Piaget의 인지발달단계론,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론과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의 개인차 이론, Skinner류의 행동주의, 그리고 개인이 지닌 기질의 연속성과 그 영향 등 각각 여러 측면에서 이론적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맥락주의(contextualism)의 입장에서 청소년기를 비롯한 모든 발달단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는 개인이 가진 기능의 다차원적인 기초와 그 수준들간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의 발달과정을 다차원적인 분석수준에서의 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함으로써, ‘발달’의 과정을 보다 더 가소성 있는(plastic) 것으로 보게 된다(Lerner & Lerner, 1986).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 “순환적인 기능”(circular function : Schneirla, 1957) 개념이다. 한 청소년이 지닌 개성적인 특성은 그의 주위에 있는 중요한 타인들에게 상이한 자극으로 제시된다. 또한 그 ‘타인’들은 그들 고유의 개성에 의해 이 상이한 귀환반응이 그 청소년에게 중요한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의 개성을 증진시키면서 순환적인 과정이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각 청소년이 지닌 개성적인 특성에 대하여 환경적 맥락이 그에 게 부과하는 적응상의 요구들(demands)이 있다 : ① 부모나 교사, 또래 등과 같이 중요한 타자가 그 청소년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 가치 또는 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요구 그리고 ② 중요한 타인 자신의 고유한 행동적 특성의 형태로 표출되는 요구, 마지막으로 ③ 청소년이 건강한 발달을 하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환경적인 맥락의 물리적인 특성(예 : 집안의 socioeconomic 등)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가 있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에 대하여 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이 잘 부합된다면 그는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건강한 발달적 적응을 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환경적인 맥락의 요구들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이 부합되지 못할 때는 환경적 맥락으로부터

터 부정적인 귀환반응을 받게 되고 따라서 적응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발달적인 적응은 유기체의 특성자체나 환경적인 맥락, 어느 한쪽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맥락주의 입장은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잠재적 가소성”(potential plasticity)을 중시하고, 동시에 발달도 미리 결정된 계획대로가 아니라 “확률적 생성”(probabilistic epigenesis)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은 물리적인 생태환경과 그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는 개개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각 개인이 독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 또한 유일한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게 될 맥락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는 어떤 한 청소년이 그의 환경적 맥락에서 주고 받게되는 영향력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청소년이 주어진 맥락에서 받게 될 귀환반응이나 이에 수반되는 발달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만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바, 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주고 받으며, 구조와 기능은 상호 변화시키며 동시에 변화된다(예 : Lerner, 1986).

위에서 말하는 “잠재적 가소성”과 “확률적 생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당대 최고 한국화가인 이당 김은호(以堂 金段鎬) 선생의 청소년 시절을 살펴보자. 소년 시절 그림소질이 뛰어났으나 부친의 반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이당은 부친의 별세와 가세의 몰락으로 인하여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청소년 가장이 되었다. 이때 점원, 측량기사 생활 등을 통해 가계를 꾸려갔는데, 자신의 화재(畫才)를 다시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만일 부친이 별세하지 않고 가세가 옛날처럼 융성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평범한 관직에 진출하여 구한말의 상류 지식층이 겪었던 일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불행한 사건들은 그로 하여금 오히려 개발할 수 없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드

8 청소년심리학

디어 그는 21세 때 조선조 마지막 어용화사(御容畫師)로서 예술에 정진하게 되었다. 즉, 자기가 타고난 적성과 능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여 화가로서 대성하는 기틀을 청소년기와 청년초기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져나간 것이다. 이것은 “확률적 생성”의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된다.[출처 : 이규일(1992)—이당 김은호의 생애와 예술. 호암갤러리(편), 이당 김은호—인물에서 자연으로 1892-1979(141-151)]

위와 같은 맥락주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 귀환반응(feedback)을 생성한다. 즉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생성자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된다(Lerner등, 1991).

(a) 청소년은 각자가 지니는 신체적·행동적인 개성(individuality)에 의해서 스스로 타인에 대한 “자극(stimulus)”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청소년 개개인이, 키와 몸무게, 신체적 매력과 용모, 기질 등 생리적 조속과 만족의 정도에 따라 부모나 또래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신체적 매력이 없거나 생리적·신체적으로 너무 일찍 발달한 청소년은 주위의 성인들이나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쉽다.

(b) 청소년은 “능동적인” 환경의 정보처리자(processor of the world)로서의 능력을 갖고 활동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적·인지적·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과정(processes)상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인지적 구조나 정서적 반응 등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정보처리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남과 다른 독특한 인물이며, 어떤 사건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타인에게 중요한 인물로 비친다는 생각, 심각한 사고나 재난이 자신에게만은 예외로 닥치지 않으리라는 생각 등을 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자동차사고나 혼전임

신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다.

(c) 발달과정상에서의 가소성 또는 융통성(flexibility)은 개인이 새로운 맥락적인 요구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즉 청소년은 자기통제적인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발달의 주체(agent)이자 조형자(shaper)이며 동시에 선택자(selector)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발달정도에 따라 학교·직장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 성적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부모, 교사, 형제의 권유와 조언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녀교제, 성행동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기대와 중학에서 고교에로의 진학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줄 알게 된다.

3) 청소년기의 정의의 문제

청소년기의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진다. 즉 1904년 G. Stanley Hall이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붐(babyboom)이 일어났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제 출산을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로 말미암아 청소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초경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성장폭발(growth spurt)을 경험하며(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정도 빨리 경험한다). 최근 이들을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와 고교 및 대학시기의 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 and youth)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Petersen(1988)은 최근의 청소년기 연구의 주제들로서 ① 심리적 적응 대 격동, ② 사춘기와 그 영향 그리고 ③ 청소년과 그 가족관계를 들었다.

특히 Peter Blos, Anna Freud, G. Stanley Hall 등의 입장인 “혼동과 격동”

10 청소년심리학

은 정상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청소년기에 심리적 갈등이나 부적응보다 오히려 심리적 적응이 더욱 잘된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그리고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연령단계의 초기 청소년기는 특히 여자의 경우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그 변화로 인한 동료의 압력과 비교, 부모를 비롯한 주위 어른들의 반응과 대우 등에 따라 심리적 기능과 적응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초기”에 대한 정신건강연구가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청소년기에 대한 고정관념의 허와 실

청소년을 보는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양분된다. 우선, 청소년은 “건전하며” 특히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 그에 반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 고정관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진 개인적 문제-신체적 변화, 성욕, 생기관의 발달, 진로선택, 이성관계 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strum und drang)”의 시기라고 본 Hall의 견해가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갈등, 방황, 그리고 저항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이는 그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청소년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주위 인물들과의 갈등을 통해 개성을 발달시키고 독립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Bandura(1964) 등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니며 또 겪을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지나치게 반응하고 또 대중매체가 이를 과장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관념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기제보다도 오히려 사회학습과정을 통한 모방, 모델학습, 금지해제 등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5) 청소년기에 대한 이론들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전반에 관한 이론들을 먼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1) 진화론, (2) 규범이론, (3) 정신분석이론, (4) 인지이론, 그리고 (5) 심리사회적 이론 등 5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1) 진화론과 생물학적 발달론

우선 진화론의 입장에 의하면,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 청소년기도 발달해 간다. 특히 G.Stanley Hall(1904)는 「청소년기」(Adolescence)란 2권의 서적을 출판하여, 유전적, 생물학적 발달계획에 따라 청소년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전환기라고 지적했다. 이때 변화의 내용이 되는 신체적 성장, 성적 성숙, 정서적 긴장과 갈등, 형식적 사고와 추리능력 등이 새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고와 추리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과제에 대한 관심과 저항, 비판 등이 일어나기 쉽다.

(2) 사회적 기준

사회적 기준과 관련된 “청소년기 발달” 관점이 있는데 Arnold Gesell과 Robert Havighurst 등이 이에 속한다. Gesell은 발달기준(developmental norm)을 만들고 아동이 여러 측면의 발달에 있어서도 그가 살고 있는 “대집단 속에서 평균”을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발달의 리듬(rhythmic sequence)이 불규칙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리듬은, 진화론적 성숙 계획안, 유전적 소질, 그리고 촉진 또는 방해하는 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환경변인은 부모의 성장곡선과 청소년의 성장곡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개념을 제시한 Havighurst가 “청

12 청소년심리학

소년기”의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다. 청소년기에도 역시 수행해야 될 일이 일정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적절한 발달이 어려워지며 따라서, 다음 시기인 성인기로의 정상적인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발달과업은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 같은 연령 또래의 남녀 사이에 성숙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2) 남성-여성의 성역할을 습득하고 수용하기, (3) 자기 신체의 특징을 수용하여 자부심을 갖고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4) 부모나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기, (5)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자세를 갖추기, (6) 직업세계와 경제적 취업에 대한 준비, (7) 가치관, 이념, 윤리체계의 획득과 형성, 그리고 (8) 진실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수행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김중서, 남정걸, 정지용과 이용환(1983)은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발달과업”을 발표하여, 청소년기를 “청년전기(12-18세)”와 “청소년후기(19-24, 25세)”로 나누어 보았다. 특히 이들이 분류한 청년전기는 ① 지적 영역(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갖추기, 진로와 직업의 탐색준비 등), ② 정의적 영역(정서적 독립,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 등), ③ 사회적 영역(동료집단과 잘 어울리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등), ④ 신체적 영역(체력과 체능의 증진, 건강에 좋은 습관기르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3) 정신분석학적 입장

신체적 성장과 그 부위에 따른 성적 욕구(libidinal energy 또는 sexual drive)의 변화는 청소년기에 더욱 독특하게 나타난다. 특히 Anna Freud는 사춘기의 성적 에너지(libidinal energy)의 주요 초점은 ① 충동성, ② 좌절에 대한 인내성 부족, 그리고 ③ 자기규제에 대한 계속적 요구 등의 특성을 띠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 본능의 합법성을 거부하려는 ego로 인하여 경직되고 방어적인 반응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때의 방어는 ① 금욕주의(禁欲主義: Asceticism : 즉 본능에 대한 불신감, 쾌락의 거부)와 ② 주지화(主知化: intellectualization)로 나타난다. 특히 주지화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원래의 자기 의도 또는 욕망과는 반대(모순)되는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면, 성적 욕망 등을 미술, 음악, 우정, 사랑 등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욕망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복종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반항적인 자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Peter Blos(1962)는 청소년기란 “생물학적 성숙(pubescence)에 대한 심리적 적응기간”이라고 보고, 이러한 심리적 청소년기(adolescence)는 생물학적 기간보다 흔히 더 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igmund Freud와 Anna Freud는 모두 청소년기의 자아 방어(ego-defending)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Blos는 ① 방어뿐만 아니라 ② 대처(coping)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대처행동은 특히 청소년기의 내적 갈등(intrapsychic conflict)과 환경적 압력(environmental pressure) 등 두 가지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때 세 가지 대처행동의 기본요소는 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 ②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③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능력 등이다. 이러한 대처행동은 청소년기의 정신역동적 대처체계(psychodynamic coping system)의 진화(evolution)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진화에서도 “적응체계”(adaptive system)가 작용하는데, 심리사회적 진화체계 속에 “적응체계”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러한 Peter Blos의 적응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a)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심리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 자신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충동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를 “발달에 따른 혼란”(developmental disturbance)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부적응은, “생물학적 성숙”과 “심리적 기대”가 적절히 통합될 때 해소될 수 있다.

(b) 청소년기(adolescence proper)

이 시기는 “청소년기 본래의 시기”로써 아동기에 부모를 비롯한 다른 성인들에게 부착했던 libidinal energy를 견어내어 친구와 같은 다른 대상 인물들에게 투지한다. 이들은 가끔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와 우울증 경향 등을 나타

내는데 이는 부모 등으로부터의 이별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c) 청소년후기(late adolescence)

이 시기는 신체적·생리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 및 적응이 함께 공고히 “통합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독특한 판단·흥미·지적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인물들과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도 줄어들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균형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간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을 제시한 Harry Stack Sullivan (1953)은 인간의 성적발달을 인간관계의 발달과 적응에서 찾고 있다. 이때 청소년기는 특히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① 청소년 이전 시기에는 단짝친구(chumship)관계에서 출발하여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이루고 언어·의복·행동양식 등도 서로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고독감·우정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생겨난다. ② 청소년초기에는 동성친구에서 이성친구와의 인간관계로 옮겨가고 쾌락(lust)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적 욕구(sexuality)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③ 청소년후기(고교시기)에는 상징적 추리와 교육, 그리고 장래의 직업에 대한 도전이 생겨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리적 성장이 끝난다.

3.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보는 기본적 시각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가정관리학·간호학 등에서 청소년기의 생리적·신체적·심리적 발달과정과 특성에 대한 관점이 약간씩 달랐었다.

하지만, 최근 평생발달(life-development)의 관점이 대두함에 따라 인생주기 전체 위에서 “청소년기” 발달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 등을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이 두 가지 기본적 요인이 달리 작용하여 “발달의 경로”(developmental path)를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학”의 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최충욱, 1991), 평생발달적 접근을 비롯한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시각들이 각 학제간의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청소년학” 정립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편 청소년기에 대한 학설은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이외에도 Erikson의 심리사회적 8단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이론,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른 형식적·추상적·사고능력, Bandura 등의 사회학습이론, Roger Barker의 생태학적(Behavior Setting, 즉(Ecological)) 접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서론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였고, 기타 자세한 입장들은 뒤에 연속되는 각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논의로서 이 글에서는 “한평생발달”의 관점을 중심으로 맥락주의 입장,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과 정의 문제, 고정관념, 그리고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청소년발달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심리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청소년기 발달을 충분히 기술, 설명, 예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한평생 발달의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평생발달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이 그 동안 살아왔던 독특한 역사와 경험 그리고 시대적 특성, 현재의 사회상황과 개인적 조건, 청소년 연령단계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특성 등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한다. 다시 말하면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 변화와 환경, 상황 등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개인간의 변화를 함께 다룬다.

또한 맥락주의 입장은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잠재적 가소성’을 중시하고, 동시에 발달도 미리 결정된 계획대호가 아니라 ‘확률적 생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일방적이 아니라 양

방적으로 주고 받으며, 구조와 기능은 상호변화시키며 동시에 변화된다. 즉 맥락주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 귀환반응을 생성한다. 즉,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발달을 좌지우지하는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초경 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한다.

청소년을 보는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양분된다. 우선 청소년은 건전하다고 보는 관념이 있으며 특히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 그에 반하여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 고정관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가진 개인적 문제—신체적 변화, 성욕, 성기관의 발달, 진로선택, 이성관계 등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 전반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에 관한 인간적 관점은 진화론, 규범이론, 정신분석 이론, 인지이론, 심리사회적 이론 등 다섯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연구 과제

1. 청소년을 단순한 “청소년기”만 단절시켜 접근하기 보다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평생발달”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2.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와 갈등의 시기”이기 보다는, 전통적 미풍양속 계승과 건전한 발달, 학습, 규범수용 등 그와 전혀 다른 특성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3. 청소년은 부모, 성인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도, 편달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임을 파악한다.
4. 청소년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 스스로 특유의 발달특성과 인격을

갖는 인간임을 재확인한다.

참 고 문 헌

-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종환(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윤 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윤 진(1991), “청소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한국청소년학회주최 한국 청소년학대회 발표논문초록집.
- 이규일(1982), “이당 김은호의 생애와 예술”, 호암갤러리(편) 이당 김은호 : 인물에서 자연으로, 1982-1979.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최충욱(1991), “청소년학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학회주최 한국청소년학 대회 발표논문초록집.
- Baltes, P. B. and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1964), The stormy decade : Fact or fi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 1, 224-231.
- Blos, P.(1962), *On adolescence*, New York : Free Press.
- Elder, G. H.(1975), Adolescence in the life cycle : An introduction, In S.E. Dragastin & G. H. Elder(Eds.), *Adolescence in the life cycle*. Washington, D.C. : Hemisphere.
- Havighurst, R. L.(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 David McKay.
- Jessor, R., & Jessor, S. L.(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logical develop-*

- 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 Y. : Academic Press.
- Lerner, R. M.(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N.Y. : Random House.
- Lerner, R. M., & Lerner, J.V.(1986), Contextualism and the study of child effects in development, In R. L. Rosnow, & M. Georgoudi(Eds.) *Contextualism and understanding in behavioral science :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theory* : New York : Praeger.
- Lerner, R. M., Petersen, A. C., Brooks-Gunn, J. (1991),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 Petersen, A. C(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Schaie, K. W. & Baltes, P. B.(1975), On sequential strategies and developmental research, *Human Development*, 18, 384-390.
- Schneirla, T.C(1957),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mparative psychology, In D.B. Harris(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psychiatry*, New York : W.W. Norton & Co., Inc.
- Thomas, A., & Chess, S.(1980),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2.

청소년기의 발달과 발달과업

개 관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며, 여러가지로 새로운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신체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발달과 새로운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장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 생리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발달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제어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신체발달의 가속화 현상, 성적 성숙, 성적 성숙의 개인차, 생리적 발달, 사춘기, 제2차 성장, 호르몬작용, 사회적 기대, 발달과업, 정체감 형성

* 김태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청년기는 신체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또 갑자기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앞에서 어린이로부터 성인으로 변해가는 소년소녀들이 바로 청년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짧은 시기에 부쩍 자라나 어른들과 비슷한 신장과 체중을 지니고 되고, 신체의 모습도 어린이의 모습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청년의 신체는 이처럼 외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기관이 발달하며 지금까지 없던 기능도 새로 생겨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성숙(sexual maturity)이다. 이와 같은 신체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발달과 새로운 기능이 청년들에게 많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

1. 신체적 발달과 성숙

청년기의 신체발달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신체 및 운동능력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기반이 되며, 이 발달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함의 유무, 운동능력의 우열 등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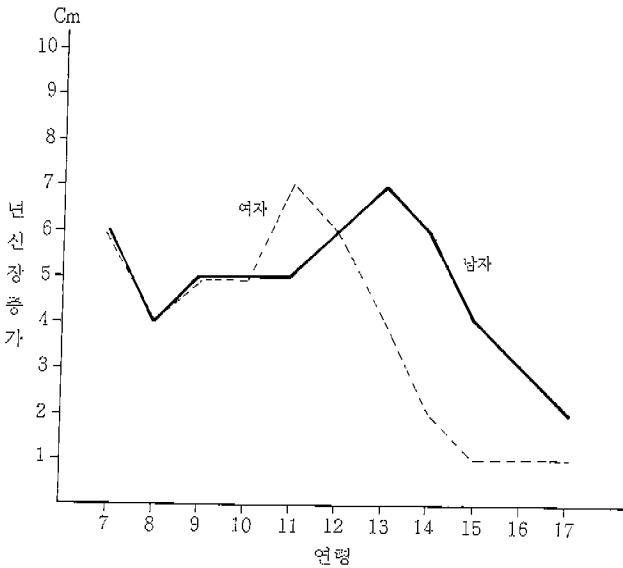
1) 체격의 변화

청년의 신체성장에 관한 대개의 연구가 연령별에 따른 청년들의 신장과 체중을 제어 그 평균을 산출하는 종단적(cross sectional)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즉 연령별에 따라 청년들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어 그 평균을 산출해 내는 방법은 개인차의 문제불 등한히하는 결점은 있지만, 시간이 적게 들고 경제적이라는 실용적 가치때문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크게 태어나는데, 이같은 신장의 차는 약 10세 정도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11세에서 14세경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신장을 능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남자들이 다시 약 4년간 부쩍 자라나고 일생동안 여자들보다 큰 신장을 지니게 된다.

한국 청소년의 신장성장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85년 남녀 평균 신장치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 남자들은 13세, 여자는 11세가 성장 급등기임을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빨리 급등 성장기를 맞이한다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사춘기를 맞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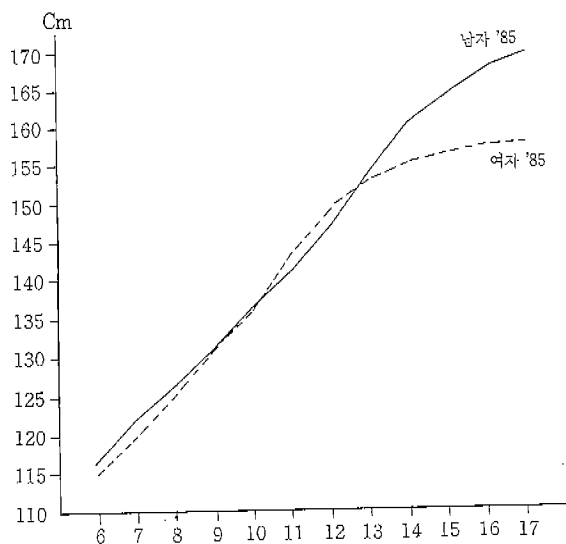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청소년의 신장 성장급등

출처 : 청소년백서, 1986.

〈그림 2〉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신장의 성장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3〉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체중의 성장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두 그림을 보면 청년 초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신장이나 체중에 있어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 남녀 모두가 급등 성장기가 끝이 나면 남자가 여자를 훨씬 능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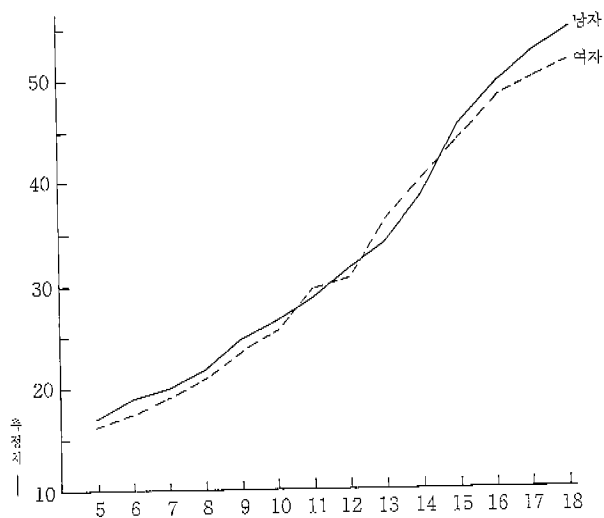
이러한 급성장 현상은 신장과 체중 이외에도 골격과 근육, 머리, 얼굴 특히 생리적 기관에도 일어난다. 출생 직후부터 청년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

22 청소년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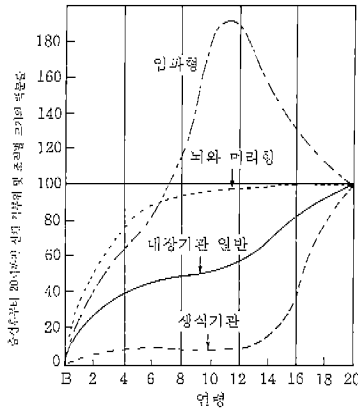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청소년의 신장 성장곡선

출처: 청소년백서, 1986.



〈그림 3〉 한국청소년의 체중성장곡선



〈그림 4〉 신체 각 부분의 성장곡선*

* 여기에서 모든 곡선은 크기(size) 즉 출생 후부터 성숙기까지의 모양을(20세) 표시한 것이며, 20세의 크기가 수직선상에서 100으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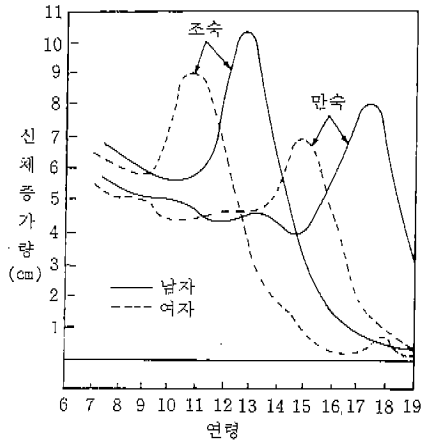
- 임파형 : 갑상선 · 임파선 · 장관내 임파조직
- 뇌와 머리형 : 뇌와 유관부분 · 뇌경막, 척수, 시각, 기관, 머리의 부피
- 내장기관 일반 : 몸 전체(머리는 제외)에 걸친 부피, 호흡과 소화기관, 신장 대 동맥과 폐동맥, 근육, 혈액량.
- 생식기관형 : 고환, 난소, 부고환, 전립선염, 정관, 수란관(fallopian tubes)

능가를 조사한 〈그림 4〉를 보면 신체의 각 부분의 성장 패턴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청년기의 각 신체발달의 현상과 특징은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청년기의 급격한 성장발달에는 현저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민족, 유전인자, 영양상태, 사회적 환경, 생활양식 등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 〈그림 5〉는 콜(Cole, 1958)이 조숙형과 만숙형 남녀의 연간 신장 증가량을 설명한 것인데, 청년기의 급격한 발달에도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신체발달의 가속화 현상

과거의 청년에 비해 오늘날의 청년의 신체성장이 점점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그 성장율이 더 커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요즈음의 청년들은 50년



〈그림 5〉 조속형과 만속형의 매년 신장 증가량

전이나 100년 전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성장하고 더 어린 나이에 성인의 체격에 도달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아도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5년과 1985년의 청소년의 신체발달 경향을 〈그림 6〉을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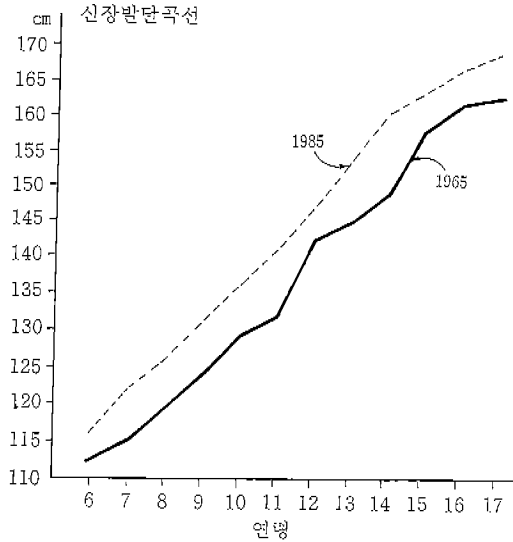
이러한 신체발달의 가속화 현상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위생과 영양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과거 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성장급등 현상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환경은 개인의 유전적인 잠재성을 발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속화 현상은 신체적 성장 발달은 물론 청년의 생리적 변화에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신체의 육박

인간의 신체 각 부분은 같은 비율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즉 팔, 다리 등의 성장 정도가 제각기 다르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년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청년초기에는 신체의 각 부분이 무럭무럭 자라는 때이다. 그러나 특히 다리와 팔이 길게 자라는 반면 동체는 계속하여 작은 때가 많다. 그래서 다리와



〈그림 6〉 한국 청소년 남자의 1965년과 1985년의 평균 신장곡선

출처 : 청소년백서, 1986.

팔이 서로 어울리지 않게 크게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는 일시적으로 대단히 불균형한 신체불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년초기에는 비육기라고 불리워질 만큼 몸이 뚱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서 큰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4) 운동능력의 발달

청년기의 급속한 신체발달에 따라서 운동능력도 현저하게 발달되는 경향을 가진다. 운동능력의 발달은 근육 및 신경계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과 활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운동능력의 발달은 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발달의 차이에서 오는 운동능력의 차이는 여러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운동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므로 성취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청년초기에는 그들의 에너지가 왕성하므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 명랑한 정서를 가지면서 건전한 성격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반하여 운동능력의 발달이 늦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에 빠지게 되며 그것이 다른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발달이 늦어지고 열등감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운동능력의 발달에 따른 남녀 성차를 보면 그 경향과 특성에 있어 차이가 심하다. 이 차는 기본적 운동능력과 종합적 운동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며, 이 경향은 청년전기 보다 청년후기에 갈수록 더 격심하다.

이와 같은 운동능력 발달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차이의 원인으로는 첫째, 제2차 성특징에 수반하는 신체상의 차이 둘째, 골격, 근육, 체격의 조직학적 차이 셋째, 내장의 여러 기관의 기능상의 차이 넷째, 성적,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지각 혹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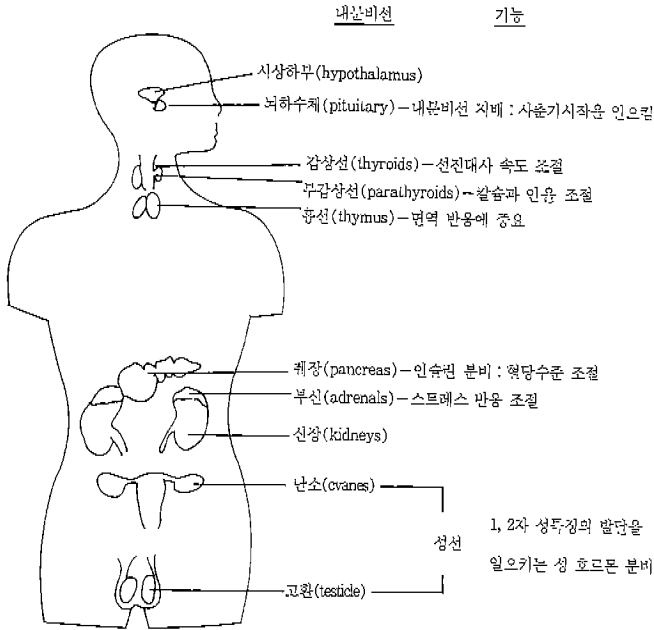
2. 생리적 발달과 변화

청년기에는 신체의 성장 및 내부 기관의 급격한 발달에 의해서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발달하여 그 결과 제2차 성징이라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된다.

1) 사춘기와 호르몬 작용

많은 내분비선 자체도 청년기에 급성장을 한다. 사춘기에 관련되는 내분비선은 뇌하수체(pituitary gland)와 성선(sex gland)이다. 뇌하수체 전엽과 생식선 분비의 변화가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끈다.

뇌하수체는 가장 중요한 내분비선으로서 뇌하수체의 분비가 다른 많은 내분비선의 활동을 자극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이다. 뇌하수체는 후배엽, 중배엽,



〈그림 7〉 주요 내분비선의 위치와 기능

전배엽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세 가지는 생식선의 활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향생식선 호르몬(gonadotropic hormone)**이라고 부른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는 다른 중요한 호르몬은 부신피질(adrenal cortex)을 자극하는 **향부신피질 호르몬**이다. 뇌하수체 전엽은 이런 중요한 자극 호르몬을 사춘기에 분비하는데 이것은 시상하부의 자극 때문이다.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의 관계는 사춘기가 되기 오래전부터 작용한다. 사춘기는 이 체제가 더 활성화되는 시기이지 시작되는 시기는 아니다.

일단 **향생식선 호르몬**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성선, 즉 생식선은 자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androgen)**은 음경의 발달, **프로스트레이트선(prostate gland)**, 정액(semlinal vesicle)과 2차성 특징을

담당한다. 여성 생식호르몬은 에스트로젠군(the estrogen group)이다. 이들 호르몬은 자궁, 질(vagina), 나팔관(fallopian tubes), 유방 및 여성의 2차 성특징의 발달에 관여한다. 에스트로젠은 월경주기와 정상적인 자궁수축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유선조직(breast deuttissue)의 성장을 통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만 몇가지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성장 호르몬(HGH : human growth hormone) 또는 체강영양 호르몬(SH : somatotrophic hormone)이라고 불리는 성장 호르몬은 골격의 성장과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으면 거인증에 걸리고, 지나치게 적으면 외소증에 걸린다.

둘째, 성선자극 호르몬(gonadotropic hormone)은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분비선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선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성선자극 호르몬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포자주 호르몬(FSH : Follicle-stimulating hormone)은 난소에 있어서 성숙된 알로 성숙, 변화하는 그라프 여포(graafian follicles)의 성숙과 정자를 생산하는 태환(정소 testis)의 수정관 성장에 영향을 준다.

○ 황체형성 호르몬(Luteinizing hormone)은 여성의 경우 난소에 의한 여성발정 호르몬(estrogen)과 황체 호르몬(progesterone)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한다.

○ 간세포자극 호르몬(ICSH : Interstitial-Cell-Stimulating Hormone)은 남성의 경우 고환에 의한 남성 호르몬(testosterone)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한다. 즉 간세포자극 호르몬이 남성의 정자 형성을 자극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간세포자극 호르몬이 없거나 부족하면 정자의 생산은 2차 세포분열 이상을 넘지 못하며, 성장도 거기서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 호르몬과 성선자극 호르몬 이외에 뇌하수체는 황체자극 호르몬 또는 황체영양 호르몬이라는 췌분비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가슴의 유선을 통해 젖의 분비를 자극하는 뇌하수체 전엽의 성호르몬

(prolactin)이라고 할 수 있다.

생식선(gonads)은 몇 가지의 성호르몬을 분비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는 가슴의 발달, 음모의 발달, 지방질의 분배와 같은 여성의 성적 특징의 발달을 자극하는 일단의 발정 호르몬(estrogen)을 분비한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자궁, 관, 질 등의 성장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고 유방관 세포의 성장을 통제하며 정상적인 자궁수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황체호르몬(progesterone)은 새로운 세포성장에 의해서 난소에서 생산되며 노란색을 띤다. 이 황체호르몬은 월경주기 기간을 통제하고, 임신이 가능하도록 준비시킬 뿐 아니라 임신 그 자체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또한 황체 호르몬은 임신부의 유선을 자극하고, 가슴이 커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남성의 경우, 뇌하수체의 간세포자극 호르몬의 자극하에 있는 고환은 남성 호르몬(testosterone)인 안드로겐 호르몬(androgenic hormone)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제2차 성적특징의 발달인 신체의 발모, 변성, 근육과 골격의 발달 및 남성 생기관인 정액소낭(seminal vesicles), 전립선(prostate gland), 부睾환(epididymis), 음경, 음낭(scrotum)과 같은 기관의 발달과 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은 태어날 때부터 발견되나 사춘기에 이르기까지는 미미한 정도에 머문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그 양이 극적으로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기간 동안 주기성을 띠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러한 여성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비에 따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너무 많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수염이나 털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남성과 같은 근육질이 발달한다든지 또는 음핵(clitoris)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남성이 너무 많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수정능력이 떨어지고 가슴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2) 성적 성숙

청년기의 성장급등(growth spurt)현상은 성적 성숙을 동반한다. 이런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대부분 약 4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성적 성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차적 성특징으로 생식기의 외형적 남녀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차적 성특징으로 내분비선의 변화에 따라 성특징이 발달되어 남녀의 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이차적 성특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의 성적 성숙

소년의 성적 성숙은 성장급등 현상이 나타나기 1년전 쯤에 시작된다. 약 12세경에 고환과 음낭이 확대되며 동시에 음모도 나타난다. 음경은 13세부터 약 2년동안 확대된다. 외부 생식기의 발달과 함께 정낭과 같은 내부 생식기관도 발달하기 시작하여 14~15세 경에 이르면 사정이 가능하다. 사춘기의 시작시기는 개인차가 크지만 발달순서는 대단히 일정하게 이루어진다. 음경 성장은 빠르면 11세, 늦으면 14세에 시작되며, 음모는 10~15세에, 겨드랑이의 체모와 얼굴 수염은 14세경에 그리고 가슴의 체모는 가장 늦게 나타난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후두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소년의 목소리는 저음이 된다. 또한 사춘기 남자들도 유방이 변화하는데 유두 주위의 검은 부분이 상당히 넓어지고 유두도 커진다.

(2) 여자의 성적 성숙

소녀의 성적 성숙의 2가지 신호인 유방과 음모의 성장 직전에 성장급등 현상이 나타난다. 가슴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13~15세경에 이르면 가슴 발육은 끝이 난다. 유방의 발육과 함께 음모와 겨드랑이의 체모가 발달하며, 자궁과 질이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음순과 음액이 커진다. 초경(menarche)은 10~16세 사이에 시작되며, 성장급등의 절정기가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 초기의 월경주기는 불규칙한 것이 보통이며 최근의 성

장 가속화 현상은 초경의 출현시기를 앞당기는 추세에 있다.

(3) 성적 성숙의 개인차

앞에서 논의한 성적 발달의 순서는 평균적인 순서임을 유의해야 한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도 발달순서의 시작 연령이 아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발달 순서의 시작연령은 개인차가 크지만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개인차가 적다.

3. 신체적 · 생리적 발달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하고 개인차와 남녀차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해 하며 따라서 심리 ·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1) 신체변화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이론

사춘기의 변화에 무엇이 어떻게 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배적이고 통일된 이론이 없다. 그러나 청년기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적응과정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홀(G.Stanly Hall, 1904)이다. 그에 의하면 청년기는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데 청년기의 질풍노도(storm and stress)와 같은 심리적 변화는 생리의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905)는 청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성적욕망의 증가에서 온다고 보았다.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 1958)는 이 시기의 심리적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사춘기 성욕발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신분석 학자들의 영향으로 청년기의 심리적 갈등과 혼란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결정자로서 사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춘기의 변화로 키나 외모가 성인과 같이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더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춘기에 심리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Conger & Petersen, 1984).

최근에 와서는 사춘기 성숙과 심리적 발달과의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의 두 가지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Petersen & Jaylor, 1980).

직접효과 모델(the direct effect model)은 심리적 효과를 생리적인 원인으로 돌린다. 이 모델에서는 역사적인 변화와 문화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심리적 상태의 변화와 심리적 발달의 단계는 사춘기의 호르몬 수준의 변화와 관계된 것으로 믿는다.

간접효과 모델 혹은 중재된 효과모델(mediated or indirect effect model)은, 사춘기의 심리적 효과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중개변인들에 의해 중재되거나 맥락요인들에 의해 조정된다는 주장이다. 중개변인은 자아발달 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고, 맥락요인들은 사회문화적인 관계와 사회화 습관과 같은 외적인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청년기의 생물학적 변화(신체와 생리적 변화)는 내적인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중재되어 청년기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주며, 또한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나 관련 요인들이 중개변인인 심리적 요인들이나 심리적 효과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재변인이 되는 내적 심리적 요인은 신체변화에 대한 본인의 지각과 태도 같은 것이 되고, 외적인 조정변인은 사회문화적인 가치규범, 사회화의 관습 같은 것이 된다. 즉 키의 급성장이 주는 심리적 영향은 자기의 키(생물학적인 변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심리적 요인 즉 중개변인)에 따라 심리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그 키는 사회의 이상적 기준(조정변인)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신체적 발달의 의의와 영향

빠른 신체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은 새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여러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청년기의 성적 발달은 그들의 정신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된다.

청소년들의 신체 및 성적 발달에 따르는 심리적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Hurlock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빠른 변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신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기에 들어오면서 너무 빠른 갑작스러운 변화로 자아개념을 고쳐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변화가 뜻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 준비의 부족

많은 청소년들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준비없이 신체변화를 맞을 때 청소년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이런 신체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염려하게 된다. 특히 사춘기의 신체 및 성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조숙하는 사람과 만숙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고민을 갖기도 한다.

○ 어릴 때의 이상

어린이들은 모두가 장차 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이상행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기가 바라는 이상대로 신체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청소년은 대단히 불행하게 될 것이다.

○ 사회적 기대

신체는 청년들에게 그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사회에서 바라는 각 연령층에 대한 표준과 청년들의 성숙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청소년들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 사회적 불안의 정도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자신의 외모(용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초조하게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용모에 대해 걱정을 한다.

34 청소년심리학

청년기의 신체변화에 따른 심리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아의식의 형성과 성인 의식을 갖게 된다.
-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일을 많이 하고 실패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
- 신체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열등감을 가질 경우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가져온다.
- 신체발달의 부조화 요인으로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 성적 욕구로 인한 문제 내지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춘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변화로 인해 정도 이상의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가 닥쳐오기 전에 미리 충분한 예비지식을 주어 사전준비를 시켜, 기대 속에서 사춘기의 여러 변화를 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소년이 받는 영향

소년들은 신체 각 부분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들은 신체 크기에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실망한다. 또 신체급등 현상이 최고에 도달한 후에 근육의 힘이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색함을 경험한다. 따라서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청년초기의 소년들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닐 수 있다.

고환과 음경의 성장은 청년초기 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부모로부터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년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정을 경험하면 당황하고 불안해 한다. 대체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친구나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성욕의 문제와 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청년초기의 소년들은 사정경험에 대한 불안과 함께 성적 쾌감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성숙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다.

또한 청년초기의 소년들은 얼굴의 수염을 면도함으로써 성인 남성과 동일

시하게 되고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변천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얼굴에 돌아나는 여드름은 성인 남성과 동일시하려는 소년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신체의 불완전성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

소년에 있어서 조숙과 만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숙한 남자들은 동년배의 여자들과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여자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또 신체발달이 빠른 남자는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보다는 클 것을 기대하고, 또 작은 남자보다도 큰 남자에 대해서 사회가 더 인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발달하는 조숙한 남자가 여러면으로 자신감과 자기확신을 갖게 된다.

반대로 늦게 성숙하는 남자는 오랫동안 아동취급을 받고, 운동력도 뒤떨어지며,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자기가 앞으로 만족할 만큼 클 수 있고 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

(2) 소년이 받는 영향

소년들보다 2년 정도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는 소녀들은 같은 학급의 남학생보다 키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년초기 소녀들은 갑작스런 신체성장에서 나타나는 체중증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며 비만을 걱정하여 식사조절을 시도한다.

가슴의 발육과 생리의 시작은 성숙한 여자로 성장해 가는 표시로 간주한다. 그러나 생식과정으로서의 생리현상에 대한 지식을 건전한 통로를 통해 얻지 못했을 경우, 자신들의 생리현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그들은 생리를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숙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불편함과 당황함을 함께 경험한다.

소녀에 있어서의 조숙과 만숙의 의미는 소년과는 다르다. 남자들은 조숙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차이가 훨씬 적다. 어떤 연구들은 조숙한 여자들이 더 안정되어 있고 적응력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만숙한 여자가 더 자신있고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사

춘기에 대한 여자들의 적응은 성장속도가 빠른가 늦은가의 문제보다는 부모나 주변인물 및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 지도, 기대 및 가치에 달려 있다.

4.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각 발달단계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 발달과업이란(developmental task)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서 만약 한 단계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발달도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발달과업이란 한 개인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술, 지식, 기능, 태도로 정의되며, 이는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적 기대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Havighurst는 발달과업의 성격을 생물적, 심리적, 문화적인 기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다음과 같다.

-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한다.
-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Erik Erikson은 인간의 각 발달단계에서 이룩해야만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의 발달도 생략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심리사회적 위기란 발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노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긴장을 의미한다.

사춘기와 청년기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로 인하여 혼란되고 당황하게 된

다. 따라서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자아 정체감 즉 나는 누구인가, 또 거대한 사회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위기는 정체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역할혼미에 빠지느냐 하는 것이다. 사춘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은 정체감 혼미를 가져온다. 청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어느 시기보다도 강하다.

정체감형성은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서 부분적으로는 동일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도 발달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짧은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모든 결정이 미래의 다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느낌도 갖는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찾기 위한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인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내부기관의 급격한 발달에 의해서 생식기와 생식기능이 발달하여 그 결과 제2차 성징이라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된다.

이 시기에 발달한 신체 및 운동능력, 성적 발달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기반이 되며, 사회생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빠른 신체발달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여러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즉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함의 유무, 운동능력의 우열 등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은 그들의 정신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사춘기의 이러한 신체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너무나 급속하고 개인차와 남녀차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고 불안해 하며 따라서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 제기되게 되는데, Havighurst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들고 있다.

-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한다.
-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요소 속에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자아정체감, 즉 나는 누구인가 또한 거대한 사회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는 것이다.

연구 과제

1.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신체발달의 현상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것이 심리적,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 청소년기에는 내부기관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생식과 생식기능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은 제2차 성징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 제2차 성징의 특징을 파악해 본다.
3.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뒤, 이것을 소년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화시켜 그 특성을 파악해 본다.
4. 청소년기에 청소년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해 살펴본다.

3.

인지능력의 발달

개 관

청소년기는 신체생리적 변화를 포함하여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인지적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만이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니는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수준이 이전 발달단계에 비해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인지적 능력의 질적인 측면으로 형식적 조작사고에 관해 살펴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알아본다. 이외에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특히 신체적 성숙과 인지능력과의 관계,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인 사고특징, 그리고 학업성취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주제어

청소년의 인지발달, 형식적 조작사고, 유동적 지능, 결정화된 지능, 정보처리능력, 자아중심성, 상상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학업성취, 내외통제성.

* 광금주, 연세대학교 강사

급격한 신체적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되며 또 이에 따른 행동특성을 보이게 된다. 연령에 따른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영아기 아동을 거쳐 변화된 사고의 특성이 청소년기에도 두드러지며 그 이후의 어느 시기도 이와 같은 큰 폭의 인지변화가 없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인지변화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인지’의 용어 정의부터 내려보기로 하자.

인지(cognition)란 라틴어 cognoscere에서 유래된 용어로, ‘알게 되다’ 즉 지식(knowledge)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지란 지식의 구성, 획득, 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개념화, 범주화와 같은 고등 정신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일어나는 인지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불음은, 청소년기를 생의 다른 기간 동안과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인지적 획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능력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또 인지적 능력이 양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 그 외에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 청소년기의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질적 발달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구성하며, 그 지식을 활용하는가에 관한 인지적 발달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학자로는 Piaget가 대표적이다. 그는 연령에 따라 네 개의 발달단계를 설정하여 인지발달을 설명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변화하는 인지적 사고구조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기의 사고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선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나서 청소년기 이전 단계와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에 관해 설명하기로 하자.

1) Piaget의 인지발달단계들

Piaget는 인지발달이란 연령변화에 따른 내적성숙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난 이후의 경험이나 외적인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Piaget는 아동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계획표 뿐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다 더 분화되고 포괄적인 인지구조를 세워나가는 능동적인 구성과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지적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은 질적으로 다른 구조로 구성된 발달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일정한 순서로 일어나나 그 발달 속도는 문화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1) 감각운동기

출생후 약 2세까지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유아는 상징적 사고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감각체계, 지각, 운동활동에 의해 환경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 시기말에 가면, 유아는 점차로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정신적 표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2) 전조작기

이 단계는 2세에서 6, 7세 경으로, 이때가 되면 아동은 사물을 묘사하는 능력인 상징적 기능을 발달시킨다.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이란 어떤 사물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른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새로운 능력은 아동이 하는 상징적 놀이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아이들이 빗자루를 비행기라고 하면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타고 다니는 것, 또는 인형을 살아있는 것처럼 친구로 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바로 상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비행기를 또는 살아있는 친구를 머리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표상능력은 지연 모방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의 행동을 머리 안에서 떠올리면서 그대로 모방해서 할 수 있는 지연된 모방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시기는 상징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감각운동기와 구별된다. 그러나 논리적인 사고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은 다음 단계에 가야 가능하다.

(3)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1, 2세에 해당하는 이 단계에서는 실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했던 것을 머리 속에서 내재화된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아동은 “정신적 행위(사고)”를 변형시킬 수 있는 조작(operation)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획득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눈앞의 지각적 특성보다는 과정과 관계에 따라서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 하나의 예로, 입이 좁고 긴 물병에 들은 물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입이 넓고 깊이가 얇은 그릇에 붓게 되면, 전조작기 아동은 물의 양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은 물의 양이 변함이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아동은 물체의 겉모습(모양이나 형태)이 변하여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보존개념(conservation)을 가지게 된다. 이때 더하거나 덜어낸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그대로라는 조작 또는 부은 물을 다시 원래 병으로 부으면 그대로일 것이라는 정신적 조작을 이 시기의 아동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아동의 사고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되며,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사물을 공통속성에 근거하여 유목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조작적 사고는 아직 제한적인데,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나, 또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 형식적 조작기

보통 11세에서 15세 사이에 시작하는 이 단계의 형식적 조작사고는 역전될 수 있는 정신적 표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조작사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은 좀 더 진보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해 보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정신적 표상을 적용해서 사고할 수 있고 다양한 역전 가능성들이 협응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고 특성

은 가상적인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가설을 생성하고,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또 가설 연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와 본질적인 추론과정이 다른,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고 특성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청소년기 사고의 질적인 특성

청소년기 이전 단계와 청소년기를 구분시켜주는 Piaget의 ‘형식적 조작사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비교 설명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Flavell, 1985; Inhelder와 Piaget, 1958; Byrnes, 1988; Overton, 1990).

(1) 현실지향에서 가능성지향 사고

청소년 초기가 되면 사고는 연역적 특성을 지닌 추론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또는 가상적인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추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안 청소를 한다면 2000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제시할 때, 집안 청소를 하는 결과로 2000원을 받게 된다고 옳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반대되는 제안, 즉 “깃털로 유리잔을 친다면, 그것은 깨질 것이다.”와 같은 가설에 대해서는 연역적인 추론 과정이 불가능하다(Markovits와 Vachon, 1989). 즉 Kuczaj(1981)에 의하면 청소년기 초기나 그 이전 시기의 아동은 상상적인 인물이 등장하거나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실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 초기의 사고는 현실지향적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가능성지향 사고를 가지게 된다.

즉 청소년은 실제 사건이나 상상의 사건을 가능한 모든 전체 중의 일부로 다룰 수 있게 되며, 여러 가능성들을 생성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실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또 그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데, 대상 뿐만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상상의 사건에 대해 그 원인과 결과를 변환시켜 생각할 수 있

다. 예컨대 ‘닭이 초록색의 달걀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 이상 생각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가능성지향의 형식적 조작사고를 지닌 청소년은 그러한 가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초록색의 사료를 먹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등등, 그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 지향적인 사고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틀에 박힌 사고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을 어린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해내기도 하는 것이다. 또 항상 틀에 박힌 사고만을 하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이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독특한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지향적 사고는 청소년기의 여러 행동특성에서도 나타난다. 즉 이들은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그들 앞에 무한한 미래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미래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세우며 야망을 펼치게 된다.

(2) 부분적 분석에서 조합적 분석

가능성이 많을수록 가설을 검증하는데 시행착오보다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모든 요소들의 조합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합능력 (combinatorial ability)이 형식적 조작사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Byrnes, 1988; Inhelder와 Piaget, 1958).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시험관에 담긴 색깔과 향기가 없는 액체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이 다섯 개의 액체를 조합하여 노란색의 혼합액을 만들어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내라고 한다. 청소년기 이전 단계의 아동은 아무런 계획없이 액체를 섞어 시행착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우연히 노란색 액체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치게 된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은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데 우선 한번에 두 액체를 차례대로 섞어 보고, 그 다음에는 세 개의 액체를, 다음에는 네 개를, 그 다음에는 다섯 개 모두를 혼합시키는데, 이때 반복하거나 빠

뜨리지 않고 모두 다 조합시킨다. 또 한 가지 해결책이 발견되더라도 적절한 요인을 분리해내고 그렇지 않은 요인은 제거하면서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아 내려 한다. 13세 경이 되면 80-90%의 청소년이 이와 같은 조합적 분석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Byrnes, 1988; Keating, 1980; Neimark, 1979).

(3) 경험귀납적 문제해결에서 가설연역적 문제해결

아동기에서 벗어나면서 가설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나 초기에는 귀납적인 추론과정에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은 잎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지고 나면 얼마 후에 사과가 익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그런 후에야 “사과나무의 잎이 빨갛게 되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가설을 생성하는데, 이 가설은 관찰을 한 후의 귀납적 추론에 의해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사고가 가능한 청소년들은 경험적인 세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측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추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연역적인 추론능력이 요구된다.

(4) 2차적 추상화 수준에서 3차적 추상화 수준

경험을 순서화하는 규칙을 개념(concepts)으로 정의하면서, Hofstadter (1980)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순환, 반복적인 개념규칙체계(recursive conceptual rule system)가 출현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수준을 거친다.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0차수준은 행동 그 자체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대상이 정의되고 경험이 순서화된다.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1차수준에서는 행동규칙체계가 상징적으로 되나 여전히 행동대상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논리의 징표가 되는 응집성(coherence)과 일관성(consistency)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 수준인 2차수준은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수준의 상징체제에 근거하나 응집성과 일관성의 특성을 지닌 규칙체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2차적 추상화 수준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대상에만 제한된 것으로, 일반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3차적 추상화 수준에 가야 일반화된 응집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규칙체계가 출현하며, 이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논리적 사고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하며, 사고체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일련의 믿음에 대한 논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관성 있는 논리로 종교, 정치, 도덕, 교육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믿음이 도전받으면 일관적으로 다른 모든 믿음도 의심하게 되고, 더 심하게 공격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이전에 받아들였던 여러 생각(idea)에서 갑자기 발견되는 비일관성에 대해 격분하며, 또 이에 대해 설명해 주려는 주위 어른에게 도전하게 된다. 논쟁적이고 반항하기 쉬운 젊은이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고집하는 사고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양적 발달

앞에서는 청소년의 인지적 사고 특성을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양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능,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지식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지능

지능이란 경험을 이용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초기의 학자들은 지능을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으로 보고, 일생동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지능검사는 경험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교육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금은 지능의 결정요인으로 유전과 환경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주요질문은 “지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인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정신능력은 사춘기까지 증가한다. Cattell(1963)은 지능을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화된 지능(crystalized intelligence)’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유동적 지능이란 순수한 생리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정 경험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는 추상적이며 복합적인 추론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 지능이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 점차 발달하는데, 뇌성숙이 완성되는 청소년기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후 점차 쇠퇴한다. 그러나 결정화된 지능은 주로 개인의 축적된 학습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 이미 학습해 온, 문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능숙한 판단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정화된 지능은 교육, 문화, 경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기 이후에도 점차 증가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12세에서 46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지능의 발달적 양상에 관해 살펴본 연구(추 정선, 1988)에서 보면, 결정화된 지능의 하위영역들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에도 계속 발달하였으며, 쇠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효과는 학생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인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인집단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정화된 지능이 높았다. 따라서 이 지능은 사회, 문화적인 경험의 차이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는 1904년 Binet와 Simon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Terman, Wechsler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는 학업의 성취를 잘 예언해 주는 것으로, 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율도 높다. 그러나 학교성적을 예언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지능검사에 의해 측정된 지능점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외 성취동기나 공부습관, 흥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2) 정보처리능력

연령과 경험의 증가로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과 성인의 사고는 점차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되어 간다. 이러한 상위수준의 사고로 발달하는 것을 청소년기 동안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이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능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할 수 있다(Sternberg와 Nigro, 1980). 그러나 청소년은 아동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단기기억에 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고, 이전에 저장했던 정보에 지금 막 부호화한 정보를 비교해서 생각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단기기억 용량이 증가한다는 연구(Case, 1985)로부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은 문제의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억을 잘 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정보처리전략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된다(Brown, 1975). 즉 정보를 조직화하는데 있어 기억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정보처리전략이 기억에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식

이외 청소년기가 되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내용에 대해 그 지식이 풍부해질에 따라 아동기와는 다른 추론이 가능하게 되며, 또 이로 인해 형식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과학, 수학 뿐 아니라 역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3. 인지발달과 관련된 기타 요인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변화된 인지적인 발달은 청소년기의 행동특징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인지변화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숙, 자아중심성 그리고 학업성취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인지능력과 신체적 성숙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는 영, 유아기(생후 1년간)와 청소년기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적인 급격한 성장과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변화가 서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인지능력의 질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나 양적인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자나 모두 인지능력과 신체적 성숙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부터 이루어져 왔다. 사춘기 시기와 지능은 그 관련 정도가 적긴 하지만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신체적으로 조숙한 청소년이 더 지능이 높다. 즉 사춘기 시기에 다른 동료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 일찍 성숙하는 조숙아가 대체로 지능 또한 더 높다는 결과에 많은 학자들이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70년대 말부터 일반적인 지능이 아니라, 특정 인지능력과 신체적 성숙간의 관련성으로 그 관점이 변화되었다. Waber(1977)에 의하면 조숙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언어능력이 더 높으며, 반면 공간능력에서는 늦게 성숙하는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숙과 관련된 특정 신체적인 요인이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발달과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인지적 발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원인을 다음 두 가지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사춘기 때에 “뇌의 성장급등”이 일어나는데, 청소년기의 특정 인지적 기능은 급격한 뇌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다 (Epstein, 1974). 둘째, 이와 같은 명백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는 특정한 능력(특히 공간능력)을 위한 상위수준의 전체능력 자체가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Waber, 1977).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 중 아직 어느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검증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학급에서 중책을 맡게 된 나의 활약은 눈부셨다. 공부시간에 떠 돌지 못하게 하기, 복도에서 뛰는 남자녀석들 무릎 꿇어 앉히기 등등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당시 친구들은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고(내 생각에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관심, 대중가요들, 하이틴 잡지들, 그러나 난 솔직히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난 다른 것들에 바빠 있었다. 난 그런 아이들과는 달랐다. 난 스스로가 만든 차별화

에 빠져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난 우정이라는 것을 잃었다. 난 그렇게 또래에게서 소외되어 갔었고, 안으로 기어들어 갔으나 그 당시로는 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나는 얼마나 활발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을까? 마음은 열지 않고, 똑똑한 척 나타나는 나를 친구로 맞아줄 이는 많지 않았던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난 점차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갔으나 그것은 그들이 나를 질투어린 선망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대학 2학년 여학생 Y양의 회고에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자아중심성(egocentrism) 개념이란 ‘중심화’라는 용어로 Piaget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인지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의 인지기능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 기능의 한쪽 측면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화가 나타나며, 인지구조가 성숙해짐에 따라 중심화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탈중심화는 한 단계의 인지구조가 완전히 성숙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상위구조로의 발달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lkind(1967)는 Piaget가 제시한 이론을 확장하여 청소년기에 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인지, 행동 양상인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 이 개념은 청소년기에 관한 인지발달 가설의 가장 좋은 예로 인정되었다 (Lerner, Petersen & Brooks-Gunn, 1991).

그러면 이 시기의 자아중심성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아동기의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한 이 새로운 정신체계는 다시 한번 이들을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빠지게 한다. 즉 형식조작적 사고로 청소년은 자신의 사고를 개념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도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이 능력이 문제가 된다. 청소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대상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중심성이 나타난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특히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자신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정신적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듯이 타인도 자신에게 똑같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늘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타인이 바로 ‘상상속의 청중(imagery audience)’인 것이다. 이때 실제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상상’이며,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은 늘 ‘청중’이 된다. 상상적 청중 개념은 전형적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일 때 청중 또한 비판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밀을 간직하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들어내기를 꺼려하는 청소년기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종종 자기비판적이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청중 또한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며 쳐다보고 있다는 상상 속에서 그 정도가 지나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유치함이나 변덕스럽고 요란한 옷차림 등이 이와 같은 상상 속의 청중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두 시간 동안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질하는 소년은 아마도 소녀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랜시간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해보는 소녀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찬사의 시선들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적 청중에 대응되고 또 그것을 보완해 주는 또 다른 정신구조로서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분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 즉 상상적 청중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특히 자신의 감정을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자신만이 그러한 격렬한 고통을 겪으며 또한 더할나위 없는 환희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가 불멸이고 독특하다는 이러한 믿음은 청소년 자신들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점에서 ‘개인적 우화’라 부른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아는가요? 이 기분은 아무도 모를거예요.”라는 청소년의 전형적인 상투어도 바로 이와 같은 개인적 우화에서 비롯된다. 또 연애에 실패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의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데, 남들은 이해 못하는 자신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아중심성은 형식적 조작사고가 확립되는 시기인 15-16세가 되면 사라진다. Elkind(1974)는 이 ‘상상적 청중’은 청소년들이 타인의 사고에 대한 완전한 개념화를 이루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며, ‘개인적 우화’는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더라도 Erikson이 제안한 발달과업 중 ‘친밀감(intimacy)’을 획득한 후에야 사라진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다른 사람의 사고간의 점차적인 구분에 의해 극복되며, 또 정의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의 점차적인 통합에 의해 극복된다 (조복희와 신화용, 1990).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인경과 윤진(1988)은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한 결과,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자아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3) 학업성취

우리 사회는 성취와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는 진로선택이나 취업선택에 곧 바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분석이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형식조작적 사고와 교과목 성적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형식조작적

사고 검사점수와 각 교과목 성적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그 과목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간에도 형식조작적 사고능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Lawson, 1982).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형식조작적 사고와 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형식조작적 능력이 높으면 교과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학점수가 높았다. 또 지능이 높을수록 형식조작적 사고도 높았다. 그러나 지능보다 형식조작적 능력이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언해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 (허형, 1988).

형식적 조작사고 이외에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이 지닌 특성으로 성취동기와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이 있다. 성취동기란 외적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이 지닌 동기로서(McClelland, 1953),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성취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학업성취가 낮다. 이러한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이란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성취하려는 동기를 증가시켜 과제수행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지나친 불안은 과제수행을 방해한다. 높은 수준의 불안은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특히 방해요인이 된다(Spielberger, 1966). 또 성공과 실패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느끼는 내적 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진 사람과 모든 일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믿는 외적 통제성(ex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진 사람의 학업성취는 차이가 있다. 즉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내적 통제성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은 읽기, 언어, 수학과 같은 학업성취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숙제에도 열심이며, 복잡한 논리적인 퍼즐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적 통제성을 지닌 학생은 동료들이나 교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klin, 1963; Mcghee와 Crandall, 1968).

본문 요약

인지란 지식의 구성, 획득, 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 사고, 상상

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해결력, 개념화, 범주화와 같은 고등정신과정으로 정의된다.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가 되면 형식적 조작사고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의 특징으로 청소년은 여러 가능성들을 생성할 수 있으며, 부분적 분석이 아닌 조합적인 분석능력을 나타낸다. 또 이들은 가설을 생성하여 연역적 추론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고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일관성을 보이는 3차적 추상화 수준을 지닌다. 양적인 측면에 관해 설명하면,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하여 유동적 지능은 가장 절정에 달하며 그후로는 점차로 감소된다. 반면, 결정화된 지능은 청소년기 이후에도 문화나 사회적 경험에 의해 점차로 증가된다.

이외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에 의해 나타나는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이 있다. 이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상상의 청중’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존재는 불멸이고 독특하다는 ‘개인적 우화’라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기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학업성취로써, 이것은 지능, 형식적 조작사고 외에 개인이 지닌 성취동기나 또는 내외통제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연구 과제

1. 청소년기의 질적인 인지적 특성으로서 형식조작 사고에 관해 살펴 본다.
2. 청소년기의 양적인 인지적 특성으로 지능, 정보처리능력, 지식에 관해 설명한다.
3.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의 두 가지,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에 관해 ‘알아본다’.
4.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여러요인들을 설명한다.

참 고 문 헌

박금주 역(1989), 아동의 인지발달(Ault, R. 저), 중앙적성출판사.

- 김인경, 윤진(1988),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조복희, 신화용(1990),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
- 추정선(1988), “아동기 이후의 결정적 지능 발달 양상 분석”, 교육학 연구, 26(1), 63-78.
- 허형(1988), “형식조작적 사고와 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육학 연구, 26(1), 79-98.
- Brown, A. L.(1975), The development of memory: Knowing, knowing about knowing, and knowing how to know, In H.W. Reese(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0, NY: Academic Press.
- Byrnes, J. P.(1988), Formal operations: A systematic reformulation, *Developmental Review*, 8, 66-87.
- Case,R.(1985), *Intellectual Development: Birth to adulthood*, Orlando, Fla.: Academic Press.
- Cattell, R. B.(1963),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A critical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4, 1-22.
- Elkind, D.(1974), *Children & adolescents*(2nd Ed.), NY.: Oxford Univ. Press.
- Flavell, J. H.(1985), *Cognitive development*(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Franklin, R.D.(1963), Youth's expectancies about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Dissertation Abstracts*, 24, 181-191.
- Inhelder, B., & Piaget, J.(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Wiley.
- Keating, D. P.(1980), Thinking processes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211-246), New york: Wiley.

- Kuczaj, S. I.(1981),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comprehension of hypothetical references, *Journal of Child Language*, 8, 131-137.
- Lawson, A. E.(1982), Relationships among performances on three formal operations tasks, *Journal of Psychology*, 96, 235-241.
- Lerner, R. M., Petersen, A. C., Brooks-Gunn, J. (1991),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McGhee, P.E. & Grandall, V. C.(1968), Beliefs in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39, 1-14.
- Neimark, E.D.(1979), Current status of formal operations research, *Human Development*, 22, 60-67.
- Overton, W. F.(Ed.), *Reasoning, necessity, and logic: Developmental perspectiv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pielberger, C. D.(1966), The effects of anxiety on complex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d. Spielberger(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Sternberg, R. J., & Nigro, G.(1980),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solution of verbal analogies, *Child Development*, 51, 27-38.
- Waber, D.P.(1977), Sex differences in mental abilities, hemispheric lateralization, and rate of physical growth at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9-38.

4.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개 관

청년기는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짙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고민과 갈등의 해결 및 극복은 청년들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자아정체감이란 어떠한 성질의 것이며, 개인의 자아 정체감은 어떻게 형성, 발달되는지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실제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음미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청년들이 정체감 확립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정체감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한다.

주제어

자아 정체감, 집단적 정체감, 개인적 정체감, 자기 통합성, 정체감 혼미, 역할확산, 부정적 정체감, 정체감 조기확립, 심리적 유예기, 정체감 성취, 공유적 정체감.

* 서봉연, 서울대학교 교수

1. 자기탐색과정의 고민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사색하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회의와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이 시기에 생기는 회의와 고민들은 대개 자기자신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미국의 성격 심리학자인 Allport는 청년기를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age of renewed exploration of self)라고 불렀고, 자아정체감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계 학자인 Erikson은 청년기를 자아정체감 정립의 결정적 시기라고도 하고 자아정체감의 위기라고도 했다. 두 학자의 말에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에 대한 탐색’과 ‘자아정체감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기저로 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탐색’에 골몰해지는 것은 곧 자아정체감(ego-identity)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청년들의 자기에 대한 회의와 고민은 어떤 양상으로 시작되며, 고민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실제 사례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1

B군은 어릴 때부터 ‘머리좋은 아이’로 통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S대에 지원해서 무난히 합격했다. 학기의 중간고사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잘 치루지 못했다. 그는 이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학기말 고사에서는 주위의 친구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성적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이 교향의 부모와 친지들, 특히 모교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엔 꼭 만회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끔 1학기의 상상외로 저조했던 성적을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순간이 자주 있었다.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자기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강의 시간에도 주의집중이 잘 안되고, 그러한 자기를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같이 학교에 나오는 것이 점점 초조해져서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하숙집에서도 공부가 잘 안되고, 도

서관에 가도 공부가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는데, 그러한 자신이 못마땅해서 진정제를 사먹어 보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한 학기를 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으나 그것도 체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중간고사를 또 망치고 또 다시 학기말 고사를 만회의 기회로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더 분발하리라고 다짐은 했지만 자꾸만 잡념만 생겨서, 하숙집에서 나갈 때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나가서는 가까운 산을 헤매면서 자기의 '초라해진' 모습을 반성했다.

“나는 본래 머리가 나쁜 놈이었나?”, “나의 IQ는 이것이 한계인가?”, “내가 대학에 와서 1년도 못되서 이꼴이니, 나는 의지가 박약한 것인가?”,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고향 사람들도 만나기 싫으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지?”, “내 성격은 이렇게 소심했었나?”, “나는 교장선생님이 신 우리 아버지 체면에 얹매어 이 꼴이 아닌가”, “우리집의 말아들답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될텐데, 내가 이 모양으로 비틀거리다간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결국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거두지 못해, 결국 2학기 학기말고사 직전에 휴학을 하고 말았다. 휴학을 하고서는 집에는 알리지 않은 채 책방을 돌며, 위인전을 사모아 놓고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은 대비적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고, 마음의 불안은 더 심해져만 갔다.

이러한 ‘마음앓이’를 근 2년이나 계속하던 끝에, 그는 드디어 상담실을 찾았다.

사례-2

이 사례는 대학 2학년생인 S군의 경우이다. 그는 지방고교에서 서울의 일류대에 입학했다. 입학 후 첫 학기는 공부에 열중하여 성적이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썩클에 들어가게 되어, ‘운동권 교과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데모가 있을 때는 심적으로 동조하지만 직접 데모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동교들로부터 이에 대한 비난을 받고 고민했으나, 더 큰 고민은 자기 자신의 이념정립에 있어 스스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학기말에는 시험공부가 안되서 결국 F학점으로 학사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서적 쪽으로만 눈이 쏠리고 전공서적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공을 바꿀

수도 없고, 학기말에는 전공 시험을 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은 점점 커갔다. 그러다가 두번째 F학점이 두려워서 휴학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휴학을 할 때에는 전공과목의 공부를 만회해 가지고 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아 한 학기를 더 쉬었다. 복학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동안 시골에서 뭘하고 지냈나?”하고 물었더니 “이념서적과 판금 서적들을 구해지는 대로 읽어 제쳤지요. 나중에는 그것도 시들해져서 소설을 읽고 지냈지요. 아마 100권 이상 읽었을 겁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래 이제는 마음의 갈피가 좀 잡히는 가?”하고 물었더니,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점점 더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차마 웃음이라 할 수 없는 그의 표정 속에 그때까지도 짙은 방황의 고뇌가 깔려 있었다.

위의 두 사례는 얼핏 보기에 제각기 다른 고민인 것 같으나, 근원적으로는 모두 자기존재의 확인과 재정립을 위한 사색과 노력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상술한 Allport와 Erikson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자아정체감 정립을 위한 자기탐색의 과정인 것이다.

2. 자아정체감의 정의와 기능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그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한 마디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체감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집단 정체감이니 국가 정체감이니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아무 아무대학 사람이다’ ‘나는 삼성맨이다’라고 말할 때 지칭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집단정체감이니 국가정체감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또는 국가)의 역사, 전통 및 가치관 등에 자기자신을 귀속시킴으로서 그러한 귀속감 내지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는 어디의 아무개다’고 느끼고 주장하는 바를

가리킨다.

정체감의 주관적인 측면은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Erikson은 이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정체감이고, 또 하나는 자아정체감이다.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이란 쉽게 말하자면, 한국인으로서의 아무개가 아니라 ‘김 아무개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 정체감이란 어떤 개인이 그가 놓여진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지라도 여전히 ‘김 아무개로서의 나’임에는 다를 바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Erikson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적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feeling of sameness and continuity of self)’인 것이다.

그런데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위에 설명한 개인적 정체감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자기 자신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이다. Eriks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ego)가 그의 인격체계 즉 원초아(id)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super ego)의 세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의 통합방식이 개인적인 존재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또한 자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아정체감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일관성내지는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을 이룩하고자 노력한다. 이때 자기 통합성이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자기 통

일성을 함께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서만 아니라, 오랜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지각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3. 청년기와 자아정체감의 문제

Erikson의 이론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확립은 청년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청년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청년기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이 시기의 내적 충동의 질적·양적 변화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발달과 성적 성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신체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충동들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전 단계에서는 아직 발동되지 않았던 심리, 성적 충동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또 다시 남근기적 갈등(oedipus complex)을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어느날 문득 거울에 비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고 청소년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게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충동을 스스로 통제·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주인인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자아정체감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두번째 원인으로서는 청년에게 부딪쳐오는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들이 있다. 청년은 아동도 성인도 아닌 그 경계인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많은 양가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및 역할규정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예컨대, 가정에서 그들은 아직 미혼이며 경제적 독립이 성취되기 전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이와 체구에 걸맞게 독립적일수록 기대되고 책임있는 처신과 행동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양가적인 상황자극과 요구에 빈번히 부딪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물음은 자신의 능력 및 성취나 여건 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념등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 지금까지의 성취들, 출신 및 신분 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놓고 심각한 사색에 빠져든다. 때로는 생각하는 일에 지쳐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 청년기의 물음은 해답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눈 앞에 마음에 드는 동일시의 대상이 있으면, 고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년들의 눈에는 누구도 마땅한 동일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청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체계로서 간직해 온 이전의 동일시의 대상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청년기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네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4. 정체감 발달에 관한 이론

이번에는 개인의 정체감의 형성 및 발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를 Erikson의 이론과 Marcia의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Erikson 단계설

Erikson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두드러진 주제와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청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정체감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매우 흥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Erikson 이론의 8단계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자아정체

감이 확립되는 시기인 제5단계만 상세히 다루고, 그 이외의 단계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제1단계 : 기본 신뢰감이 형성되거나,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 (0—18개월 경)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또는 엄마대리)의 돌봄에 의해서 생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간다. 이때 엄마의 돌봄이 적절하고 긍정적이면 아기는 엄마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엄마의 행동에서 어떤 일관성과 예언성, 그리고 신뢰성을 감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기는 엄마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감(sense of basic trust)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엄마가 돌보아주는 행동을 갑자기 철회해 버리던가 돌봄이 불규칙할 때, 아기는 엄마의 돌보아주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는 불신감(sense of mistrust)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발달되는 신뢰감과 불신감은 점차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자신까지를 포함하는 온 세상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간다. 이 시기에 획득되는 기본 신뢰감은 장차 청년기에 가서 부딪치게 될 정체감 위기에 처해서도 자기 고유성을 잃지 않고 견디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자아 역량(ego-strength)을 키워나가는 모태가 된다.

제2단계 : 자율성이 형성되거나, 수치와 회의를 형성되는 시기 (18개월—3세 경)

이 단계의 아이들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대소변도 점차 가릴 수 있게 되므로 상당히 자율적인 독립적 존재가 된다. 한편, 말도 할 수 있어 점차 자기 주장도 강해져간다.

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이 처음으로 획득한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외부의 재제(사회적·문화적 통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불행하게도 적절한 통제방법을 잘 익히지 못한 까닭에, 스스로 행동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조종하거나 반항적 행동 속에 숨겨진 자율에의 의지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과소 평가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할 바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충동과 의지가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동되는 자기결정의 충동과 의지가 수치심과 회의의 감정으로 뒤바뀌어, 자율적 의지와 수치심 및 회의감정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Erikson은 설명한다.

자율성이란 독자성과 자기 주장성을 내포하는 것인 만큼 이 시기에 획득된 자율성은 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의 기틀이 되며, 수치심과 회의는 긍정적이고 일관된 자아상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제3단계 : 주도성이 형성되거나 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 (3-6세경)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성장으로 인해 어떤 일(놀이)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성(initiativity)을 발휘하게 된다. 주도성을 발달시킨 아동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 때로는 무모하게 — 일(놀이)을 계획하고, 경쟁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경쟁도 한다.

그러나 아동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근사한 계획과 기대했던 목표와 희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된다. 즉, 아동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희망과 이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금지간에 갈등이 생긴다. 여기서 아동은 사회가 금지하는 것을 내면화하여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 주도성을 획득하게 되는 아동은 청년기에 가서도 성취목표가 뚜렷한 —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적절히 수정, 재정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 강한 자아정체감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 시기에 죄의식을 발달시키게 되면 성장 후에도 어떠한 목표설정에도 망설이게 되는 나약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제4단계 : 근면성이 형성되거나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6-11세경)

이 시기의 아동들은 보다 넓은 문화의 유용한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데 전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지적인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또래들과 놀고 함께 협동하는 것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작업에서 얻어지는 성공경험은 아동들로 하여금 근면감(sense of industry)과 유능감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은 아동들에게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갈등적 주제는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의 문제이다.

이 시기에 순조롭게 근면감을 발달시키게 되면, 다음에 오는 청년기에 가서도 자신의 일에 전력을 투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감과 자기 적절감을 간직하게 됨으로써 굳건한 자아정체감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열등감을 발달시키게 된 아동들은 자기의 나아갈 바를 주장할 수 없는 약한 자아정체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제5단계 :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거나 정체감 혼미가 형성되는 시기 (사춘기-청년기)

이 시기에 이르는 동안 각 단계에서 형성되어 온 기본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을 바탕으로 미숙한 형태로나마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상(self : image)을 형성해 왔다.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대체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 단계에 접어들면 자아정체감 정립의 문제가 의식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만큼 심각해 진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생득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특성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신체적 강약, 외모, 감각적 특이성 등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일차적인 준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청년기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본능적 충동들이 이 시기에는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이 자기 자신과 일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잠복기 동안에 잠자고 있던 성적, 공격적인 충동들이 이제 와서는 자아와 그 방어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해 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리적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정체감 혼미(identity confusion)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정체감의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적 측면 못지 않게 사회적인 측면이 관여한다. 이 시기의 청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

나 성적 충동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미래 위치에 관하여 걱정하기 시작한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정신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에 압도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 시기의 청년들은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집단에 동일시하려 든다. 그래서 그들은 편협하리만치 배타적이고 당파적일 수 있다고 Erikson은 설명한다. 어떤 청년들은 서둘러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나머지, 자기자신과 자신의 이상이나 자신의 경쟁자 혹은 적을 어떤 고정관념으로써 규정지워 버리는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국가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에 동조함으로써 집단 정체감(group identity)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데, 개인의 정체감에는 그러한 동일시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동일시들이 단순한 집합으로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적인 동일시들이 개인의 고유한 전체성으로 통합되어 나갈 때, 비로소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이룰 수 있다. 이때 개인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효과적인 아동기 이전의 잔여물과, 예상되는 성인기의 희망으로부터 추출되는 중심적인 통일체, 즉 어떤 중심적인 관점과 방향성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성과 방향성을 상실하면 정체감의 혼미를 모면할 수 없게 된다.

또 한편에서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취들이 또한 정체감 발달에 기여한다. 초보적인 유아기의 여러 성취들로부터 아동기의 학교에서의 성취들, 그리고 청년기에 새로 이루는 성취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자아정체감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취들이 그 문화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면, 그것은 개인의 긍정적이고 지

속적인 정체감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던가,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commitment)를 할 수 없을 때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종종 고통스럽게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고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너무 서둘러 내리면 그것이 어쩌면 미래의 다른 가능성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와 성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종의 '타임 아웃' 기간으로서의 심리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을 갖는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들은 관여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휴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이나 산사(山寺)에 틀어박히기도 한다.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관여의 대상이 너무 많고 실험적 시도의 변화가 너무 빈번할 때, 청년들은 역할확산(role diffusion)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만일 끝내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또한 심각한 정체감 혼미(identity confusion)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갈등은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identity achievement vs. identity confusion)의 대결인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청년들의 고뇌는 점점 심화되어가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Erikson은 이 시기를 가리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라고 했다.

이와 같은 정체감 위기에 처하게 되면, 청년들은 자기탐색 과정에서 정착할 바를 못찾고 마냥 표류할 수도 있다. 이때 밀어 닥치는 무실체감(non-entity)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에서 그만 끼어붙기 쉬운 비행집단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비행집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정체감(negative identity)을 형성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기는 자아정체감 정립의 결정적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아정체감 정립이라고 하는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이 청년기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 단계들에 있어서의 여러 성취

가 모두 이 시기의 정체감 정립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이후 시기에 예상되는 성취들도 벌써 예기적인 형태로 이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기의 희망과 설계, 그것들로부터 기대되는 성취들과의 연관 속에서 정체감 정립의 방향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감 정립의 시기로 강조되고 있는 청년기 이후의 단계들도 간략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6단계 : 친근감이 형성되거나 고립감이 형성되는 시기(청년후기—성인초기)

이 단계에서는 이성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 서로를 보는 관점, 자신의 미래 계획, 희망 그리고 기대 등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성의 상대방과 공유적 정체감(shared identity)을 갖고자 원한다. 이러한 욕구에서, 제6단계인 성인초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기존재 확인의 문제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성인초기의 과제인 친근감(intimacy)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근감은 합리적이고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의 지속적인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관계가 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Erikson은 친근한 상호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 친근감과의 반대되는 고립감(isolation)이 형성된다고 한다.

제7단계 : 생산성이 형성되거나 자기침체가 형성되는 시기(성인후기)

성인초기에서 두 사람간의 친근감이 형성되면, 성인후기에 해당되는 제7단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두 사람을 넘어서 확대되어 간다. Erikson에 의하면, 이 시기의 사람은 생성감(sense of generativity)을 성취하는데 전념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생성감이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작업을 통하여 물건을 만들고 이상이나 뜻을 세우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Erikson의 강조는 전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써 바로 생성감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는 것 이상의 것으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신념, 인간에 대한 믿음, 타인을 돌보는 능력들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 시기에 생성감이 결여되면, 성격이 침체되고 황폐화된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종종 일종의 유사친근감(pseudo-intimacy)으로 퇴행하거나, 마치 자기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갈등은 생성성 또한 자기침체성(self-absorption)의 대립이 주축이 된다.

제8단계 : 자기통정감이 형성되거나 절망감이 형성되는 시기(노년기)

성인 후기에 들어서면 노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금 음미하게 된다. Erikson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기의 생애가 위축되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단계의 성숙과 지혜를 얻고자 내면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투쟁은 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자아통합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끝내 절망(despair)에 빠져버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의 투쟁인 것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을 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가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절망감—지나온 생애가 후회스럽고, 이제는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 더 이상 다른 유형의 생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느낌—에 직면하고 가슴 아파한다. 그러나 어떤 노인은 오히려 이 시기에 자기통정감(sense of self-integrity)을 찾으려 한다고 Erikson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통정감이란 '자신의 생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었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자기 생애 대해서 그 나름으로의 가치를 부여하며 후회스러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완전한 의미의 자아정체감이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자신의 생을 멀찌감치 조망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생을 그리며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끼여들 수 있는 실수와 오류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2) Marcia의 자아정체감 성취수준의 분류

전술한 Erikson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형성, 발달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나, Marcia는 자아정체감이 성취된 정도에 따라 네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rcia(1966)는 에릭슨이 자아정체감의 형성기를 직업적 또는 이념적 관여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본데에 근거하여, 대학생を対象으로 면접방법에 의해 직업선택, 종교 및 정치이념에 대한 관여와 위기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대학생의 정체감의 성취수준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Marcia는 자아정체감의 성취수준을 네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일 낮은 성취수준은 정체감 확산(identity diffusion)의 상태인데, 이에 속하는 사람은 직업계획이나 이념적인 세계관에 대해 강한 참여를 하지 않거나, 쉽게 중단해 버린다.

다음 성취수준은 정체감의 조기성숙(identity foreclosure)으로써,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 바로 부모나 기타 권위에 의해 주어진 대상의 가치관을 선택의 여지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조기성숙 상태는 외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적 충격이 오면 외견상 유지되던 정체감이 붕괴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 성취수준은 정체감 유예(moratorium)의 상태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나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되어 있으며 대개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즉, 위기를 경험하면서 선택적 참여를 위해 여러 대안들 중에서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말하자면 일종의 역할실험의 상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성취수준은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d)의 상태이다. 이 수준은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비교적 강한 참여를 보이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정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상황적 변화에 따른 동요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게 된다.

Marcia는 위와 같은 성취수준의 상태들이 순서가 있는 발달적 단계는 아니나, 유예 상태만은 정체감 확립에 필요불가결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예상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정체감을 성취한 듯 하더라도 어떤 외적 충격이 오면 쉽사리 정체감 혼미에 빠진다는 것이다.

Marcia는 상기한 네 성취수준의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조건하에서의 개념 획득과제의 수행, 요구수준, 권위주의, 반대정보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취수준의 사람들은 다른 수준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하에서도 개념 획득 과제를 더 잘하고 덜 권위주의적이고 부정적 정보에 의해 자기 존중감이 흔들리는 정도가 적었다. 둘째, 유예자들은 개념획득의 변화가 심했고 다른 측정치들에서는 정체감 성취자와 비슷하였다. 세번째, 조기성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권위주의적 가치의 추종이었다. 아울러 부정적 정보에 대해 자기존중감이 흔들리고 정체감 성취자들보다 비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경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혼미자는 원래의 정체감 성취와 대조를 이루리라고 예상되었으나, 자아정체감 검사에서만 최하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관련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연령요인

한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조사, 비교한 한 연구(서봉연, 1975)에

의하면, 14-15세경에 발달곡선이 하강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자아정체감 발달이 이 시기에 어떤 저해요인에 부딪치게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가 정체감 위기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14-15세경에 정체감 위기에 부딪쳐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다시 상승적 발달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성별요인

상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14-15세경에, 남학생은 16-17세경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체감 위기의 시점에 남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녀의 사춘기 도래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은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을 비교한 연구(서봉연 1975, 1979)에서도 재확인된다. 즉, 두 나라의 청소년들이 다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정체감 위기를 약 2년 일찍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아정체감 발달에 유사한 성차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3) 문화, 사회적 요인

한·독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을 비교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이 문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4-15세경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독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의문의 해답을 얻어보려고, 위 연구자는 정체감 척도상의 득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다시 비교해 보았다. 그랬더니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상, 하집단이 모두 14-15세 시기에 정체감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서독청소년의 경우는 하집단에서만 위기를 보일 뿐 상집단에서는 위기를 보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상집단에 속하는 서독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상집단과는 달리 정체감 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점은 후속연구에서 더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나,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어째서 서독의 상위집단은 같은 연령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째서 한국청소년들만 상·하집단 모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될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만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연구자의 견해로는 그 이유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긍정적이고 확고한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기적 계기에 부딪치더라도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쉽게 극복해 가는 자기보상능력(self-reparatory capacity)이 높기 때문에, 상위집단은 외형적인 위기 없이 이 시기를 경과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정체감이 약한 사람은 내적 갈등이나 외적 충격에 침해받기 쉽고, 또 그로 인한 영향의 보상이나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하위집단에는 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외적 압력이 개인적인 극복압력이나 자기보상 능력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잠재적 능력마저 억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고조되는 개인적인 취약성(vulnerability)에 더하여, 사회적 압력이 가중적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정체감의 확산과 혼미가 더 심화된다고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서독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위집단에서도 한국과 같은 심한 하강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서독의 사회적 여건은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 동일시 대상

앞에서 설명한 정체감 이론에서 보았듯이, 정체감이 형성, 발달되는데 있어

서 청소년이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urton과 Whiting의 연구(1961)에 의하면,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년들이 여자와 같은 공상과 외적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과장된 남성적 행동을 보이는 방식으로 여성에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Dignan(1965)이 여대생을 조사한 것을 보면, 어머니와 동일시가 클수록 자아 정체감이 높다.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봉연의 연구(1975)에서는 동일시 대상이 친구인 경우보다 위인이나 정치가인 경우가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불안요인

Marcia(1967) 및 Bach와 Verdile(1975) 등의 연구에서 보면, 자아정체감의 수준과 불안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이 높고, 정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이 낮았다.

6) 자기존중감 요인

자기존중감이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구성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구결과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Marcia의 첫번째 조사, 연구(1966)에서는 자기존중감, 정체감 수준이 높은집단과 낮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했으나, 실험적 조작에 의한 자기존중의 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정체감 성취집단과 심리적 유예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기존중에서 안정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7) 학업성취 요인

우리나라에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목실력과 자아정체감 수준과의 비교 연구(배제현, 1982; 양병한, 1983)를 보면, 전자에서는 성취군의 경우 약 40%의 학생이 과목실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Podd(1980)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후자의 연구결과는, 과목실력

의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하여 여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경숙의 연구(1983)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성취의 상태에 따른 선택과목 학업성취도의 평균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체감의 하위영역(결혼, 가족, 사회 및 정치, 종교 및 도덕)에 따라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8) 관련 요인들간의 상호연관성

서봉연(1975)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되는 변인으로써 학교수준, 생활변동, 장래전망, 동일시대상, 자기의식의 일관성(과거-현재간의 일관성과 현재-장래간의 일관성)의 6개 변인을 검토하였는데, 장래전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장래전망이 밝은 집단일수록 남녀 모두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고 하위구조상으로도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장래전망이 밝으면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촉진되나 장래전망이 어두우면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활경험의 변동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에서는 생활변동을 경험한 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했다. 즉, 중학교와 고교에서는 생활변동이 많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았는데, 대학 1-2학년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대학 3-4학년에 가서는 생활변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생활변동의 영향은 장래전망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미루어 과거경험의 영향은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아청(1984)은 성별, 학년, 군복무 경험, 출생순위, 부모유무 등의 변인과 자아정체감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영역과 직업영역에서 모두 높은 지위수준에 있음이 나타났다. 군복무경험 유무별로 보면, 군복무경험이 있는 학생이 보다 일찍 성취수준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었다. 또 출생순위별로 보면, 맏이가 막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고,

부모유무별로 보면 부모가 없는 학생이 오히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결과들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지도에도 많은 시사를 주는 것만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6. 정체감 위기의 극복

앞에서 설명한 것과같이, 청년기에는 자기 정체감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을 쏟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체감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긍정적이고도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 또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각해보고 부딪쳐보고, 다시 생각해봐야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의 제한상 자기 객관화, 자기 수용, 희망과 이상실현의 실험, 성취의 지혜, 그리고 참고 및 조언의 필요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자아정체감 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된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 중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면만 부각시켜 자기비하와 비관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말로는 쉬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탐색과정에 있어서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간에, 자기의 모든 면을 어떠한 방어기제도 개입시키지 않고 볼 수 있는 성숙한 마음 자세가 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둘째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의 중요성이다. 자기수용이란 자기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별로 어려울게 없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에는 Freud가 설명한 것처럼, 피로운 것은 피하고 기분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면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좋지 않은 면은 의식, 무의식간에 거부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수용이란 좋은 면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면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 역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그것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마음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숙한 자기수용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는, 희망의 구현과 이상실현의 경험적 실험의 필요성이다. 청년기는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놓인 현실을 안다고는 하면서도 이상으로 치닫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과 이상간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 극복은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것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상실현의 가능성을 현실에 부딪쳐가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시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이상의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실행의 지혜와 용기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도 자신이 결정한 선택과 계획을 시행에 옮기는 순간에 있어서는 흔히 망설임과 불안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불안과 주저를 넘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슬기로운 지혜와, 만용이 아닌 참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실행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성취들이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필요한 경우 열린 마음으로 남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태도 역시 정체감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두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체감 위기에서 마음을 앓고 있는 학생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일찍 전문적인 상담자나 주위의 적절한 대상에게 마음을 열고 상담을 청해봤더라면 문제는 훨씬 쉽게,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방

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체감 위기를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구, 교사, 부모와의 열린 마음의 대화가 필요하거니와, 필요할 때에는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맺음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들을 심각하게 여러 가지 제기하게 되고, 이것의 해답을 찾기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고뇌스러운 방향 가운데 실패를 수반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끝내는 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자신의 모습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가장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문 요약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다움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부의식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일관성 내지는 내적 통합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확립은 전생애를 거쳐 이루어지나, 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왜냐하면, 청년기에는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인 변화가 심하며,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요구들이 이율배반적으로 밀어닥치고, 여러 측면에서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나, 참조의 틀이 될 만한 동일시 대상이 없거나 혹은 이전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결정이나 책임을 지우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실험적 시도를 허용해 주는 심리적 유예기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유예기 동안 참여의 대상이 너무 많고 실험적 시도가 빈번할 때, 역할 확산의 위기를 경험하며 정체감 혼미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정체감 성취와 정체감 혼미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않을 때 청년의 고뇌는 점차 심화되어가며, 정체감 위기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객관화, 자기수용, 희망과 이상 실현의 실험, 실행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필요한 참고와 조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요구된다.

연구 과제

1. 청소년기의 방황과 갈등의 원인에 관해 생각해 본다.
2. 자아정체감이란 어떤 개념인가 정의해 본다.
3. Erikson 이론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을 설명해 본다.
4. 자아정체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해 본다.
5. Marcia의 네 가지 정체감 성취수준의 특징들을 기술해 본다.

참 고 문 헌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봉연(1979), “한국과 서독청소년의 identity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제2집.
- 배제현 외(1982), 한국 대학생 자아 정체감 지위형성에 관한 연구.
- 양병한 외(1983), “과목 실력경험과 자아 아이덴티티”, 啓明, 15호.
- 이경숙(1983),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Burton, R.V. & Whiting, J.W.M.(1961), The absent father and cross-sex identity, *Merrill Palmer Quarterly*, 7, 85-95.

- Crain, W.C. (1980), *Theories of Development*, New Jersey : Prentice-Hall.
- Dignan, S.M.H.(1963),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Dissertation paper.
- Dignan, S.M.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476—483.
- Erikson, E.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Erikson, E.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on, (1968a),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Gruen, W. (1960), Rejec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oneself as indication of ego ident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231—233.
- Marcia, J.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E (1967), Ego identity status :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sychology*, 35, 118—133.
- Marcia, J.E., & Friedman, M.L.(1970),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38, 149—263.
- Podd, M.H. (1980), Ego identity status, formal operations, and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87—99.
- Raphael, D. (1978), Identity status on high school females, *Adolescence*, 13, 627—641.
- Tan, A.L. Kendis, R.J. Fine, L.T. & Porac, J.(1977), A short measure of eriksonian ego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278—284.

5.

청소년의 성과 적응

개 관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 보고 청소년기 성행동으로 혼전 성경험과 자위행위, 성행동의 결과로 오는 미혼부모, 성병에 대하여 기술하고 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제어

성에 대한 태도, 이중기준, 자위행위, 미혼부모, 동성애, 성교육, AIDS.

* 이춘재, 성심여자대학교 교수

청년기의 성(性)은 만족의 근원이기도 하며, 좌절의 근원이기도 하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청년은 성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청년기의 성문제를 태도와 행동으로 나누어 그 특성과 현상을 파악하고 성행동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와 문제예방을 위한 성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태도(attitude)와 행동을 구별하여야 한다. 동일한 행동이 아주 다른 동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성에 대한 본인의 태도나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성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 성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혼전 성경험자가 많다(Delamater & MacCorquodale, 1979). 물론 이미 성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성행동이 소극적인 것을 보면 성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성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정확한 실상을 연구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태도는 문화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1) 청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문화에서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동 즉 결혼 전의 성행동과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이 특히 문제가 된다. 성에 대한 태도는 부모의 가치관, 종교, 친구들의 태도, 연애 여부, 나이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조숙한 남자아이들은 동갑 친구들에 비해 더 성행동을 빨리 시작하지만, 조숙한 여자아이들은 실제적인 성행동보다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빨리 나타난다. 여자들은 성숙 수준보다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여고생이나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인데, 1976년 오옥자의 연구는 여고생들의 95%가 혼전순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1981년의 정성체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81.3%가 혼전순결을 지지하고 있다.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문식(1984)의 연구에서는 혼전성교를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비율이 57.6%이고, 결혼약속이 되었으면 괜찮다고 보는 비율이 16.9%이며, 애정이 있으면 괜찮다고 보는 비율이 17.7%이다. 학교를 벗어나 이성접촉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들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순덕, 1984)에서 미혼모들도 혼전성교와 혼전동거에 대해서 56.6%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비교집단은 64.7%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혼모들 중에서 혼전성교와 혼전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6.7%이고 비교집단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7.8%이다. 비교집단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집단 1,600명 중에서 230명이 성교경험자로서 14.3%를 차지한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7.8%인데 비해 행동화한 사람들은 14.3%로 훨씬 높은 비율이다. 미혼모들도 혼전성교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성행동은 태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자료에서 보듯이 성행동이 성에 대한 태도보다 더 개방적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인지불협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으로 설명하면 혼전 성행동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일단 혼전에 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의 그들의 태도는 실제의 행동에 맞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로 일어난 불협(不協, dissonance)은 해소되고 태도와 행동의 일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은 아직 성에 대한 태도가 성을 경험한 후에도 혼전의 성행동에 긍정적으로 보도록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Simon외, 1968)는 여자 대학생들 중 25%와 남자 대학생들 중 35%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보다 실제의 장면에서 성적으로 더 적극적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은 자신이 가진 태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충동이 자제하기가 어려운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성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상황에 따라 성행동이 태도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

2) 청년기의 성에 대한 판단기준

성에 대한 역제가 심한 현대사회에서 대개 혼전(婚前)성교에 대해서 네 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1. 절대로 순결은 지켜야 한다 : 혼전의 성교는 어떤 이유이든 남녀 모두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애정이 있으면 허용해도 좋다 : 약혼이나 결혼할 대상이나 사랑하는 사이에는 남녀 관계없이 허용해도 좋다.
3. 애정이 없어도 좋다 : 육체적 매력만 있으면 남녀 구별없이 허용해도 된다.
4. 이중기준 : 혼전성교는 남자에게는 괜찮지만 여자는 안된다.

성에 대한 기준이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은 각각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 ‘이중기준’의 개념은 성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만연해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는 더욱 심하지만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조금씩 이중기준의 개념은 변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가부장(家父長)적인 부계(父系)사회인 산물이다. 미혼여성은 혼전성교가 허용되지 않고 기혼여성은 혼외관계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미혼남성의 혼전성교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애정이 없어도 좋다”는 기준은 이중기준과 같이 성행동과 애정을 분리하게 한다. 남녀의 성욕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관념은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널리 수용되지

는 않을 것이다. “애정이 있으면 괜찮다”는 기준은 위의 기준들과는 달리 성대상과의 성숙되고 안정된 정서적 애착관계를 중히 여긴다. 애정이 성교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임신, 성병문제 또 성행동에 따르는 죄의식 등을 행동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청소년들에서 “애정이 있으면 괜찮다”는 기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있다(Reiss, 1966).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는 기준은 “절대 혼전의 순결은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다.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전혀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만, 실제행동에서 이 신념이 지켜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행동 이외의 행동에서도 다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피임이 용이해져서 임신공포가 줄어들고 성병의 공포도 줄어들면서 이 기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3) 한국 성인의 성에 대한 태도

앞에서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논의했는데, 성인의 혼외성관계를 포함한 성문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서울과 부산에 사는 9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혼외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김광일, 이근덕, 정동철, 1983)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태도는 대개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인으로 묶여졌다.

요인 A. 현대적 자유주의 : 성을 되도록 즐기며 성에 대한 화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남녀평등을 믿으며, 이혼도 불사하는 급진적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남성들이다.

요인 B. 도덕적 보수주의 : 성을 즐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남녀의 불륜을 패륜으로 보았다. 남녀평등을 믿으면서도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년여성들이 이 집단에 속한

다.

요인 C. 반보수주의 : 남성의 방종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여성의 순결을 강요하며, 이혼은 용납치 않는 남존여비사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원하며 성을 즐기고 성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한다. 중등교육을 받은 중년여성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 D. 정통적 자유주의 : 성의 즐거움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남성의 혼외정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등교육을 받은 중년남성들이었다.

요인 E. 여권주의 : 성에 관한 전통적 규제와 속설을 부인하고 성의 즐거움과 자유를 구가한다. 남존여비사상에 강력히 저항하고 오히려 여존남비적인 사상에 가까울 정도로 남녀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상적이고 질서와 윤리를 강조한다. 이들은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등 아주 높은 교육수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요인 F. 합리적 자유주의 :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성에 대해 자유로우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현실적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적 태도를 보인다. 이 집단은 전부 대학출신의 남자들이다.

위의 어떤 요인에도 속하지 않는 응답자가 58.5%나 있었다. 이들은 두 가지나 세 가지 요인에 다 해당되는 응답자들이었다. 이것은 성에 대한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혼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위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사람의 성태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다. 둘째, 교육정도, 연령 및 성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다. 즉, 나이가 많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전통을 고집하고, 젊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현대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성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성에 대한 태도가 확립되지 않고 혼란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성에 대한 성인의 태도가 청소년들에 비해 보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성행동과 적응

1) 청년기의 성행동

남녀모두에게 있어서 성호르몬이 성욕을 발생시키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성호르몬의 증가가 성욕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즉 호르몬의 활동은 성욕을 직접 유발시키는데 영향을 주거나, 신체변화와 연합되어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남성들에게는 이차적인 성징의 발달과 관계없이 성호르몬의 수준이 성적인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여성에게 성호르몬 수준은 성적인 활동보다 이성에 관한 관심과 상관 있다. 이는 여성의 성행동은 생리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윤가현, 1992).

성행동은 동기와 구별해야 한다. 혼전의 성행동을 하는 동기도, 성욕과 애정의 동기 이외에 단순히 육체적 쾌락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애인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니면 부모로부터 독립했음을 증명하려고 또는 파트너를 통제하기 위해서, 반항의 수단으로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하나의 통과의례로서 등등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첫 경험 후에 남자들은 흥분과 만족을 느낀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죄의식과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과거보다 십대들의 성행동이 더 적극적이고 혼전 성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혼전에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혼전 성경험자의 비율이 남녀간에 차이가 컸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시내 남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광일 외, 1983)에서는 이성교제를 해본 일이 없는 학생이 61.57%이고 지속적으로 사귀고 있는 경우가 13.68%이며, 전에 사귀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없는 학생이 5.26%이며 짝사랑하는 학생이 1.0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전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이 60%를 넘는다고 한다면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아직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청년기 성행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11세~24세까지의 청소년 중 0.1%에 해당하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원식 외, 1985)에 의하면 키스, 포옹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16.8%에 이르고 성교를 경험한 사람은 11.2%이다. 성교경험자는 학생 집단에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경험자의 비율이 많아지고 비행청소년들 중 특히 성교경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재창 외, 1986)에서는 입맞춤과 포옹경험자는 7.2%, 성교경험자는 3.8%이다.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행동 경험자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고등학생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성관계 연령에 대한 연구는 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안순덕 외, 1984).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전의 첫 경험자는 미혼모 집단은 47.3%인데 비해 비교집단은 52.6%이다(〈표 1〉참조). 성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때 미혼모 집단보다 비교집단의 첫경험 연령이 오히려 낮다.

처음 성관계 대상자와 관계의 안정성을 조사해 본 것이 〈표 2〉이다.

〈표 1〉 처음 성관계 연령

처음성관계연령 구 분						명(%)
	14세 이하	15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이상	계
미 혼 모	7 (0.5)	659 (46.8)	673 (47.8)	56 (4.0)	12 (0.9)	1,406
비교집단	5 (2.2)	116 (50.4)	108 (47.0)	1 (0.4)	0 (0.)	230

미혼모 집단은 가볍게 만나던 사이에서 처음 관계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비교집단은 결혼상대로 생각하던 사람과 첫 관계를 가지는 비율이 높다. 미혼모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강간으로 첫 경험을 하게 된 비율도 있다.

〈표 2〉 처음 성관계 대상과의 사이

처음 성관계 대상 과의 사이 구 분	명(%)					
	처음만난 사 이	가볍게 만나 던 사이	결혼상대로 생각 하고 꾸준히 사귀던 사이	강	간	기 타 계
미 혼 모	141(10.0)	670(47.8)	400(28.5)	125(8.9)	67(4.8)	1,403
비교집단	36(15.7)	87(37.8)	89(38.7)	14(6.1)	4(1.7)	230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표 3〉 미혼모 집단은 순간적 충동의 동기가 높고 비교집단은 사랑의 동기의 비율이 높다. 결국 순간적 충동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고 미혼모가 되는 비율이 높다. 미국의 십대들도 첫 경험을 미리 계획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Brooks-Gunn & Furstenberg, 1989; 윤가현, 1992 인용). 보통 남자들은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 성행동을 결정하지만 여자들은 파트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 결혼가능성, 데이트 횟수 등과 같은 관계의 질을 중요시 한다(Christopher & Cate, 1985; 윤가현, 1992 인용).

성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활동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시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혼모와 비교집단이 강간으로 첫 경험을 하게 됐다는 비율이 각각 9.3%와 7.4%인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성행동의 기회가 박탈되었거나 좌절된 사람이 성적으로 공격적이 된다는 가설이 있다. 또 성적으로 공격적이어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 연구(Kanin, 1967)에 의하면 공격적인 사람들이 비공격적인 사

〈표 3〉

처음 성관계 동기

구분	명(%)					
	처음 성관계의 동기	결혼하자고 하기	사랑하는 사이여서	순간적 충동으로	강간	기타
미혼모		183(18.0)	478(34.0)	570(40.6)	131(9.3)	42(3.0)
비교집단		19(8.3)	109(47.4)	78(33.9)	17(7.4)	5(2.2)
						1,404 228

람들보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성행동에서 얻는 만족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격적인 사람들이 비공격적인 사람들보다 성행동은 더 많이 하지만 얻는 만족은 더 적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혼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학교에서의 성교육, 매스미디어, 선정적 잡지, 영화, 비디오, 친구나 데이트 상대의 압력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요인 중에서 데이트 경험이 혼전 성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트를 자주하고, 데이트 상대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데이트의 범위가 넓은 사람일수록 성행동이 빈번하다. 교육의 영향을 고려해 보아도 성장기의 교육보다 현재 그 개인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자녀를 가르친 부모도 현재 데이트 상대가 주는 압력만큼 강력한 영향을 자녀에게 주지 못한다.

선정적인 자극에 접하는 것이 성행동과 상관성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거의 청년기 성행동을 자극하지 않는 것 같다.

2) 자위행위

자위행위(Masturbation)는 많은 청소년들이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남자에게 13~15세가 되면 사정(射精)능력이 생기게 되어 오르가즘(orgasm)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위는 자연발생적 행동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킨제이(Kinsey) 보고에 따르면 20세까지의 남자의 92%와 여자의 30% 이상이 20세까지 자위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남자의 최초 자위행위 경험시기는 15~16세가 41.4%로 가장 많고, 13~14세가 24.1%로 그 다음이다(Ok-Ryun Moon, 1981).

자위행위를 한 후의 심리상태는 허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많고(남자의 경우) 여학생은 죄의식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표 4>참조, 조정숙, 1981).

<표 4>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

심 리 상 태	남학생 (N=430)	여학생 (N=138)	합 계 (N=568)
죄의식을 느낀다	18.1	38.4	23.1
허탈감에 빠진다	56.7	53.6	57.7
기분이 좋아진다	21.6	6.5	18.0
기분이 나쁘다	—	2.9	0.7
잘 모르겠다	12.3	23.2	15.0
무응답	5.8	4.3	5.5

성 상담전화에 상담한 4,272명 중에서 성충동문제 상담자가 1,755명인데, 이 중 자위행위에 대해서 상담한 사람이 53.8%였다. 남자는 56.7%이고, 여자는 31.7%로 남자가 자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고민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위행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우려는 없으며, 단지 죄의식, 혐오감, 자기비하가 생긴다고 했다.

자위행위는 신체에 해가 되지는 않으나 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

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죄의식을 갖게 되거나,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 되고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특히 남자들이 자위를 하지 않으려 하면서 계속할 때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친구와 어울리기, 취미활동, 운동, 공부 같은 것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위행위에 몰두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위행위가 문제의 원인인지 문제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미혼부모

요즘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는데 비해 결혼연령은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화기 이전에는 대개 조혼 경향이 있어서 12세에서 13세가 결혼적령기였으나, 1955년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 24.5세이고, 여자 20.4세인데 반해 1980년의 평균 결혼연령은 남자 27.3세, 여자 24.1세로 상당히 늦어졌다(경제기획원, 1982).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의 성행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보고서(1986)에 의하면 전세계 청소년들이 당면한 성문제는 성교경험 시기의 연소화, 성병 감염의 증가, 원치않는 임신의 증가, 임신중절 시술의 증가, 청소년 출산의 증가 및 청소년들의 피임법 사용기피라고 한다. 청년기 성행동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해당되는 당사자의 건강과 행복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더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혼전(婚前)의 성행위로 모두가 미혼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전의 성행위도 피임, 임신중절, 결혼이 가능하게 되면 미혼모는 발생될 수가 없다.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 때이다. 그러므로 미혼 부모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차원에서만 판단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만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교육과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혼부는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겪게 되는 감정과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강간이나 친자인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결혼을 강요당할 수도 있어서 직접 임신은 되지 않으나 미혼부들도 성관계의 결과 심한 곤란을 당할 수 있다.

미혼모는 본인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미혼모 발생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관련기관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1970년대부터 미혼모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60년에 36명이었으나 1973년에는 160명, 1978년 3,025명, 1980년에 3,146명, 1982년 5,75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안순덕 외, 1984).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미혼모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포괄적인 것이다. 이 연구는 전국 49개의 입양기관과 상담소에 상담의뢰한 1,406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미혼모는 10대 후반, 20대 전반의 연령층이 84.7%로 대부분이다(<표 5>참조).

<표 5> 미혼모의 연령

연령	인원수(%)
14세 이하	1(0.1)
15세~19세	349(24.8)
20세~24세	841(59.8)
25세~29세	188(13.4)
30세 이상	27(1.9)

교육정도는 반 이상(59%)이 중학교 졸업 이하이며, 대부분이 (78.4%) 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의 1/2 정도가 가족과 떨어져 살며, 1/3이 생계담당자(生計擔當者)였다. 임신 이후에는 대부분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떨어져 사

는 미혼모의 수가 임신 이전보다 늘어났다. 결혼가정(36.1%), 특히 편모가정(21.65%) 출신이 많고, 1/3정도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가출의 반 이상이 10대에 이루어졌고(58.9%), ‘돈을 벌기위해서’ 혹은 ‘가정불화’가 그 동기였다.

미혼모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행동은 개방적인 편이기는 하나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아서 미혼부가 처음 성관계 대상인 경우가 많고(79.4%) 피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들어 본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실제의 사용율은 극히 저조했다(<표 6>).

〈표 6〉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및 사용경험

지식정도 및 사용경험	사용해 본적이 있다	방법만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모른다	무응답
피임방법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먹는 피임약	268(19.1)	364(42.8)	602(42.8)	139(9.9)	33(2.3)
콘 돔	84(6.0)	316(22.5)	587(41.7)	362(25.7)	57(4.1)
루 프	14(1.0)	153(10.9)	677(48.2)	497(35.3)	65(4.6)
월경주기법	64(4.6)	277(19.7)	536(38.1)	481(34.2)	63(4.5)
질좌약	78(5.5)	259(18.4)	627(44.6)	433(30.8)	71(5.0)
생리조절법	21(1.5)	117(8.3)	361(25.7)	459(32.6)	74(5.3)

임신 사실을 알고 대부분이 임신중절을 계획하였으나 그 시기를 놓쳤거나 비용이 없었거나, 미혼부와와의 관계유지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들은 대체로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를 피하였으며, 가족들의 반응 또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으며,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동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출산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임신 사실

에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임신중절을 권유하거나 입양을 제의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혼모 스스로도 2/3 정도가 미혼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혼모들은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오는 등 임신 이후 신변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모 복지서비스기관을 많이 이용했다.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는 주로 입양, 분만보호, 숙식보호 서비스 순이었으며, 출산 후 자립을 원해도 자립대책이 없는 미혼모가 다수였으나 자립에 필요한 직업 훈련, 직장알선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미혼모의 대부분(92.7%)은 아기입양을 원했는데, 경제문제와 같은 현실적 이유보다는 아기의 장래, 주위의 시선 등 사회의 부정적 태도 때문이었다.

미혼모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문제로 대부분(80%)이 사회가 자신들을 냉대하거나 죄인으로 본다고 느끼고 있었다.

미혼모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고 결혼가족출신이 많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모의 성태도는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친구집단의 성태도는 본인보다 개방적이었다. 본인의 성태도는 비교집단에 비해 다소 개방적이고 허용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혼모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성교육이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하며, 가정이 더욱 건전해져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폐쇄적인 도덕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하며, 건전한 부모상을 보여주며, 애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친구의 영향은 줄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임신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미혼모 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행동을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혼부모가 된다.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험이 거의 충동적으로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신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라서 한두번의 성관계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중심적 청년기의 사고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임신이 되어도 자기는 임신되지 않는다(개인적 우화 personal fable)고 믿기 때문이다. 성을 억제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성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보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4) 성병

15~24세의 청소년 성병 실태는 의료보험 통계연보(1980, 1981, 1982, 1983)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체 성병환자 중 약 18%이며, 1980년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1985년 개설한 ‘청소년을 위한 성상담 전화’ 이용자의 상담내용을 1985년 6월 1일~198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내용분석한 것을 보면 성적충동(41.1%), 신체변화와 건강(23.1%), 원치않는 임신(9.2%) 등의 순서인데 그 중 신체변화와 건강문제의 범주에는 성병에 관한 것이 32.3%를 차지했다(김한경 외, 1986).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성병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실제로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의 성병문제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성병은 주로 성교에 의해 감염되는 병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성병인 매독과 임질 및 AIDS의 전염위험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한다. 매독과 임질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매독환자 중 95%는 성교를 통해 감염되고, 5% 정도만 키스로 인하여 혀, 입, 입술에 전염되거나 매독환자인 유모로부터 수유시 감염되기도 하며 수혈, 매독환자를 취급하는 의사, 조산부, 간호원에 의해 감염

되는 수도 있고 매독환자인 부모에 의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감염되어 있는 수가 있다. 임질도 거의 성교 때에 전염된다.

한때 페니실린(penicillin)이 임질과 매독에 대한特效약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임질균은 페니실린에 상당히 내성이 있으며, 다른 항생제(antibiotics)들이特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성병으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가 있다. 이 병은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발생한다. 여러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AIDS는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발생하고, 감염자와의 성관계 때, 감염된 약물 사용자들이 주사바늘을 같이 쓸 때, 감염자의 피를 수혈 받을 때 전염된다. 임부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게도 전염된다. 아직도 AIDS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1981년 처음 이 병이 발견된 이래 놀라운 속도를 전파되고 있다. 동성애나 양성애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병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약물사용자들과 이성애를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단 감염되어도 몇 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계속 동성이나 이성과의 성행동을 하게 되므로 병은 무서운 속도와 범위로 확산된다.

일단 AIDS에 감염되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법정 전염병으로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고, 주위사람들이 만나고 접촉하기를 두려워한다. AIDS의 비극이 현재의 성습관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DS에 감염되는 처음에는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쯤 걸린다.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다른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다. 증상은 설사, 체중감소, 피로 등이다. 이 병은 면역체계가 파괴되므로 개인에 따라 증상은 차이가 있다. AIDS로 일단 진단되면 대개 2-4년 생존이 가능하다.

청소년들도 누구나 AIDS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방책으로는 우선 혈액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체액이 교환되지 않도록 하고, 성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고, 성대상을 선택하는데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5) 동성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보고된 바 없으나 미국의 십대들 중 남자는 11% 여자는 6%가 동성애 경험을 보고했다(Hyde, 1990). 동성과의 성 경험이 있다고, 반드시 동성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동성애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이성보다는 동성에 대해서만 성적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정체의 확립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특히 자신이 동성애가 아닐까 고민하는 십대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의 일원이 될 때 특히 어렵다. 부정과 공포가 성적 정체의 형성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동성에 남자들은 청년기에 자기의 성적 정체를 자각하지 않는 것 같다.

3. 성교육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 펴낸 교사용 성교육 자료(1983)에서는 성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교육의 올바른 개념은 남녀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인간사회에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남녀가 각 성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와 존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남녀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의식, 건전한 성태도, 분별있는 성습관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어울리는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

성교육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 일반의 성적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남녀가 각자 자기자신을 성적욕구가 있고,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서는 이성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성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1) 성교육의 필요성

성교육이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성을 받아들이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교육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의 좁은 범위로 성교육을 다루기로 한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지만 처음 성관계를 가진 연령이 19세 이하가 47.4%이고(표 7), 미혼모 연령이 19세 이하가 24.9%에 이르며(표 5), 미혼모 상담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모 중에서 피임법을 몰랐다는 사람이 34.1%(표 8)나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성교육의 필요성은 더 논의의 여지가 없다.

〈표 7〉 처음 성관계 연령

연령	사 례 수(%)
14세 이하	7(0.5)
15세~19세	659(46.9)
20세~24세	673(47.9)
25세~29세	56(3.9)
30세 이상	3(0.2)
무 응 답	8(0.6)
계	1,406(100.0)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이든 성행동을 하고 있고 성행동은 전생애에 걸쳐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것이 성교육 찬성자의 전제이다. 또 가능하다면 성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표 8〉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이	유	인원수(%)
아기를 갖기 위해서		171(13.4)
피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436(34.1)
피임도구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11(32.1)
피임도구가 없어서		149(11.6)
성관계를 미쳐 예상하지 못해서		24(1.9)
피임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2(0.2)
피임을 했으나 실패해서		15(1.2)
피임을 미쳐 생각하지 못해서		44(3.4)
기 타		11(0.8)
무응답		17(1.3)
계		1,280(100.0)

성교육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성세대들은 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잘 적응해 왔고, 따로 교육 받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며 오히려 교육 받는 것이 성에 대한 생각을 더 자극해서 성을 실험해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교제하는 상대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성교육은 전혀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잘 선택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 성교육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성관계를 가지려 할 때 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관계로 야기될 모든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성관계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고 성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적 도발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성교육 덕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고, 임신 때문에 서둘러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할 필요도 없으며, 임신중절의 가능성과 성병의 감염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성교육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자극물이 편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성적 자극물들이 도발하는 감정을 처리할 능력을 청소년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및 자제력의 훈련이 될 것이다.

2)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성교육은 물론 가정에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3~4세가 되면서 남녀간의 신체구조상의 차이나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고 싶어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부모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 갖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역할모델이 되어 자기의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족관계, 인체생리학, 해부학, 피임, 성병 및 성윤리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중고등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및 희망사항을 보면 90% 이상이 성교육을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이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혼모 대상연구에서 성 및 피임지식의 습득경로를 보면 학교는 25.2%이고, 친구가 56.3%, 직장 14%, 대중매체로 TV·신문·라디오가 각각 27.2%, 13.2%, 11%이며, 월간지 60.4%, 주간지 58%, 성교육 책자 17.8%, 비디오 4.3%, 외설잡지 8.1%이다.

대중매체로부터 가장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친구이다. 대중매체와 친구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게 될 때 정확한 성지식과 이해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면 가정과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성교육에서 부모가 주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어머니로부터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비율이 제법 되었으나 남자가 아버지에게

게서 성정보를 얻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과 성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어려우므로 아버지가 아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모들의 본보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성행동이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보면 대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적고(Kallen, 1980),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대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서 혼전 성경험자의 비율이 높다.

중고등학생들은 성교육 내용으로 피임법, 성병, 임신중절, 가족계획, 배우자 선택, 기초 성지식, 남녀의 성차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으며(경북교육위원회, 1982),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1985. 6~1986. 5까지의 성상담전화에 실제로 상담한 내용은 성충동(41.1%), 신체변화 및 건강(23.1%), 원치 않는 임신(9.2%), 부부관계(6.1%), 이성교제(5.2%), 비정상적 성관계(4.5%), 자녀의 성문제(3.7%), 피임방법(1.8%)의 순서이다.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여기에 거의 언급되었다.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보다 실제로 성상담에 응한 내용이 물론 더 구체적이어서 이 자료를 성교육담당자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충동의 범주에는 자위행위, 성욕, 성관계, 불륜관계, 몽정, 강간 등이 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고, 신체변화 및 건강의 범주에는 성병, 성기, 포경수술, 월경, 신체변화, 신체이상, 처녀막 문제의 순서이며, 원치 않는 임신의 범주에는 임신 여부, 임신중절, 미혼모의 순서이고, 비정상적 성관계에는 성도착증, 성적 학대, 성적 피해망상, 이성혐오의 순서였다.

미혼모들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방법을 아는 피임방법은 피임약(25.9%)과 콘돔(22.5%) 정도였다. 피임에 대해 알지 못해서 피임을 하지 못했다는 미혼모가 34.1%나 되었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이 미국의 청소년들과 혼전성경험자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임신과 미혼모의 비율이 높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논거는 위에 든 유럽의 나라들은 십대의 임신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데 비해 미국은 십대의 성행동을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십대 임신을 문제로 보는 나라에서는 십대에게 성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심대 임신과 중절의 비율이 낮다. 이것으로 성교육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연구에서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 순간적인 중동 35.9%, 강간이 9.3%를 차지하고 있고, 성상담전화에서 성중동이 41.1%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욕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자제력을 길러서 성적 피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소집단 토론의 형식이 권장할 만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보다 친구와 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므로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친구상담이나 선배상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만이 아니라, 산업체(대한가족계획협회, 1992)와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윤가현, 1992).

본문 요약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이 차이가 있다. 대체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태도보다 행동이 더 진보적인 경우가 많다. 일단 성행동을 경험하면 태도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이 심할 것이다.

성중동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청년기에 자위행위는 상당히 보편적인 성욕구 해결 방법이다. 자위행위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미혼 부모와 AIDS의 문제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교육을 가정과 학교, 산업체, 대중매체가 모두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하여 성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청소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연구 과제

1.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현상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2. 성에 대한 이중기준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3. 자위행위의 심리적 영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4. 청소년의 성행동의 한계에 대하여 토론한다.
5. 미혼부모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6.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7. AIDS의 전염 경로에 대하여 알아보고 AIDS가 성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8.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외(1983), “성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제1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대한가족계획협회(1992), 산업장 가족계획 및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세미나.
- 박준희 외(1983),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서울교육출판사.
- 청소년 대책위원회(1986), 청소년백서.
- 경제기획원(1982), 한국의 사회지표.
- 서울시 교육연구원(1983), 교사용 성교육.
- 김광일, 이근덕, 정동철(1983), “성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제1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교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1)”, 정신건강연구, 제1집, Vol. 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한경, 박인서, 박찬무(1985), 서울시 청소년 출산에 관한 의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오옥자(1976),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1992), 청소년의 성과 성교육, 인간발달교수 연구회 심포지움 원고.
- 이재창 외(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 의료보험관리공단(1980, 1981, 1982, 1983), 통계연보.
- 정성채(1981),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홍문식 외(1984), 미혼 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Brooks-Gunn J., Furstenberg F.F.(1989), Adolescent sexu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249-257.
- Christopher F.C. & Cate(1985), Anticipated influences on sexual decision-making for first intercourse, *Family Relations*, 34, 265-270.
- Conger, J. J. & Peterson, A.C.(1984), *Adolescence and Youth*, New York : Harper & Row.
- DeLamater J. & MacCorquodale, P.(1979), *Premarital sexuality : Attitudes, relationships, behavior*, Madison, WI : Univ. of Wisconsin Press.
- Dunlop, G.M.(1951), *Certain aspects of children's fea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Freud A.(1985), Adolescence In R.S. Eisslar et al. (Ed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13,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aziano, A.M.(1975), *Behavior therapy with children*, Vol. 2, Chicago : Aldine.
- Gregg, G. (1976), High School-a tough place for girls, *Psychology Today*, 10, 36~37.
- Hartocollis, P.(1977), Affects in borderline disorders, In P. Hartocollis (ed.)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 The concept, the syndrome, the patient*,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yde, J.S.(1990), *Understanding human sexuality* (4th ed.), San Francisco : Mcgrow-Hill.
- Kanin, E.J. (1967), An examination of sexual aggressions a response to sexual frust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428~433.
- Kestenberg, J.(1968), Phases of adolescence, with suggestions for a correlation of psychic and hormonal organizations, Part III : Puberty growth, differentiation, and consolid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7, 108-151.
- Kinsey, A.C., Pomeroy, W.B. & Martin, C.E.(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 Saunders.
- Kinsey, A.C., Pomeroy, W.B. Martin, C.E., & Gebhard, P.H.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 Saunders.
- Kuhlen, R. G. & Haulihan, N.B.(1965), Adolescent heterosexual interest in 1942 and 1963. *Child Development*, 36, 1049~1052.
- Lerner, R.M., & Spanier, G.B.(1980), *Adolescent development*, McGrow-Hill.
- Mckinney, J.P., Fitzgerald, H.E. & Strommen, E.A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Dorsey Press.
- Offer, D. (1972), Attitudes toward sexuality in a group of 1,500 middle-class teenag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 81~90.
- Ok-Ryun Moon (1981). An Analysis on adolescent fertility Management in the ROK, 보건학 논집, 제31호, pp. 59~66.
- Papini, D.R., Farmer F.L. Clark, S.M. & Snell, W.E. (1988), An evaluation of adolescent patterns of sexual self-disclosure to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387-401.
- Peterson, A.C. (1976), Physical androgyny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12, 524~533.
- Reiss I.L. (1966), *Premarital sexual standards in America*, New York : Free Press.
- Simon, W., Berger, A.S. & Gagnon, J.M.(1972), Beyond Anxiety and Fantasy : The coital experience of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 208-217.
- WHO (1986),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ce Position Paper*,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Geneva : Switzerland.
- Youn (1987), On using public media for prevention of rape, *Psychological Reports*, 61, 237-238.

6.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

개 관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서 어린이는 이 기간을 거쳐 어른, 즉 한 여성이나 남성이 된다. 청소년기에 성역할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성역할이 ‘사회화’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회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주요 심리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떠한 성역할이 요구될 것인가를 예상하여 청소년들의 성역할 사회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

성역할, 성역할 사회화,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규범, 성차이, 성역할 발달이론, 동일시, 양성성, 성역할 초월.

* 정진정, 충북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성별(gender)은 한 사람의 자아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태어나서부터 어린이는 자신의 성별에 알맞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된다.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문화는 남녀에게 각각 다른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정진경, 1990).

그러나 개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모두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서, 성격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같은 남자라도 남성적인 면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성적인 면은 별로 없고 여성적인 면만 많은 사람도 있고, 이 두가지 면을 골고루 다 지닌 사람도 있다. 이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개인마다 성역할 사회화가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서 어린이는 이 기간을 거쳐 어른, 즉 한 여성이나 남성이 된다. 어린 시절에도 성별은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서 어린이는 남녀의 구분을 배우고 자신의 성별에 알맞는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되지만, 이들은 아직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이 크지 않으므로 남녀간에 생활내용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많은 경우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로 생활의 내용이 현격하게 달라진다. 그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성역할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자아를 확립해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따르도록 얼마나 큰 압력을 받으며, 그러한 성역할을 내재화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아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성역할 가치관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느 방향을 취할 것인가? 이 시기의 성역할 사회화는 직업선택이나 친구관계, 연애와 결혼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생의 주요 측면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성역할이 '사회화'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회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사회화는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 안의 수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사나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성역할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들은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주요 심리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떠한 성역할이 요구될 것인가를 예상하여 청소년들의 성역할 사회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성역할 발달이론

1) 성차이와 성역할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성역할은 학습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남녀가 지니는 일련의 특성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성역할 고정관념(sex-role stereotypes)이라고 부른다. 고정관념이란 본질적으로 한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실제로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대체로 고정관념은 남녀간의 실제적인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어느 정도 허구인가? 성차이에 초점을 맞춘 초기의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남녀의 역할분리가 엄격하고 여성적인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던 시대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기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여 남녀의 역할분리는 사회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되어온 것이며, 또 그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자들은 성차이의 필연성과 남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4년에 매코비와 잭클린(Maccoby와 Jacklin)은 양성성의 개념이 대두되기 이전까지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성차이에 대한 1600여편의 심리학

논문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성차이의 현황을 밝혀내었다. 그들은 그 현황을 (1) 성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측면, (2) 흔히 성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그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측면 등으로 요약하였는데, 놀랍게도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성차이가 분명히 입증된 분야는 수 많은 심리학의 연구분야 중 불과 4개 분야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우수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시각-공간적 능력과 수리능력이 우수하며 더 공격적이라는 점들에서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성취 지향적인데 비해 여성은 보다 더 감상적이고 소극적이며 의존적이고 남을 잘 도와준다는 등의 사회적 통념은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것이 된다.

이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평있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어 오고 있는데, 근래에는 이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 제시되면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남녀간에 현상적으로 성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무조건 생물학적, 유전적, 본능적인 차이에 돌리는 식의 해석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즉 남녀간에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적으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성차이는 대부분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2) 전통적 성역할 발달이론

출생 이후 성차이가 발달하고 성역할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발달>의 주제 아래에서 연구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 발달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발달이론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1) 정신분석학적 이론

프로이드는 ‘정상적’ 발달이란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양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신분석학 이

론을 사용했다. 그는 특히 아동기를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처음 몇 년은 남녀가 비슷한 방식으로 발달하다가, 남녀간의 해부학적 차이를 인식하면서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보았다.

여자아이들은 자기에게 남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질투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수동적이 되며,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려서, 비록 동일시는 계속 어머니에게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꾸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인식하면서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세불안을 비롯한 공포를 느끼고 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남성화되고 자신감을 키워간다고 하였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동기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환자들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론의 주요 가정들이 경험적 자료에서 증명되지 않고(예: 남근선망이나 거세불안 등), 문화적인 맥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즉,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남녀 성역할을 절대적인 것으로 본 점) 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2) 사회학습이론

미셸(Mischel, 1976)은 행동에서의 성차는 어린이가 자기 주변에서 남녀가 각기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배웠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미셸은 행동을 배우는 과정에는 획득과 실행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획득’은 남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학습단계인데, 이때 모델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TV 등에 나오는 상징적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해 얻은 행동의 ‘실행’은 그 사람이 동기화되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즉, 그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해 본 후 바람직한 결과라고 여길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은 획득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의 실행하지 않는다.

미셸은 사실상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비슷한 행동들을 획득하지만, 자신의 성에 적합치 않은 행동을 하면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 실행이 제한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모델로 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행동을 다 획득하지만, 자기의 성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 유능함, 사회적 승인 등의 강화를 받고, 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신체적 처벌, 어리석다는 느낌, 사회적 거부나 비난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 한쪽의 행동만을 실행하게 되고 그것이 성역할로 굳어지는 것이다.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과정에는 칭찬과 벌만이 단순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관찰하고 남녀에 대한 ‘규칙’을 배우면서 자기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

미셀은 양성성 개념(이 장의 뒷부분에 소개되어 있음)을 분명히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시사점이 있다. 두 부모가 모두 아동에게 중요한 모델이라는 사회학습이론의 생각은 인생 초기에 양성적인 것, 즉 남성적 행동과 여성적 행동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동을 전부 ‘실행’하지 않는 것은 동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대개 감추어진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양성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이미 획득해서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 변화한다면, 현 세대와는 달리 미래 세대는 현재 한쪽 성에만 적합하다고 규정된 행동에 대해 다른 결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는 남녀 모두 그들이 획득한 넓은 범위의 행동을 자유로이 실행하게 될 것이다.

(3) 인지발달이론

콜버그(Kohlberg)는 성역할 발달이 인지발달의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는 생각이 성숙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역할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데, 2, 3세 경에는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5, 6세 경에는 성이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에 관한 자아개념이 확고히 형성된다. 그로부터 아이들은 이 자아개념을 이용하여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성유형화된 선호성과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타인을 통해 성에 적합한 행동을 배우기

는 하지만, 그 이유는 보상때문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성역할 자아개념은 아이들이 자신의 성에 적합한 활동이나 물건에 가치를 두도록 이끈다. 즉 여아는 자신의 여자로서의 자아상을 유지해주는 여자다운 물건과 활동에 가치를 두게 되고 남아는 남자로서의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남자다운 물건과 활동에 가치를 둔다. 아이들은 여자다운 또는 남자다운 성질을 공유하는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게 된다.

불행히도 콜버그는 아동이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동일시를 발전시킨 단계에서 그의 분석을 마치고 있다. 그러나 인지발달과 도덕성발달은 청년기와 청년기 이후까지도 지속된다(Kohlberg, 1973). 이러한 점은 양성성 발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시사를 해준다. 사람의 사고가 나이에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유연해진다면, 성역할에 대한 사고 역시 덜 고정관념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콜버그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나이 든 아이들이나 어른들보다 더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한다고 지적했다.

(4) 전통적 성역할 발달이론의 평가

위의 세 이론은 각각 성역할 분화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르게 보았지만, 세 이론 모두가 〈동일시(Identification)〉를 성역할 발달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동일시는 타인이 지닌 어떤 특징을 본받아 그 특징을 내재화하는 과정으로서, 이 이론들은 어린이가 부모-딸은 주로 어머니, 아들은 주로 아버지-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성역할을 습득해 나간다고 보았다.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카플란과 세드니(1989)는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 이론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녀-부모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로부터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이론들이 성역할 문제를 기능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시야에서만 봄으로써 전형적인, 곧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방향의 발달만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예

컨대, Mussen(1969)은 성역할 이론을 논의하고 결론지으면서, 부모의 주요과제는 아이에게 ‘아이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가르치고, 부모 스스로도 태도나 성격특성의 측면에서 ‘적합한’ 모델이 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적합한 행동에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행동에는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바람직한 성역할 발달을 성전행화된 행동의 습득과 동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여자아이들은 여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습득하고, 모든 남자 아이들은 남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습득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여자 아이들일지라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였지만, 이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전통적 연구들은 본격적인 연구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Cook, 1985).

위의 문제점들 이외에도 전통적인 발달이론들은 아동기에서 성역할 발달이 완료되어 그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정진경, 1987). 어린이는 대체로 6세 정도에 주위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성역할을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성역할 동일시(sex-role identification)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론들은 이 단계까지만을 연구하였다. 일단 자신에게 적합한 성역할을 습득하면 그것이 별 변화가 없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제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만이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성역할 발달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성역할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이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이론체계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3) 새로운 성역할 발달이론

(1) 양성성 개념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이 다양한 직업분야에 진출하고 가족의 구조와 크기

가 변화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변화가 일어나자 심리학자들은 이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녀가 뚜렷이 다르고, 또 다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존의 이분법적 이론들로는 이 변화를 적절히 설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동성간에도 여러모로 차이가 있고 남녀간에도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 모두 비정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문제의 인식은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1970년대 초반에 성차이와 개인차를 포괄할 수 있는 양성성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심리학의 성역할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양성성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em, 1972). 이는 기존의 성역할에 매이지 않는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격형태로서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모두 함으로써 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카플란과 세드니, 1989).

전통적인 이론들이 남녀가 심리적으로 다르며,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전제 아래 성립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양성적 시각에서의 성역할 발달이론들은 남녀가 심리적으로 유사하며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은 남녀 모두의 자연스러운 개성과 잠재력의 개발에 제한을 준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2) 양성성 발달이론

블록(Block, 1973)은 개인이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 때마다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역할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성역할 발달의 목표는 성전환화된 정체감을 습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성성과 남성성, 즉 공감적인 특성과 기능적인 특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살아나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된다.

블록은 이러한 발달이 몇 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어린 아이는 우선 자신이 여자 또는 남자라는 것을 인식한 후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습득해 나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회가 규정하는 남녀의 역할을 대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하여 고정적이었던 성역할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변화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단계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성역할 발달의 최고 단계에서는 성격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되어 양성성을 이룩한다. 블록은 양성성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성역할 발달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성역할 초월이론

성역할 초월이론을 편 헤프너 등(Hefner, Rebecca and Oleshansky, 1975)에 따르면 아직 남녀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는 성역할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경험이 늘고 사고가 발달하면서 어린이는 성역할에 대해서 양극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성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반대는 배격한다. 여자아이는 여성적이 되고 남자아이는 남성적이 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이 단계에서 성역할 발달이 그치는 사람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세번째 단계는 성역할 초월(sex-role transcendence)로서 양극적인 사고를 초월하여 더욱 개성적이고 적응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4) 성별 도식이론

양성성 이론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 벰(Bem, 1981)은 후학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새로운 이론을 내어놓아 다시 한번 찬탄을 받았다. 그의 새로운 이론은 성별 도식이론으로서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성역할 특성을 그의 정보처리과정과 연결지어서 고찰하였다.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서 양성적인 사람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별구분을 별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적합한 행동인가에 대해

서 아예 의식하지조차 않는다.

벤은 성별 도식이론의 정치적 메시지는 개인이 양성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성별도식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이 더 이상 성별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명하고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사회, 세상만사가 성별이라는 거대도식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5) 청소년기의 성별 강화이론

최근에 제기된 한 이론에서는(Hill & Lynch, 1983) 성별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 청소년기에 강화되며,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성별 강화이론은 청소년기에 성차가 뚜렷해지는 이유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정관념적 방식으로 여자답게 혹은 남자답게 행동하도록 사회화시키는 압력이 이 시기에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는 남녀간에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던 특성들이 남녀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자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높고 남자아이들은 공간능력이 높은 등 성취행동에서도 고정관념적인 방향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여자아이들이 친구관계에 더 몰두하고 자아개념이 낮아지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도 일어난다.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성차의 원인을 추정할 때 생물학적인 설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연구자들은 그 원인이 대부분 사춘기에 강화되는 성역할 사회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기부터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개념의 주요 부분을 이루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신체적 변화가 가속되어 키가 급격히 크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며 성적인 발달이 시작되고 성적충동을 느끼면서 자신을 더욱 여자나 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이춘재, 1988). 자신의 몸에 대한 자의식이 높아지고 남성,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매력정도를 걱정하기도 하며, 이

성교제를 시작하면서 성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남자답지 않은 남자아이나 여자답지 않은 여자아이들은 동성친구간이나 이성친구간에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 공부를 잘 하고 훌륭한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등의 일은 대체로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그때까지 남녀간에 별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추구하던 일들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게 되기 쉽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기에는 남성적인 남자아이들과 여성적인 여자아이들이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것인가, 혹은 양성성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의 의견대로 양성적인 아이들이 더 적응을 잘 할 것인가?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에 대한 답이 남녀에 따라 달라진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양성적인 아이들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아이들보다 더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남성적인 아이들이 (양성적이지 않고) 가장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친구들간의 인기도도 양성적인 여자아이들과 남성적인 남자아이들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아이들은 사춘기에 때때로 남성적인 행동을 해도 용납되지만, 남자아이들은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얼핏 생각하면 사춘기에 여자아이들이 성역할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더 받는다는 앞의 논의와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에 일정한 여성적 특성을 꼭 지니도록 큰 압력을 받으나(예: 깨끗하고 예쁘게 꾸미기 등), 이는 남성적 특성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압력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역할 사회화가 상당히 강력해서 여성적 특성을 조금이라도 보이면(예: 인형놀이를 좋아하는 등) 매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춘기에 들어와서 압력이 더 커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자들은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 변화하면서 청소년기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960

년대의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남녀가 당면하는 자아의 위기는 내용이 뚜렷이 다르다고 보았으나(예: 여자아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친밀성을 발달시키고 남자아이는 자율성과 독립심을 발달시키는 등), 1980년대의 연구들은 남녀 청소년들이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에는 차이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 또는 사회화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2,30년전에는 청소년기의 여자아이가 바라볼 수 있었던 자신의 미래에는 인간관계(예: 결혼 등)만이 중요했던데 비하여, 요즘에는 다양한 직업세계로의 진출을 비롯하여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심의 함양이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Steinberg, 1985).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청소년기의 자아발달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는 연구결과(Marcia, 1980) 이번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선택 대안들은 남성에 비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성역할이 계속 발달해나간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양성적 시각의 공헌이다.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성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에 대하여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성역할의 변화

불과 두세대 전 조선조까지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사회였으며,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성역할 규범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 문화의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6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서구식 산업사회의 여러 특징을 띄게 되고 가족제도와 성역할 규범에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 성역할 규범은 바로 이 산업사회의 규범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후기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전조를 이

미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춘 여성운동의 발전으로 새로운 성역할 규범이 제기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세 시대의 성역할 규범이 혼재하며 개인의 심리,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 역할분담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현재 우리 사회의 성역할 규범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살펴본 후,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떤 성역할 특성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보겠다.

1) 성역할의 역사적 변화

농경사회에서는 집약농경체계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므로 체력이 우세한 남성들이 생산에 적극 참여하였고 남성간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성에 따른 분업을 공·사의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부계 혈통중심의 조직화와 남녀유별의 관습을 통해 가부장제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생산력은 이데올로기상 그 힘을 상실하게 되어 여성은 그들의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다.

조선조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화되어 여성은 남편 가문의 혈통을 잇고 시집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씨받이와 보조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는 열녀판과 재가 금지, 그리고 출가외인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되었다(조혜정, 1988). 조선조 지배이념의 핵심인 유교와 특히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주역은 그 근본을 음양의 원리에 두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은 각각 음과 양의 원리를 드러내는 상징이며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주역의 남녀관에 따르면, 남성은 우주창조의 근원이며 천상적인 것, 움직인, 강한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성은 창조된 것을 유지하는 지상적인 것이며 고요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남녀의 구별은 남녀가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갖는 사회조직에 따라 위계서열적인

남존여비의 이념으로 굳혀졌다. 그 결과, 이 시대의 바람직한 남성상은 공격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예, 과거급제) 대의와 명분을 중히 여기는 선비로서 상징되었고, 바람직한 여성상은 삼종지도에 따라 남자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온화한 낯빛을 띄우고 순한 말을 쓰며 절대 원망하거나 노하지 않고, 겸손하고 잠깐도 자존하지 아니하는(내훈, 부부장) 여성으로 여겼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농경사회의 가족중심의 생산방식은 자본주의 생산 영역으로 편입되어 가정은 생산을 비롯한 많은 기능을 상실하고 소비와 휴식처로서의 기능만이 강화되었다.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성역할 분담은 남존여비의 규범이 아닌 심리적 성차의 강조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정은 사회적 비중이 극히 축소되고 거대규모로 확장된 '일터'에 의해서 압도되므로, 가정만이 여성이 충성을 바칠 곳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남성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

부부간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과 결혼으로 완결되는 낭만적 사랑에의 기대는 이성간의 매력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고, 남녀의 태도, 성격 및 외모상의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현대적 성역할 분업에 맞추어 경쟁적인 일터에서 일을 해야하는 남성은 그러한 일에 맞도록 “지배적이며 강하고 박력 있고 이지적”이어야 하고, 보조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은 역시 그러한 역할에 맞도록 “유순하고 연약하며 민감하고 감성적”인 특성을 지녀야 하게 되었다(조혜정, 1988). 매력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성에 규정된대로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며, 이에 따라 남성의 ‘남성다움’, 여성의 ‘여성다움’의 정도가 개인의 정체성 확립의 본질적인 내용처럼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성역할 규범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극도로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성역할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상황에도 적응하기가 어렵다. 남녀는 생활 안에서 항상 성역할에 적합한 상황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심리적 갈등과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면서 여성들은 이러한 가치관과 종속적인 자신의 지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공업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들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정보화사회 또는 서비스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후기 산업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낙관적 전망을 채택해 보겠다. 시민세력이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면서 개인을 억압하고 도구화시켜온 산업사회의 일터의 원리는 도전을 받고, 스스로 개인적 삶을 변화시키며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사회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예: 여성운동)은 비대해진 공적 영역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해 간다.

창의력과 전문기술은 더욱 중요해지고 철저하게 개인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삼는다. 개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에 대한 의식은 더욱 고양되고 이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수평적,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비혈연 공동체가 생긴다.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공·사의 개념이 재구성되어 일터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남녀는 다양한 역할을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제한적인 성 역할 규범이 역기능적이 되어 저절로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남성과 여성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습득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현재 우리사회의 성역할 규범

서구 사회들은 수백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치루어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에로의 전이를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년 사이에 한꺼번에 치루어내고 있다. 그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가족제도와 성역할 규범은 구세대와 세세대의 것이 동시에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며 사람들의 삶

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갈등은 세대간에도 존재하고, 남녀간에도 존재하며, 나아가 한 개인의 의식 안에도 존재한다.

사회규범이 급격히 변화할 때는 세대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성역할 규범의 경우에는 성격, 직업선택, 가정내 역할, 복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측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딸의 파격적인 복장이 마음에 안들거나 아들의 여자같은 성격이 마음에 안드는 부모,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여자대학의 영문과나 가정학과에 가고 싶지 않은 딸과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하면서 부모의 눈치를 보는 아들, 그저 무뎌지고 살림 잘할 며느리를 원하는 부모와 똑똑하고 멋진 현대여성을 원하는 아들, 그리고 직업을 갖고 사회적 성취를 하고 싶은 며느리, 편하고 자유로운 바지차림을 좋아하는 여중생들과 여자다움을 키워주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치마입는 날을 정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세대간의 성역할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안고 있다. 전시대의 규범을 익힌 윗세대와 새로운 규범을 파트는 아래세대간에는 대개 이해와 양보로 넘기 어려운 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남녀간에 또 하나의 갈등이 존재한다.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 안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새로운 규범을 한 걸음 먼저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남녀간에 갈등을 빚게 된다. 남성도 엄격한 성역할 규범 안에서 제약과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나(윤진 외, 1989) 대부분 그것이 성역할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결혼 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원하는 아내와 집에 들어 앉아 아이를 키우며 살림해 주기를 원하는 남편,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도 남성만을 채용하는 고용주와 이를 사법부에 고발하는 여대생협 의회의 학생들, 같이 입사했어도 여자사원이 차심부름해 주기를 기대하는 남자 사원과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자사원 사이에는 역시 전세대와 후세대의 갈등과 비슷한 내용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 벽도 오랜 사회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한 개인 안에도 여러 가지의 성역할 규범과 가치관이 혼재하여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시절부터 성역할 사회화를 시키는 수많은 대행자들, 즉 부모, 형제, 학교, 친구, 매스 미디어 등은 바람직한 성역할 규범에 대하여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를 다 일관성 있게 취사선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자아이의 경우 여성다움을 과장하기 위하여 별레 한마리만 날아도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유관순을 존경하고 장래희망은 컴퓨터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좀 크면 소녀때부터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식수준에서는 외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도 한다. 남자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에서 자신이 없고 상대방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허풍을 떨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로서 혼재하는 가치관들 속에서 어디에 동일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시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는(배우자의 선택, 직업선택 등) 그 다음, 또 다음 시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때 수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이 전공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졸업 후에 의상 디자이너로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불문과를 선택해서 진학한 여학생이 역시 대학시절 내내 고민하다가 졸업 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바꾸는 용기와 기회를 갖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청소년기에 내리는 결정이 성역할 규범에 따른 고정관념적인 것이기보다는 자기의 개성에 따른 것이 되어야 한다.

3) 성역할의 새로운 지향점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매우 다른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걸맞도록 남녀를 매우 다르게 사회화시켰다. 이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개인의 잠재적 능력 중에서 의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키워주고 다른 한 부분은 억압하여 사멸시켜버리는 것이다. 최

근의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연구들이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심리적 특성이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남녀 모두에게 억압이며 인류 사회의 손실이다.

미래의 사회는 이미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양식과 사회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녀의 역할과 특성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심각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하나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교육, 문화, 산업 정책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다원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은 궁극적으로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잠재력을 마음껏 추구하며 창의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로운 개성’이라고 본다. 이를 현재의 논리로 보면 양성성이 될 수도 있고 성역할 초월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남녀에게 성역할 규범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모두 억지로 중성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화의 결과로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범은 점차 소멸하지만 남녀간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특성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이 때의 차이는 규범적으로 억지로 부과된 차이와는 달리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세대는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사회화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현재로서는 “자유로운 개성”이다.

4. 맺음말

청소년지도자는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의식을 깨우치고 그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

다. 최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여러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단체들이 하나씩 뿔뿔히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다른 문화를 가진 캠프에 며칠만 참여해도 많은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도 있다(또 하나의 문화, 1989).

청소년기에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을 옆에서 돕는 길은 고정관념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에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일지를 미리 생각해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본문 요약

성별(gender)은 한 사람의 자아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태어나서부터 어린이는 자신의 성별에 알맞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사회화된다. 그러나 개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모두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서, 성격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서 어린이는 이 기간을 거쳐 어른, 즉 한 여성이나 남성이 된다. 이 시기의 성역할 사회화는 직업선택이나 친구관계, 연애와 결혼관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생의 주요 측면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생 이후 성차이가 발달하고 성역할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발달>의 주제 아래에서 연구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 발달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인지발달이론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러한 세이론은 각각 성역할 분화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르게 보았지만, 세 이론 모두가 <동일시(Identification)>를 성역할 발달

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동일시는 타인이 지닌 어떤 특징을 본받아 그 특징을 내재화하는 과정으로서, 이 이론들은 어린이가 부모-딸은 주로 어머니, 아들은 주로 아버지-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성역할을 습득해 나간다고 보았다.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한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제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만이 유일하고도 바람직한 성역할 발달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역할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이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새로운 이론체계를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양성성 발달이론, 성역할 초월이론, 성별 도식이론, 청소년기의 성별 강화이론이다.

현재의 성역할 규범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세대는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사회화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현재로서는 ‘자유로운 개성’이다.

청소년기에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을 옆에서 돕는 길은 고정관념적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미래에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일지를 미리 생각해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의식을 깨우치고 그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연구 과제

1. 남녀 차이가 변화가능한 것인지 토의해 본다.
2.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고정관념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3. 자신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본다.
4. 매스 미디어는 어떤 성역할을 주로 보여주는 지를 분석, 비판해 본다.
5. 우리 사회에 혼재하고 있는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자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6. 청소년들에게 고정관념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개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참 고 문 헌

- 또 하나의 문화 5호 (1989),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 또 하나의 문화.
-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I): 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 2, 70-83.
-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 (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1, 82-92.
- 조혜정 (1988),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조혜정 저,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카플란과 세드니 (1989),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역, 성의 심리학, 이화여대출판부.

Bem, S. L. (1972),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Where have all the an-

- drogynous people gone?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n sex roles: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5—516.
-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Y : Pergammon Press.
- Hefner, R., Rebecca, M. and Oleshansky, B. (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158.
- Hill, J. and Lynch, M.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and A. Petersen (Eds.), *Female puberty*, N. Y.: Plenum Press.
- Kohlberg, L. (1973), 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revisited, In P. B. Baltes and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 Y.: Academic Press.
- Maccoby, E. E. and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cia, J.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 Wiley.
- Mischel, W. (1976), *Introduction to personality* (2nd ed.), N. Y.: Holt, Reinhart and Winston.
- Mussen, P. H. (1969), Early sex-role development,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D.A. Goslin (Ed.), Chicago : Rand McNally.
- Steinberg, L. (1985), *Adolescence*, N. Y.: Alfred Knopf.

7.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개 관

청소년 시기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아울러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때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도덕성, 정치의식, 법의식, 종교의식 등이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된다.

주제어

도덕성, 도덕 판단력, 관습수준, 만족지연능력, 정치적 태도, 아델슨, 법의식, 인지구조, 종교심성

1. 서론

청소년의 시기는 어린이와 어른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기는 발달심리학적 구분에 의하면 사춘기 초기(12세)부터 모든 신체적, 심리적, 성적 발달이 완료되는 20세를 전후한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성적인 성숙이 가속화되는 출발 시기에서부터, 성적 성숙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를 청소년기라고 부르며, 그 이후를 성인기라고 부른다. 성적 성숙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가장 늦게 완성되는 발달 측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적 성숙의 시기가 청소년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곧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함께 배워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른바 사회성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사회성이란 무엇인가? 남 즉, 타인에 대한 의식이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여, 나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하여 고려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신생아(생후 2주 이전 아동)에게는 사회성이 없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초보적이긴 하지만 아동들은 남을 의식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춘기 이전까지의 ‘타인에 대한 의식’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본격적인 사회성의 발달은 사춘기 이후부터이다. 그래서 루소도 사춘기 시기를 일컬어 제2의 탄생이라고 했다. 제2의 탄생이란 곧 정신적 자각을 뜻하는 바, 이때의 정신적 자각이란 우주와 사회속의 한 구성체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좌표를 의식함을 뜻한다. 이는 곧 정체감의 형성 및 사회성 발달과 같은 맥락속의 이야기가 된다.

청소년기는 모두 발달이 완료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성적 발달이 촉진되고, 나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사회성 발달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

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가 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네 가지 분야의 사회성 발달 측면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덕성 발달, 정치의식의 발달, 법의식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심성의 발달이다. 청소년들은 이 분야에 관해서 아동기나 성인기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1) 도덕성에 관한 접근들

도덕성이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한 사람의 개념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달려들어 즉시 도움을 주려 나설 것이고, 어떤 이는 그냥 못본 채하고 지날 것이다. 어떤 이는 그 정경이 딱하고 안스러우며, 큰 도움을 못 준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할 것이며, 어떤 이는 아무런 감정적 변화를 못느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들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남녀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학력에 따라, 주거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여러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성 수준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각자는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를 서로 다르게 고려한다. 우선 정신분석학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도덕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른바 외디프스 콤플렉스라고 불리우는 4, 5, 6세 사이의 심리적 기제가 양심, 죄의식, 그리고 이상적인 도덕적 표준을 세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프로이트가 이 시기에 있어서의 무의식적 욕구(id)를 중요시

했음에 비하여, 에릭슨은 무의식적 욕구가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ego)에 의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할 수 있게 되면, 정상적인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는 오늘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다.

도덕성에 관한 두번째 접근은 사회학습이론(social-learning theory)이다. 이 입장에서는 모방, 관찰이라는 두 변인을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대다수의 도덕행동은 모방과 관찰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며, 어떤 심리적 특징이나 기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한 개인의 도덕적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며,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적인 특성(trait)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고 이들은 본다. 반듀라와 맥도널드(Bandura and McDonald, 1965)가 한 ‘보보인형실험(Bobo doll experiment)’이 이 입장을 잘 대변한다.

도덕성에 관한 세번째 접근은 콜버그(L.Kohlberg)를 중심으로한 인지 발달 이론자들의 이론이다. 이 입장에서는 도덕성 발달에 가장 큰 핵심적 변인은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라고 보고, 이 인지구조의 성격을 밝히려고 애쓴다. 즉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딪치게 되는 도덕적 문제를 바라다보고, 개념화하며, 판단하게 되는 어떤 인지적인 ‘틀’(mental set)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예를 든 ‘사레’에서처럼,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쁜 지에 대한 ‘판단의 틀’이 사람마다 고유하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틀을 콜버그는 ‘도덕판단’(moral judgement)이라고 불렀고, 그런 도덕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수준(3-levels), 6단계(6-stages)로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해본 후,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면, 3수준, 6단계의 어느 하나에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2)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콜버그에 의하면 제1수준에서 제3수준으로 올라 갈수록 더 도덕적이며,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도덕적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의 ‘도덕판단’을 조사해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수준, 낮은 단계에 해당되며, 나이가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 높은 단계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콜버그가 말하는 3단계 6수준이란 다음과 같다.

<u>3수준(levels)</u>	<u>6단계 (stages)</u>
1. 관습이전 수준	1단계 : 벌회피와 복종의 도덕성 2단계 : 도구적 이기주의 도덕성
2. 관 습 수 준	3단계 : 친애주의적 도덕성 4단계 : 사회질서 유지의 도덕성
3. 관습이후 수준	5단계 : 사회계약적 도덕성 6단계 : 보편적 윤리원칙의 도덕성

여기서 관습이전 수준이란 사람간의 도리에 대한 사회의 최소한의 규칙조차 따를 수 없는 능력 수준을 말한다. 보통 4, 5세 이전의 아동의 도덕수준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1, 2단계의 도덕성이 나타나는데 처벌을 겁내거나, 권위에 눌려서 도덕 혹은 비도덕 행위를 하게 되면 1단계 도덕성이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2단계 도덕성이 된다.

관습수준이란 사회가 삶의 규칙으로 정한 관습, 습관, 덕목, 풍습, 규정, 법등을 익히 알고, 이 관습법이나 실정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수준을 말하며 대체로 6, 7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바, 도덕성의 3, 4단계에 해당된다. 3단계의 도덕성은 자기 주변의 친지나 친구, 친척 등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시하는 도덕성 수준이다. 4단계의 도덕성은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질서의 유지와 균형에 관심을 두는 도덕성으로서 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다.

관습 이후 수준은 관습이나 법의 설정취지에 비추어 관습과 법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도 평가할 줄 아는 수준이다. 즉 실정법을 자연법의 원리에 비추어 비판하고 준수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5, 6단계의 도덕성이 해당되는데, 5단계 도덕성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계약적 관점에 어긋나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도덕적 판단을 말한다. 6단계 도덕성은 예수, 소크라테스 등에서 엿보이는 도덕성으로서 이 우주안의 모든 삼라만상의 사건들을 어떤 원칙에 의거 도덕적으로 정리할 줄 아는 도덕성이다.

이와 같은 Kohlberg의 도덕성의 6단계는 결국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 비도덕적 행위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여러가지 도덕행위는 같은 심리적 기제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A, B, C, D라는 네개의 서로 다른 비도덕 행동들이 만약 제3단계에로 유형화된다고 하면, 이 네가지 행동은 모두 친애주의 도덕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그것의 억제를 위해서도 친애주의적 도덕성의 발휘를 억제하면 된다고 볼 수 있다.

3) 각 단계별 도덕성의 특징

6단계의 도덕성의 특징을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시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0단계 : 충동에 의한 비도덕 행동

이 단계에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독실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비도덕적 행동이 표출된다.

예로서는 공중전화를 짧게 쓰라는 여자의 신경질나는 재촉에 불쾌해지고, 그 불쾌감 때문에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른 행동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충동적 비도덕 행위는 연령과 남녀에 상관없이 표출되며, 정신질환자에게 특히 많다.

이런 비도덕적 행동은 황금만능, 배금주의, 도시화와 부관하며 단지 감정의 통제능력이 모자랄 뿐이다. 충동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담배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40대를 폭행한 10대의 경우, 전화불 빨리 끊지 않는다고 따귀를 때린 대학생의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조금만 참으면 하래도 하지 않을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다. 과출소에서 기분을 파괴하는 행위도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 충동이 아니고는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인 때문이다.

(2) 1단계 : 벌을 피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비도덕적 행동

이 단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비행과 권위에 늘려 할 수 없이 저지르는 비행이 여기에 속한다. 예컨대 어느 불량배, 또는 왕초에게 질려들어, 그의 처벌을 겁내고, 그 권위에 맹종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비행이 여기에 속한다. 위협과 공갈에 못이겨 저지르는 지극히 타율적으로 저질러지는 행동이다.

이러한 비행에 대한 대책은 우선 처벌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물리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이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집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3) 2단계 : 이기적 욕구 때문에 저지르는 비도덕 행위

이 단계의 비도덕적 행위는 나의 욕구와 이득을 위해서 저지르는 모든 행동이 된다. 피서비용이나 디스코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르는 모든 비행이 이에 속한다. 순전히 나 자신의 쾌락과 욕구충족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하는 비행들이다. 자신의 쾌락과 욕구충족의 일념 때문에 타인의 피로움이나 아픔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약 상습자나 알콜중독자들이 마약과 술을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비행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초·중·고생들이 용돈을 얻는 목적으로 동료학생에게 폭행과 강도짓을 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상류층과 중류층의 청소년 비행은 주로 이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남을 위해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일을 저지른다.

이 단계의 도덕적 비행에 대한 대응책은 ① 쾌락과 유흥의 루트불 단절시

키거나 ② 만족지연능력(delay of gratification)을 키워주거나 또는 ③ 쾌락과 유희의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다.

(4) 3단계 : 친애주의 때문에 저지르는 비도덕 행동

이 단계의 비도덕적 행위는 자기 주변의 친척, 친지, 동료, 상사 등에게 잘 해주려다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병든 부모님이 계시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할 경우, 강도를 저질러 돈을 마련코자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의 비도덕성이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예이다. 전직 장관이 자기 아들의 빚보증을 공공기관의 명의로 썼다가, 공공기관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 장관의 도덕성은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을 것이다. 충동적 비행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쾌락도 추구 않는 도덕군자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너무 강해서 그만 공인(公人)으로서의 판단에 실수를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예전에 어느 경찰의 고급 간부가 내연의 처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미수로 잡힌 예와 크게 대비된다. 이 경찰간부의 비도덕 행위는 2단계 유형이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비도덕 행위를 했지만, 전직장관은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에 비도덕 행위를 저지른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지킬 덕목이 많다. 그 덕목들은 낱개로 보면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함께 보면 갈등하고 모순적일 경우도 많다.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어 효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나, 돈이 없어서 친구의 돈을 훔친 경우가 그것이다. 효도나 우정이 동시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이다.

자녀를 데리고 함께 죽는 동반자살의 가장도 3단계의 비도덕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가장은 자기가 죽고 난 후의 자녀들의 불쌍한 모습을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어, 그들을 데리고 죽는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까지 정당화한다. 이러한 자녀살인은 증오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비도덕적 행위이다. 증오심에 의한 비행은 분명히 2단계의 비도덕적 행위이다.

이 단계의 비도덕성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덕목과 덕목간의 비교,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자주 연습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덕목과 덕목간에는 서열이 있게 마련이다. 이 덕목간의 서열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일도 그 대책의 하나이다. ‘정직’이 좋은 덕목이고, 언제나 지키면 좋은 덕목이지만, 강도에까지 정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군과 간첩에게까지 정직하면 이적행위가 된다. 아들 사랑도 좋지만, 국민의 세금과 공금까지 축내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5) 4단계 : 법질서 또는 사회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질러지는

비도덕적 행동

이 단계에서의 비도덕적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전체 또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저질러지는 비행을 뜻한다. 실정법의 집행으로 저질러지는 비도덕적 행위의 측면이 여기에 해당되는 바, 예컨대 강도나 강간범 등의 강력 범죄자를 속히 검거하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강제자백을 얻으려는 행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법질서 파괴자를 응징하려는 의도가 결국 법을 다시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비도덕 행동은 종종 의(義)로운 행동으로 오해될 때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일까? 실정법의 내용에 대한 숙지와 실정법에 배어 있는 법철학적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실사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증거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불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증거를 찾는 경찰이 더 도덕적이다. 그 죄인에게 가혹행위를 해대는 일은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비도덕적이다. 우리의 실정법은 이런 ‘효과’보다는 수사관의 도덕적 행동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

(6) 5단계 : 사회계약 또는 자연법적 관점에서 지지되는 비도덕적 행동

이 단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기존의 관습이나 실정법 등의 고정관념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대다수의 양심범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손가락질 받는 이단자적 존재, 또

는 기인(奇人)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범주에 드는 도덕적 비행은 타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이데올로기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예컨대 외국의 경우 갈릴레이나, 부르노가 여기에 해당되고 술제니친이나 사하로프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예로 치자면 실정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다녀온 몇몇 방북인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겼으며 자신의 쾌락, 친지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처하고 있는 철학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의 비도덕 행동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별 대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들은 결코 다른 비행자들이 같이 남에게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사상과 인생관이 그 사회의 주류(主流)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이다. 이 주류에 위해를 가한다고 실정법으로 판단되면 격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주류는 조그만 역류(逆流)를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지내야 할 것이다.

(7) 6단계 : 보편적 윤리원칙에 입각한 비도덕적 행위

이 단계의 비도덕성은 이미 비도덕적이라 말하기 어렵다. 기존의 윤리와 형이상학을 완전히 뒤집어 엮는 전혀 새로운 행위 규범의 제시가 동반되는 때문이다. 예컨대, 예수그리스도는 로마인과 유대인의 눈에서 보면 범법자요, 비행자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윤리원칙과 형이상학은 로마와 유대인의 기존 규범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가 더 도덕적이고, 완전한 규범 행위자가 된다. 그런 점은 소크라테스와 간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Kohlberg의 개념들을 빌어, 우리가 요즈음 비도덕적 행위라 부를 수 있는 행동들을 유형화해 보았다.

아울러 각 유형별로 그 비도덕적 행동에 게재되는 심리적 특성과 지향성이

다름을 논의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비도덕적 행위를 총론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무리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각각의 비도덕 행위의 근저에는 서로 다른 존재이유와 촉발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는 비도덕 행위를 억제하고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도 선별적이고 변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대응의 측면을 간략히 논의해 보겠다.

3.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의 발달

1960년 말에 이르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가 성행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메렐만(Merelman), 아델슨(Adelson), 그리고 한(Haan) 등이 그 중심되는 학자들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와 성향에 대한 아델슨의 연구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참신한 연구였다. 그의 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 성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아델슨은 12~16세에 걸치는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남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인터뷰를 하였다.

「자 여기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안에는 남녀노소는 물론 온갖 직종의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이들은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한 무인도에 모여 들었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제도와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수법에 따르는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부와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준 후에 아델슨이 학생들에게 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왜 정부를 세워야 하는가?
- ② 법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 ③ 정치를 위해서 정당제도가 있어야 할까?
- ④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으로 해야하나?

⑤ 죄지는 사람에겐 어떻게 벌을 주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로부터 얻고, 이것을 연령별로, 남녀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아텔슨은 살펴보았다.

정치성향과 정치의식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간 그리고 국가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인식방법이 의미있게 변화하며, 정치적 권위에 대한 존경이 감소되어 가며,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머리속에 구축하게 된다고 한다.

연령 증가와 더불어 정치에 대한 인지 방식은 구체성으로부터 추상성으로 발전해 간다.

예컨대 12세 학생은 “법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법이 없으면 사람끼리 서로 죽이려 하기 때문에”라고 구체적 사실로부터 대답을 하지만, 16세 학생의 경우는 법은 “시민의 행위의 안내도와 같아서, 이것이 있어야 옳고 그름에 대한 시민의 판단이 선다”라고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답을 한다. 인지방식 변화의 다른 한 예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질문〉 1,000명의 사람 중 20%가 농부들이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농부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0세 아동 : 불리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농부에게 해를 줄 리가 없다.

12세 아동 : 내가 불리하게 되면 싸우거나, 그 섬을 떠난다.

13세 아동 : 타협을 해서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농부의 문제를 알게끔 선전한다.

16세 아동 : 농민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대표를 뽑고, 이 대표로 하여금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낮은 연령의 아동에게 있어서 정치적 권위는 비합리적이거나 주체넘거나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피아제가 말하는 형

식적 조작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권위는 서서히 그 절대성을 상실해 간다.

14, 15세에 이르면, 학생들은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며, 정치적 결정은 임시적인 것일 수 있으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내려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법을 지키려면 이득과 손해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연령에 따른 변화 중의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16세를 전후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구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를 보는 안목이 12, 13세 때에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비논리적이지만 16세에 이르면 사색적이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리적인 사고형태를 취하게 된다.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학생들 사이에 정치적 태도 및 성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효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독일 학생들은 소수의 인원이 참석할 수록 좋다고 대답하며, 그러한 대답은 미국이나 영국의 학생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나 높은 빈도였다. 한 독일 학생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각 개인들이 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몇몇의 소수가 결정하게 되면, 그들은 전체국민들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학생들의 사고는 정치인과 시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특성에서 연유된다. 즉 독일 학생들은 그들의 정치가(大統領)를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현명하고 자비롭다고 인식하며, 시민들은 그러한 아버지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 약하고 의존적인 ‘어린이’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생각은 미국이나 영국의 학생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델슨의 결론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의 정치성향은 ‘지향적’이며, 세 나라 학생 중 지역사회 공동체와 시민간의 역할의 조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들이 가장 개인 중심적이고,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 그들은 개인의 독특성과 일탈에 가장 관대하며 공동체와 관련지어서 규제 또는 간섭하려는 성향을 가장 배격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아델슨의 연구는 가상적인 정치상황을 제시하여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탐색하기 어려웠던 심리적 사고과정을 추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각 방면으로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의 형성과정과 발달상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아델슨과 같은 발달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희귀하다.

4.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

1) 전통적 연구의 결과

전통적으로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와 법학자들의 고유한 관심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을 일컬어 ‘법의식’이라고 개념화 한다.

예컨대 사회학자인 임희섭(1974)은 법의식을 법에 대한 태도와 동의어로 간주하고, 법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에 대한 태도는 법의 도덕성, 정치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관하여 행위자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어떠한 반응 양식을 보이고 있느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수준의 법지식, 법적 동일시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채는 것이 곧 법의식의 속성이 된다.」(방점은 필자 삽입)

한편 법학자인 이수성(1984)은 법의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체로 법의식이라 함은 현저하게 법적인 현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및

감정적인 심리상황을 충족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법적 인식, 법적 판단 내지 평가, 그리고 범감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적 인식은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범규범, 법제도를 행위결정의 좌표로서 인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법현상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 및 그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범감정이란 행위자가 법현상에 대하여 가지는 정서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분히 비합리적, 비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p. 68).

따라서 이들 사회학자나 법학자들은 법의식을 조사함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법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빈도화, 또는 통계화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조사로서 임희섭과 이수성이 발견하는 한국인의 법의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임희섭(1974)의 연구에 의하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은 법의 질서유지 기능을 특히 강조하여 인식하는 반면에, 법을 통한 권리, 의무의식이나 계약적 기능, 그리고 사회개혁적 기능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다.
2. 한국인은 법의 형법적 성격과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여 인식하며, 법의 민법적 성격과 배상적 성격에 대한 인식비중이 낮다.
3. 한국인은 법적 소외감이 상당히 높으며, 계층별로 볼 때, 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가 특히 높다.
4. 한국인의 법사용 능력은 매우 낮은 바, 이것은 법의 타당성에 대한 높은 회의감과 경제적 이유로 그렇게 된 듯하다.
5. 남자들은 법의 준수형, 조종형을 주로 나타내고, 여자들은 신민형과 회피형에 주로 속한다.
6. 연령이 증가할(노년에 이를)수록 신민형, 회피형이 증가하고, 젊은층(18세 이상)에 속할 수록 준수형과 조종형이 많아진다.
7.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준수형과 조종형이 많아지고, 낮을 수록 신민형과 회피형이 많아진다.

8. 수입정도가 높을 수록 준수형과 조종형이 많아지고, 낮을 수록 신민형과 회피형 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이수성(1984)의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국민에 비해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서 질서유지 규범준수의 엄격함, 두려움 등을 연상하는 바, 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2. 청소년들은 법의 민사적, 계약적 요소보다 제재적, 처벌적 요소를 강조한다.
3. 법을 하늘이 내려준 도리로 보는 전통적 관점은 줄어들고 있으며, 법관 제자에 대한 믿음보다 법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4. 법적 소외감은 그리 크지 않고, 법에 대한 존중심도 가지고 있으나, 법에 대한 신뢰감은 대체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다. 특히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크다.
5.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근로청소년이 가장 높고, 고교생, 대학생, 비행 청소년 순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상과 같은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관점하에서의 법의식 연구는 법에 관한 사람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을 집단적 경향성에 비추어 심도있게 밝혀준다는 점에서는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갖는 한계는 집단의 평균적 수준과 경향성을 진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수준의 진단에 그칠 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어렵다. 단지 “학습이 안되었거나, 학습이 잘못되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말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법에 관한 태도의 누적치와 합산이 곧 법의식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그런 법에 관한 태도가 더 심층적인 심리·구조적 요인과 특성의 함수라는 가정은 배제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 입장에서는 청소년과 어른들의 법의식 차이를 단지 법에 대한 지식, 감정 및 태도의 차이로 간주할 뿐, 청소년과 어른들의 현격한 인지구조나 심리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나 전제는 가지지 않는다.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히

해 보자.

임희섭과 이수성은 결론 부분에서 똑같이 한국인은 모두 법의 형법적 성격과 징벌적 성격을 강조하여 인식하며, 민법적이거나 계약적 또는 배상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법의식의 특징이라고 이들은 지적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이들 나타난 한국인의 평균적인 법의식 특징이라고 이야기 할 뿐이다. 즉 이러한 한국인의 법의식 특징을 어떤 체계화된 설명틀에 입각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이하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인지발달 심리학자인 J.Piaget는 이런 법의식의 특징이 한 사람의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심리적 구조(Cognitive Structure)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한다. 즉 임희섭과 이수성이 발견한 한국인들의 형법적이고 징벌적인 법인식 유형은 법의식 발달체제상의 한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인지발달론적 연구

법의식을 단지 법에 대한 지식이나 감정, 그리고 평가라는, 비교적 쉽게 학습되거나, 망각되는 표피적 의식내용(意識內容)으로 보지 않고, 법과 관련된 사고와 관심, 흥미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고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신구조(mental 혹은 Cognitive structure)의 문제라고 보고, 그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다름아닌 J.Piaget 였다.

그는 사람들의 이 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이 네 단계의 정신구조(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거쳐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사고와 의식도 어떤 정신구조의 단계(그는 세 단계라고 보았음)를 이루면서 발달해 간다고 믿었다.

인지발달론에서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Piaget(1965)에서 연원한다. Piaget의 법에 관한 세단계의 정신구조 개념을 L.Kohlberg가 이어 받아서 6단계의 정신구조 개념으로 정착시켰으며, 다시 Kohlberg(1968)의 이론과 단계에 더해서 법의식 발달 단계의 이론을 오늘날과 같이 세련화 시킨게 J.

Tapp과 Levine(1970, 1974)이다. 이제 간략히 Tapp과 Levine의 법의식 발달론을 살펴 보겠다.

Tapp과 Levine(1977)은 아주 본격적으로 법의식의 발달과정을 규명코자 나섰다. 이들은 Kohlberg의 6단계 도덕성 발달이론을 근거로, 이에 법의식에 국한된 해석틀을 접속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법, 정의, 평등, 동조, 권위 등의 범관련 개념을 다루는 열린 질문들(open-ended questions)을 만들고, 이 질문을 토대로 각 연령층의 사람들 및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 반응을 Kohlberg의 6단계 특성에 비추어 유형화하였다. 예컨대 “법을 왜 지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벌 때문에”, 혹은 “명령이므로” 등으로 대답한 경우는 Kohlberg의 1단계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또 법의 질서 유지적 특성을 강조하면 제4단계, 법의 자기 규율적 특성을 강조하면 제5단계로 유형화한다.

Tapp(1969, 1970, 1974)은 여섯 국가(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일본, 미국)의 일곱 문화권(미국의 경우 흑, 백인 문화로 분리)에서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대학생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법의 역할, 개인의 권리, 공정성, 책임성 등의 법(혹은 규칙 체계) 관련 내용을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Tapp-Levine(1974)은 이런 경험적 연구 자료를 통해 법 개념화 양식이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과 그 변화 과정을 범주화한 결과 Kohlberg(1969)가 제시한 세 가지 수준과 여섯 단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제제-복종의 자세를 갖는 전인습적 수준, 법과 질서 유지의 자세를 보이는 인습적 수준, 법 개정, 원칙화된 관점의 후인습적 수준이다. 각 수준은 법적 체제와 관련된 권리, 역할, 책임성에 대해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고 구조의 방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가지 수준은 발달 연속성을 포함하며, 높은 수준은 좀더 통합적, 복합적인 추론 구조를 보인다.

Tapp과 Levine은 이런 자료의 분석 결과 법에 대한 의식 및 개념화를

Kohlberg식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인을 상대로 한 자료에서도 그 발달 경향이 드러났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런 동일한 발달 경향이 나타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법의식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1단계에서 6단계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감을 발견했다. 이들의 연구는 또는 제3, 4단계의 법의식이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에서 제1, 제2단계 또는 제5, 6단계 보다 우세한 법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우리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수준

이러한 Tapp과 Levine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할까?

관심을 갖고 전개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단지 한 편의 연구(강윤정, 1991)가 있었을 뿐이었다. 강윤정은 TLRJI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이를 7~28세에 이르는 99명에게 적용하여, 그 응답을 분석한 바 있다. 그 분석 내용을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법의식 수준

N : 사람수 () = %

연령	Tapp level(법의식 수준)					
	1	2	3	4	4(5)	5
7세(N=20)	20(100)					
10세(N=20)	13(65)	5(25)	2(10)			
13세(N=20)	2(10)	7(35)	7(35)	4(20)		
15세(N=20)				20(100)		
18세(N=19)				9(47)	9(47)	1(16)
전체(N=99)	35(35)	12(12)	9(9)	33(33)	9(9)	1(1)

(강윤정, 1991, p. 28)

아동기(7세) 연령 아동의 전부(100%)가 1단계 즉, 전인습수준의 법의식을 보여 미국의 80%보다 꽤 높았다. 소년기의 경우(10, 13세) 전인습수준에 67.5% 인습수준에 32.5%로 나타나서 미국의 인습수준 73%보다 상당히 낮았다. 15세 이상의 경우 모두 인습수준 이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물론 Tapp과 Levine의 표집과 연령구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대체적인 경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특히 표집의 소규모로 인해서 야기되었을 표집오차도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고, 강운정의 연구가 내린 결론을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법의식 수준은 연령과 더불어 상승했다.
- ② 법의식 수준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 ③ 비행집단의 법의식 수준이 정상 집단에 비해서 낮았다. 특히 저연령 집단에서 그 차이가 컸다.
- ④ 법의식 수준과 도덕성 발달수준의 일치정도가 컸다. 정상집단의 경우 수준의 일치정도는 74~78%였으나, 비행자는 3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인지발달론에서 말하는 네 가지 중요한 가정 즉, 법의식 발달의 단계성, 구조적 동일성, 문화적 보편성, 그리고 항상적 순차성에 대한 검증의 가능성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여준다. 즉 대체적인 결론이 미국의 Tapp과 Levine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TLRLI(법의식 발달 면담검사)의 한국어판 번역본의 사용이 그리 큰 무리는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보다 많은 표집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한 법의식의 규명 노력이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5. 청소년의 종교심성 발달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종교를 통해서 제시되는 행위규칙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며, 그 종교가 제시하는 삶의 가치를 회생과 고생을 무릅쓰고 추구하려고 한다. 그들은 개인적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자기의 종교적 신앙에 몰두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위안과 새로운 길을 제시받는다.

종교는 더 이상 특수한 일부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관심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물론 이 때의 종교는 특정 종파의 심리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현상에 대한 관심이다. 즉 어린이와 성인은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인생의 위기에 더 잘 견뎌내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권위주의적인가?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남을 잘 도와주는가? 이런 문제는 바로 현대사회에서의 적응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대한 사항물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 명제는 바로 아동과 성인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을 성인들의 그것과 동일시하여 온 종래의 전통적 아동관에 대한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의 반대 구호였다. 성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런 이론으로 아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더욱 더 그 설득력을 강화해 왔다. 아동들은 성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아동의 독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교육적 노력이 크게 각광받기 시작한다.

아동들의 종교적인 심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아동의 독특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아동들의 머리속에 그리는 신의 모습이 성인들이 그리는 신의 모습과 다를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짐작이 간다. 어른들은 장래들에서의 무릎의 아픔을 견디는 것도 신앙심의 한 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동들도 그래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아동들에게 ‘교회 = 무릎이 아픈 곳’으로 인식시키는데 공헌할 뿐 어른 생각대로 무릎의 아픔을 통해서 신앙심을 키우는 곳으로 인식시키는데 공헌하지 못한다.

1) 아동기 종교심성(3~12살)

이 기간의 아동들의 종교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들이었다. 즉 아동들에게, “하느님은 누구지?”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지?” “하느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지?” 등등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아동들의 대답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함스(Harms)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3~12살에 걸치는 동안 세 단계의 발달과정이 있음을 발견케 된다.

① 환상단계(3~6살) : 하느님은 거인, 용 등과 같이 신비스런 환상속의 어떤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웅대하고 화려한 옷을 걸친 동화속의 거인의 모습으로 비친다.

② 실재단계(7~12살) : 이 단계에선 하느님은 이제 실재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인 것처럼 인식된다. 여러 가지 종교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인식한다. 예컨대 천당과 지옥의 실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③ 개별화단계(12살 이후) : 이 연령시기부터 개인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아동은 보다 신비적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어떤 아동은 실재적으로, 또 어떤 아동은 별다른 의식없이 외래적인 대상으로 하느님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함스의 세 단계설은 아동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일정한 발달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첫번째 구상이었다.

함스 이후 피아제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폴드만은 200명의 아동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속에 제시된 ‘하느님’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유형이 피아제의 발달단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발견케 된다. 예컨대 하느님은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실재단계의 인식은 12, 13, 14세 이후에나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곧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이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하느님에 대해서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 즉 유추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능력의 출현시기와 엇비슷하게 맞아들어간다.

3~6살 난 아동들은 종교적인 관념들을 매우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에 반한다. 이들이 이 속에 나타난 하느님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동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는 기도내용을 보더라도 그렇다. 자기들의 어린애다운 꿈을 실현시켜 달라는 게 전부이다. 그러나 6~12살의 나이에 이르면, 아동들은 궁금한 것이 많아진다.

물론 이 궁금증은 ‘종교에 대한 회의론적’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고, 천당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등의 어린애다운 실재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어떤 아동들은 아주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한다. 이제 12살이 지나면서부터 종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시작된다. 12살 전후해서 교과의 차이를 형식과 절차에서 찾는 경향이 이를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에서 찾기 시작하는 경향으로 종교 인식의 성행이 바뀌어 간다.

롱(Long), 엘킨드(Elkind) 그리고 스피카(Spilka)는 아동들의 기도 내용을 조사해 본 바 있다.

그것들을 요인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했다고 한다.

- ① 5~7살 :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식의 막연한 인식과 표현, 부모로부터 배운 상투적 기도문구의 반복.
- ② 7~9살 : 하느님에 대한 자기의 요청사항의 반복적 제시.
- ③ 10~12살 : 하느님과의 비밀스런 대화를 시도함.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함. 기도 내용에서 자기중심적 요소가 없어지기 시작함.

이러한 기도 내용의 분석 또는 아동들의 종교심성이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발달되어감을 보여준다. 국민학교 각 학년의 주일학교 수업지도 전략이 이와 같은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청소년기의 종교심성(12~18세)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종교심성의 발달과 관련해서 볼 때 청소년기는 매우 흥미로운 때이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종교적 깨달음이 시작되는

연령이다. 즉 종교를 새로 갖게 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전향케 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자주 발견되는 시기이다.

많은 종교심성 연구가들이 이 시기를 가리켜 종교심성의 급전기(religious conversions)라고 부른다. 이때의 급전기(conversion)란 개종(conversion)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연구가들이 말하는 ‘conversion’은 정확하게는 ‘자기 종교에 대한 고조된 참여’(heightened commitment to an already known religious belief system)를 뜻한다. 그러나 개종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체계를 다른 종교의 그것으로 바꾸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개종도 급전현상의 하나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종교적 급전현상은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무관치않다고 본다. 즉 부모들에 대한 반발심에서 “당신들보다 더 신심이 깊은 나”를 보여주겠다는 심리가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런 급전현상에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엘리슨(Allison)이 조사한 청소년의 10~30%는 ‘종교적 급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시기는 또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친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시기이다. 종교적인 심성에 있어서도 부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친구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청소년들의 종교행동과 매우 밀접히 관련된다. 또한 형제관계도 영향을 준다. 남자들의 경우 형보다는 누나가 있을 때 교회의 행사 참석률이 훨씬 높아진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종교적 심성의 급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층은 대체로 15~16세경이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남자보다 1년 가량 빠르다고 한다. 물론 빠른 경우는 10세, 늦은 경우는 30세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급전은 10~20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시기는 문화가 다르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미국의 청소년들과는 매우 상이한 역활기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

과 활동이 위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통계치는 없으나 대학생들 사이에 개종과 급전현상이 많은 것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는 바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종교적 ‘믿음’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이다. 쿨렌(Kuhlen), 아놀드(Arnold)는 12, 15, 18세 아동 500명을 상대로 그 믿음의 내용 변화를 추적해 본 적이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이 12세까지는 받아들여지나 18세에 이르러서는 폐기된다. 예컨대 “착한 사람만이 천당에 간다”에 그렇다는 아동이 12세에는 72%였으나 18세에서는 33%에 불과해진다. 이들의 믿음은 점점 추상적이 되며 구체성을 벗어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심이 증가된다. 종교해석의 절대적 판단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글쎄요”란 반응이 증가한다.

특히 죄, 천국과 지옥, 과학과 신앙, 사후의 세계라는 토픽에 대해서는 “글쎄요”가 점점 더 많아진다.

앨포트(Allport), 길레스피(Gillespie), 영(Young)은 하버드 대학생을 상대로 그들의 종교적 행동에서의 반응을 조사한 바 있다. 예컨대 “종교적 가르침에 반대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2~7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었다. 카톨릭교 청소년의 반발은 기독교나 유태교 청소년들보다 적었다. 이런 반발의 평균적 연령은 남자 15.5세, 여자 14.5세로 여자의 경우가 더 빨랐다. 종교심성의 급전이 사춘기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다는 캐리슨(Garrison)의 주장이 여기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한 반발 속에 부모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성직자, 교리 교사 등)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지 알 길은 없다. 그 반발의 근원은 이들의 사춘기적·청소년기적 특성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추출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런 점은 청소년기에 반발과 회의심 그리고 적개심이 고조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행동(주일미사, 예배 참배, 교회 서클활동)이 성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수께끼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문 요약

청소년기는 모든 발달이 완료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성적 발달이 촉진되고, 나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사회성 발달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네가지 분야의 사회성 발달 측면을 소개해 보았다. 네가지 분야는 도덕성 발달, 정치의식의 발달, 법의식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심성의 발달이다.

도덕성이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한 사람의 개념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세 가지 관점(정신분석학,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론)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각자는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를 서로 다르게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의 형성과 발달상태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청소년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메렐만, 아델슨, 한 등의 연구가 획기적이고 참신한 연구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연구는 희귀하다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와 법학자들의 고유한 관심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을 일컬어 법의식이라고 개념화한다. 사회학자나 법학자들은 조사함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법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빈도화, 또는 통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종교에 관한 연구는 특정 종파의 심리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인 종교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기는 종교적 깨달음이 시작되는 연령이다. 즉 종교를 새로 갖게 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전향케 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자주 발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종교심성에 관한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대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연구 과제

1. 청소년이 사회성 발달에 관한 기존의 연구불 검토해 본다.
2.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을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관련하여 설명해본다.
3. 청소년들의 도덕성, 정치의식, 법의식, 종교의식 등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운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 문용린, “법의식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접근”, 민주문화논총 제2권 4호 : 통권 제11호, 민주문화 아카데미, 23-47.
- 이수성(1984),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학 제25권 2, 3호, 서울대학교, 68-94.
- 임희섭(1976),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법학 제15권 1호, 33-55.
- Gibbs, J.(1977), Kohlberg's stages of moral judgment : A constructive critiqu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1).
- Gorsuch, R.(1972), *Moral reasoning in an isolated Honduras villiage*, Unpublished paper, George Peabody College.
- Kohlberg, L., & Elfenbein, D(1975), Judgments concerning moral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4). 614-640.

- Kohlberg, L.,(1968), Stage and sequence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jd McNally.
- Kohlberg, L.(1971), From is to ought :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T. Mischel(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 Piaget, J.(1965),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 Scharf, P.(1978), *Moral education*, Davis, Ca. : Dialogue Interaction Press.
- Scharf, P.(1982), Law and the child's evolving legal conscience, *Advance in Law and Child Development* Vol. 1, 1-30.
- Tapp. J. L.(1976), Psychology and the law : An overture,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27, Palo Alto, Calif. : Annual Reviews.
- Tapp. J. L., & Levine, F.(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Tapp. J. L., & Levine, F. J.(1974), Legal socialization : Strategies for an ethical legality, *Stanford Law Review*, 27, 1-72.
- Tapp. J. L.,(1981), *Developmental patterns : A decade of legal socialization, cross-cultural and developmental findings*, Paper prsented at the 18th Inter American Society of Psychology Congress, Santo Domingo, June 24.

8.

남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가족, 또래 집단, 그리고 학교·일터에서의 인간관계

개 관

사람은 평생동안 남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그 가운데 청소년기는 더욱 현재의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인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능력을 기르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3년 또는 6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는 학교, 그리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국가 경제 건설의 최첨병으로 활동하는 근로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 이들이 모든 사회장면에서 어울리게 되는 우정, 애정 등 또래관계의 기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부모와의 갈등, 세대차이, 우정과 애정, 또래관계, 학업, 교사와의 관계, 고민, 학업성적 문제, 스트레스, 진로지도, 상담.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옛 명언을 되뇌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청소년기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민학교시기까지의 아동을 마친 이들은 청소년기를 맞이하며 더욱 왕성한 인간관계, — 특히 또래관계 — 속에서 성인기로의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가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 보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수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며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성격과 심리적 적응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학교생활과 그와 관련된 또래관계, 그리고 가족내에서의 역동관계, 직업청소년의 조직내의 인간관계 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내에서의 세대차이와 역동, 또래집단간의 우정이나 애정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제 이들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맥락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1. 가족관계 속에서의 청소년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가족구조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부부와 1-2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와 판이하게 다르다. 즉 조부모를 비롯한 확대가족에서의 어른들은 이제 그 영향력과 권위를 차츰 상실해가고 있으며, 주로 부모의 양육행태와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던 영향은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특한 측면이 있음을 어른들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새로운 인간」인 청소년세대

오늘날 청소년세대는 부모 및 조부모세대와 확실하게 변별되는 새로운 세대(新世代)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예: 한국일보, 1990). 가령 1993년 현재 77세의 조부모, 47세의 부모, 그리고 17세의 손자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자. 이때 이들 3대는 그 연령에서도 30년씩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온 경험이 전혀 다른 세대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출생동시 집단(birth cohort)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전혀 다른 동시집단에 소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1916년생인 조부모는 조선조(朝鮮朝)가 국권을 상실한 지 6년 후에 출생하고 세 살 때 3·1운동을 겪었다. 그리고 29세에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일제치하의 쓰라린 고난을 겪고 징병, 징용의 경험을 맛보았다. 또 34세 되던 1950년에 6·25 전쟁을 경험하여 피난살이 등을 겪었고, 그후 제 1공화국에서부터 4·19, 5·16을 거쳐 제6공화국까지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정치적 격변뿐만 아니라, 보릿고개와 같은 의식주(衣食住)의 한계상황에서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던 세대이다.

그에 비하면 1946년생인 부모세대는 해방후 출생하여 4세에 6·25를 맞이하고, 15세인 61년에 5.16군사혁명을 경험했다. 그후 유신, 광주항쟁 등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체험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TV방송 등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에 따른 많은 시대적 변천을 직접 체험하였다.

하지만,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청소년세대(1976년생)는 이들 두 윗세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나고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 해방, 6·25, 군사혁명, 보릿고개, 월남전 등을 역사교과서 속에서 배우며 살아왔고, 급속한 생활수준 향상, 나날이 좁아지는 지구촌과 외국문물에 대한 문호개방, 교복자율화, 개인중심주의와 소시민의식 속에서 21세기를 향해 성장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3세대 가족 구성원은 연령적으로 각각 30년씩 차이가

나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생활양식, 경험, 태도, 의식구조에서 결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윤 진, 1985; 이춘재 등, 1988). 그러므로 이들이 보여주는 이른바 “세대차이”(generation gap)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만일 이들 3세대간에 세대차이나 또는 태도의 다른 점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2) “세대간의 거리지각”의 차이

흔히 같은 가족 안에서 조부모-부모세대와 청소년 자녀세대는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같은 가족 안에서는 동일한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므로 아들 사이에는 별다른 세대차이를 느끼지 않고 모두 “서로 가깝게 느끼는” 인물들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녀나 손자녀를 매우 “가까운 인물”로 지각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비록 부모, 조부모로서 가까이 느끼기는 하지만 “윗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까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Bengtson과 Kuypers(1971)의 “발달단계에 따른 내기 걸기”(developmental stake) 개념과 관계가 있다. 즉 부모와 노부모들은 죽음을 지각하는 연령에 도달하여 지나온 가문의 역사, 전통, 종교와 가치관 등을 후세에 물려주고 계승케함으로써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음 세대를 보다 가까이 느끼며 젊은 세대와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윤 진, 1985).

이에 반하여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은 중년세대나 젊은 세대는 이들 노부모세대들이 가진 전통적인 가치관 전수욕구를 일종의 간섭이나 방해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거부하며 세대간의 차이를 과장하거나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더구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독립이 주요 “발달과업”인 청소년들은 어린 세대와 친밀감과 애정은 계속 유지하지만, 신체적, 정서적 독립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김종서 등, 1983). 그러므로 조부모-부모-손자녀들간에는 서로 세대간의 거리지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3) '정서적 독립'이란 발달과업

부모의 보호 속에 유아, 아동을 무사히 보낸 청소년들은 이제 그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김중서 등(1983)의 제3단계(청년 전기, 12~18,19세)의 발달과업 내용을 살펴보다라도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특히 정서적 영역(情意的 領域)에서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기”,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하기”, “일생을 살아갈 지침이 될 가치를 획득하기” 등이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므로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진다. 또 그 다음 단계인 청년후기(19~24,25세)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갖기”, “전통적인 가치관을 생활에 조화시키기”,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다하기” 등 독립성과 성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발달과업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는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부모나 어른들에게 의존하고 보호만 받으며 살아갈 시기는 아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아동기의 의존과 보호를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내에서 조부모—부모 등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가족 사이에서 여러가지 특수한 역동관계를 드러내게 된다.

4)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통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은 ① 사랑과 증오(love-hostility)와 ② 자율성—통제(autonomy-control)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Becker, 1964).

첫째, “사랑과 증오의 차원”에서는, 부모의 온화함, 수용, 애정 인정 합리적 육아방법 사용, 칭찬해주기, 신체적 처벌 덜 가하기 등 긍정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 역시 원만한 대인관계, 높은 자존심, 그리고 확고한 자아정체감 형성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의 거부, 증오,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형태를 보일 때는, 학업성적의 부진, 대인관계의 부적응, 신경증적 행동장애, 기타 사회비행과 범죄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출, 폭력, 비행, 범죄 등은, 대부분 아동기로부터 내려온 부모의 무관심, 거부, 애정결핍, 학대행위 등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자율성과 통제”에서 부모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자율성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상당부분 본인의 능력개발, 습관형성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한다. 이때 청결한 행동, 질서정연한, 부모형제나 기타 아이들에 대한 공격행동의 억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를 통한 자율성 발달의 저해는,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의 진취성, 창의성, 리더쉽 등의 발달을 방해하고 오히려 위축된 태도와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커진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더욱 조장·육성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글렌 엘더(Glen Elder, 1960)의 유형이다. 그는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방의 7,4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류해 냈다: ① 전제형(autocratic), ② 권위주의형(authoritarian), ③ 민주형(democratic), ④ 평등형(equitarian), ⑤ 허용형(permissive), ⑥ 방임형(Laissez-faire), ⑦ 무시형(ignoring)(윤진, 1988. 참조).

이들 7가지 형태 가운데 ① “전제형”에서 ⑦ “무시하는 형태”로 점차 옮겨갈수록, 청소년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와 간섭은 줄어들고, 청소년 자신의 자율성은 더 증가한다. 특히 부모의 태도가 ③ 민주적 형태와 ④ 평등형을 취할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공평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동일시(同一視)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화합”을 표방하고,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集合主義) 특성을 띤 한국 가족의 특성을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다(김재은, 1974).

또한, 가족관계 특히 부모 형제-자녀간의 역동관계를 잘 나타내는 <나의

청소년기〉 사례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의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외사인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외국에 자주 나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별로 없는 대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천사이며, 나만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자신을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큰 오빠가 재수중이었는데 오빠의 중요한 시험 전날 나는 친구들을 한 떼거리로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았는데 어머니가 꾸지람을 한 것이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자주 있었지만 어머니가 꾸중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야단을 맞게 되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우기 같은 시기에 작은 오빠가 폐렴에 걸려 어머니가 오빠들에게만 관심을 두게 되자, 나는 자신이 어머니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으로 3류극장이나 롤러스케이팅장을 전전하기도 하였으나, “엄마가 만일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을거야”하는 두려움이 생겨 곧 그만두었다. 그 대신에 어머니의 관심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밤도 먹지 않고 수시로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진다면 엄마가 날 더이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험 때만 되면 원인모를 설사증세로 고생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를 미워하는 방법도 동원하였다. 할머니에 대한 모든 것이 싫어져서 가끔씩 할머니가 까단 망토를 쓴 마귀할멈으로 나와선 나에게 폭탄같은 것을 던지고 가는 꿈을 꾸고는 하였다...

(현재 대학 2학년 S양이 쓴 〈나의 청소년기〉 중에서)

2. 또래관계 속의 청소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또래관계의 확장이다. 이들은 이제 부모 형제를 비롯한 가족의 영향과,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장면에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서 벗어나, 그들과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해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달해 간다.

이와 같은 또래집단(peer group)은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며 이런 또래와의 어울림은 유아기의 애착관계(attachment)와 정신분석학자 Harry Stack Sullivan이 제시한 아동기의 단짝친구관계(chumship) 등에서부터 출발한다. 또 이러한 기본적 인간관계는 아동기,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 노년기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유지에 근본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기와 전혀 다른 연령단계의 인물(예: 기성세대)이나 이성(異性)청소년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동성의 또래가 가진 독특성”에 견주어봄으로써(즉, 사회비교, social comparison) 사회·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그 중간 단계인 청소년기에 동조행동(conformity)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또래집단과의 인간관계는 「우정관계」에서부터 출발하며, 개인의 성장 발달과 더불어 동성간의 우정, 또는 이성간의 우정, 애정으로 진전되어 간다(윤 진, 1988).

1) 우정의 정의와 기본요소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1982)에는 「친구」를 「오래두고 가까이 사귄 벗」(p. 2865)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정관계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오래두고」), 친밀하고 밀접한 상호작용(「가까이 사귄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상대자(「벗」) 등 세 가지 기본 변인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우정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개인적 수준(personal entity)의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정관계란 누구의 요청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관계이며, 서로간에 믿고 의지하며 물질적 혹은 감정적 교환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또한 이는 사회계층이나 제도에 의한 공식적(公式的: formal)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준에서 형성하는 비공식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우정관계의 기본요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적 접근이 있으나, 다음 두

가지 관점(Lowenthal 등의 분류와 Wright의 분류)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①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의 분류(1975): 이들은 고교 졸업반, 신혼부부, 중년성인, 그리고 은퇴직전의 노인 등 네 가지 인생단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인생활 연구에서 다음 6가지 요소를 우정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유사성 차원...흥미, 태도,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공통성 등 우정관계의 외형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
- ㉡ 상호성의 차원...친구간에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자세 등 특히 “상호간의 신뢰감”에 근거를 둔 것들.
- ㉢ 양립가능성(兩立可能性)의 차원...친구간에 서로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편안한 마음자세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측면.
- ㉣ 구조적 차원...우정의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거리의 근접성, 사귀어온 기간, 우정관계로 인한 유리하고 편리한 점 등.
- ㉤ 역할모델의 차원...친구를 나 자신의 모델로 삼아 행동하게 되는 측면(여러가지 이상적인 행동과 태도, 누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특성들, 그리고 외경(畏敬)과 존경심 등)
- ㉥ 기타 차원...이 위의 다섯 가지 차원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속성들(예를 들면, 친구가 가진 독특한 신체적·경제적·사회적·성격적 특성 등).

② Wright(1969, 1978)의 분류: 그는 우정관계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호의존의 정도(VID: voluntary interdependence)에서는 친구간의 어느 한 사람의 계획, 행동, 그리고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좌우되는가를 보는 것이다(예: 같이 여가즐기기, 여행하기, 공부하기 등). 둘째, 개인적인 준거(PQP: person-qua-person)에는 친구들이 상호간에 독특하고 진실하며 또 다른 어떤 사람과도 대치(代置)할 수 없는 관계로써 그들 사이에만 독특하게 반응하는 내용을 말한다(예: 취미·종교·성격의 유사성, 아름다운 외모 등). 그러므로 전체 우정관계

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묶은 것이 된다.

2) 애정과 우정의 차이

동성간의 우정관계와 더불어 이성간의 우정과 애정관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아동기에 가졌던 이들 이성간의 또래관계와 우정은 청소년기의 성적·생리적·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애정”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이나 과중한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경제적 무능력,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애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우정과 확실히 구분되는데, ① 두 사람 사이의 상호의존도의 정도가 매우 높고 ② 매력관계 유지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③ 대상자의 수효가 여러 명일 수는 결코 없으며 오직 한 명뿐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기의 남녀간에 “건전한 사귄”을 어떻게 촉진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는 모두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소년기 우정의 특성

일찍이 Douvan과 Adelson(1966)은 청소년기의 여자피험자를 대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우정관계의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초기(11-13세)에는 친구간의 상호작용, 깊은 감정 등은 아직 생기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관념이 강하여 단순한 활동(activity)에 중점을 두고 친구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청소년 중기(14-16세)에는 서로간에 안정-충실성(security-loyalty)에 바탕을 두고 서로 버림받거나 배반당하지 않는 “신뢰성”이 중심주제가 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꼭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자신이 가진 감정·비밀 등을 은밀히 털어놓을 대상으로서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후기(17세 이상)에 와서는 우정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로 굳어져 이제 서로간에 버림받을 위험성과 불안은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성격과 흥미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 :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와 같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서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정유지의 곤란성과 우정의 가치

이미 형성된 우정관계를 유지·계속해 나가려면 갈등과 긴장이 빈번히 생겨나므로 이때 이러한 긴장감과 불쾌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중화시킬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긴장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과 활동이 많이 요구되면 될수록 이 우정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원이 우정유지의 곤란성(DTM: Difficult-to-maintain)이다 (Wright, 1977).

그런데 Wright(1969)는 더 나아가 우정관계의 가치(values of friendship)를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 파악함으로써 우정의 기본 요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친구가 어떤 자극을 주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자극 가치(Stimulation value),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시간, 노력,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자원을 동원하여 기꺼이 협조해 줄 것으로 보는 이용 가치(Utility value),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구가 격려, 지지, 협조해주며 더 나아가서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아 지지 가치(Ego support value) 등이 그것들이다.

(2) 자기노출(Self-disclosure)

개인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 노출이 있게 되고(Jouard, 1971) 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각자의 비밀, 감정, 진정한 자아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이는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의 기본적 요소가 된다. 이때 자기노출은 서서히 “적절한 속도(pace)와 순서”를 거쳐 확대시켜야

하며, 동시에 친구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정도”로 자기노출을 하게 되는 상호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정관계의 기본전제인 「진정한 신뢰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혹은 너무 많은 자기 노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우정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3)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gain-loss theory of self-esteem)

대인관계에서 상호매력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Aronson과 Linder, 1965; 윤 진과 최상진, 1990). 이 이론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처음에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켜 가는 사람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또 처음부터 우리를 부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그 정도가 감소하여 나중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행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더 싫어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가까운 친구, 부부, 부모형제 등이(우리와 관계가 없거나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더 쉽게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 평가를 해주어 왔으므로 그 칭찬이나 호의의 정도가 이미 최고의 수준에 달하여 더 이상 자존심의 증가효과(gain effect)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 두마디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더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주지 못할 때는 자존심의 감소효과(loss effect)만 크게 작용하여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우정이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게 하려면 친구간에 자존심의 감소효과가 가능한한 적도록 하고 그 증가효과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동양고전에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심보감—교우편(明心寶鑑—交友篇)에는 우정과 인간관계의 심리적 기제들이 명쾌하게 지적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예를 들면,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훌륭히 했는데, 오래도록 변함 없이 공경하였다」(「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은여(孔子)」)고 말한다. 이때 공경이란 존경심, 외경, 대인관계

에 대한 꾸준한 보상과 강화 등을 말한다. 또한 「군자는 물과 같이 담담하게 사귀어 오래가고 소인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게 사귀어 오래갈 수도 없다」(「君子之交는 淡如水하고 小人之交는 甘若飴니라」)고 한다. 이 점은 자존심의 증가-감소의 이론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인간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증가시킬 행동만 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물과 같이 진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사귀는 것이 우정유지의 기본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삭막한 인간관계를 보면 대개 타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남을 많이 칭찬 해주기,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등, 주로 우정의 본질보다는 그 유지의 방법과 테크닉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또래관계, 우정관계의 유지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는 또래관계, 친구나 가족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항상 증가효과만을 제 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솔직한 태도」 위에 개인들은 각자가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의 한계를 정확히 밝히고 자존심의 증가-감소효과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원리는 개인상담 등 카운셀 링 장면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학교와 일터에서의 청소년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 1440만명(100%) 중 학교청소년들은 중학생 230만명(전체의 25.0%), 고교생 230만명(25.0%), 대학생 140만명(15.2%)이다. 또 각급학교 취학률이 중학교 97%, 고교 87.6%이므로 9-18세 780만명의 청소년 중 20-30만명이 미취학일 뿐이며, 중·고교생청소년이 460만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이 중·고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일터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문용린, 1992).

또 오늘날 가정이 지닌 교육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학교는 “교육과 사회화 주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성장

· 발달을 통한 정서적 대처능력 배양, 진로탐색, 교사 및 또래와의 인격적 대인관계 형성 등 모든 「삶」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일생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며 기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주로 학교장면에서의 청소년기의 인간관계를 주로 논의하고 일터에서의 생활을 덧붙여 몇 가지 살펴 보고자 한다.

1) 학교청소년들의 고민거리

학교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최근 자료들은 다음 5가지 연구에 대체로 집약되고 있다(문용린, 1992; 황정규, 1990; 한국갤럽, 1991; 문화방송, 1991;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2).

특히 최근 연구인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조사에서는, 학교공부·성적(36.3%), 진학·진로(25.7%)이며, MBC 청소년백서(1991)에서 나타난 고민거리는 공부(55.2%), 진학(41.1%), 친구(16.5%), 성격(12.2%), 외모(11.5%), 이성(11.0%), 그리고 취직(10.4%) 순이다. 또한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2)조사 역시 공부(38.6%), 진로선택(30.9%), 성격(30.1%), 공부방법(29.7%), 외모·신체·건강(23.5%), 성적(17.7%), 이성관계(17.3%), 동성친구(16.1%), 그리고 가족관계(10.1%)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성적, 진로선택, 성격, 친구(동성), 용모와 건강(신체) 그리고 이성관계 등의 순서로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문용린, 1992).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즉, 마음쓰이고, 마음에 건강과 갈등을 준 사건)을 보아 빈도와 스트레스를 주는 강도 정도를 측정하였다(황정규, 1990). 그 결과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① 동성친구, ② 학업성적, ③ 교사, ④ 부모, ⑤ 신체변화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또한, 시험실패·학교성적부진·성적저하로 야단맞음 등 학교성적과 관련된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며 그 스

트레스의 강도가 가장 컸다. 이때 이들이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은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등인데 중학생에 비해 고교생은 더욱 그 강도가 심하고, 타인 공격적이다.

이와 같은 학생청소년들의 불만, 고민거리와 적응 곤란에 대한 대책은 ① 학교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학급규모 축소, 교육투자증액 등), ②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전개(임시위주교육 지양 등), ③ 사회·문화적 경험확대를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공공기관, 사회봉사활동 등) 등 외부적 정책도 있으나, 그외 ① 학생들의 불만토로·해소제도의 도입, ② 부모·교사의 태도변화와 청소년들의 의견청취·존재가치 확인, ③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 등 내부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문용린, 1992).

2)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는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향도자가 된다. 그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와 규율의 집행자 역할(버릇기르기,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부모 못지 않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다. 특히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모델링(modeling)과정을 통해 부모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기 담당 교과목의 지식전달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全人敎育) 실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이다. 이때 많은 학생들의 눈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57.3%), 자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46.8%)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없거나(25.6%),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과의 의논 상담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 예를 들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 의논상대는 친구(38.5%), 의논하지 않음(31.9%), 부모(15.1%) 등이며 교사는 2.2%에 불과하다(이재창 등, 1981). 또한 교사와의 상의는 1.8%(중학생)와 1.3%(고교생)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있다(정원식 등, 1985).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 지도뿐만 아니라 상담활동, 생활지도 등 교사들의 당연한 역할 수행이 더 강화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이재창, 1988). 특히 생활지도와 카운셀링 활동에 있어 전체 중학교의 61.7%, 고등학교의 78.8%가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48%만이 유자격 교도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도 중학교는 57.0%, 고등학교는 50.1%의 유자격 교도교사가 교도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박성수 등, 1985).

3) 정신건강 문제

오늘날 입시위주-주지교육 중심의 학교환경은 청소년기의 학생들로 하여금 수많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위생의 위기는 대부분 대인관계의 소원, 단절과 불안, 강박관념 등에 기인되는데, 70-8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이길홍 등(1983)에 의하면, 강박관념, 진학의 고민, 학과선택의 갈등과 같은 학교문제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비율이 24%(68-70년), 38%(77-79년)에서 44%(80-81년)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연구인 김광일 등(1983)의 자료를 보면 고교생의 31%가 심각한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중·고교생의 자살생각과 자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부적응행동, 신경안정제 등 약물 오남용, 본드 흡입, 폭력과 패싸움, 비행과 범죄 등을 볼 때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부적응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가늠케 한다(이 부분은 제9장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정신건강』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아울러 학교상황에서 교사와 또래들 양면으로부터 모두 사랑을 받으려고 고민하는 어느 학생의 〈나의 청소년기〉를 다음에 제시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체구가 왜소하고 마음이 여려서, 힘세고 키가 큰 아이들이 나를 항상 많이 괴롭혔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학급의 반장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 중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하던 곳이라, 반장은 같은 급우를 체벌할 수 있었다. 나는 괴롭힘을 당해 온 것에 분풀이를 하듯 학급친구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체벌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체벌에 순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반은 모범반으로 또 나는 「능력 있고 리더쉽 있는 녀석」으로 칭찬 받았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반장선거에서는 반장이 되지 못하였고 친하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심한 소외감을 느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행사한 폭력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중 3때부터는 철저히 학생들 편에 선 반장이 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번 등을 돌린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 주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반장이 되어 또래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는 자주 혼이 나는 반장이 되었으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능이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려 신촌의 록카페에 다니기도 하고 남들보다 전자오락을 잘하기 위해 오락실 가는 회수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 피로가 쌓여 학업시간에 자게 되고, 선생님께 혼나고 또 혼나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모여 노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다분히 반항적인 학생이 되어갔다……

(현재 대학 4학년 P군이 쓴 회고 중에서)

4)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이는 자기 적성과 소질을 파악, 개발하여 가정적 차원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동시에 각자의 생애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업 그 자체의 내용이나 기술에 대한 습득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 측면에 대해 김중기(1988)는 다음 6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① 협동적 작업경험 획득, ② 진로 프로그램간의 협동을 통해 파악한 인간관계의 경험제공, ③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형성, ④ 직업사회에서 집단행동의 역동성 인식, ⑤ 대인관계 조절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⑥ 상호 의사소통 능력

의 개발 등

이러한 6가지 측면은 모두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고객과 기타 관계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 습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집단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동작업, 살아 있고 활기찬 조직공토의 형성, 사기의 진작, 지도력(leadership) 등과 관계된 문제들이다.

또한, 직업과 일을 통한 자아개념 형성 등은, 청소년기 이후의 자아정체감(identity) 형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 시기는 한 평생을 통한 직업과 진로(career)의 시작이며 사회경제적 성취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준비 등, 사실상 청소년 후기와 청년 전기의 “발달과업” 수행의 일환인 것이다.

이때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행동과 태도를 지녀야 하며(예: 근무습관 형성, 노력 등), 이러한 직장생활을 통해 자신감의 향상, 책임감, 신뢰성, 긍정적 일의 가치관, 불안감 감소, 금전과 교육의 가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직업적 욕구수준 향상 등이 따라온다. 이때 이들은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자세를 가다듬어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시간엄수, 신용지키기, 책임완수 등 직업생활에 철저한 태도와 행동을 획득하여 인간관계 유지와 적응에 보다 원활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고교 졸업에서 직장으로 바로 진출한 상당수의 경우, 나중에 보다 적절한 기회(평생교육-방송통신대, 개방대, 산업체 부설 학교, 야간대학)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근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로는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2)에서 실시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 약 2,8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및 협동 등 4대 덕목과 고민의 내용과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근로청소년(790명)과 학생청소년(중학 600명, 고교 650명)의 주요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들 근로청소년들은 신체·생리적 발달측면에서는 학생청소년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음악·미술 등 문화적 요구에 대

〈표 1〉 학생과 근로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있다 그렇다” 응답 비교

문항내용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1. 지난 일주간 운동·스포츠 경험	79.4	61.1
2. " 한끼이상 먹지 않은 경험	54.1	67.0
3. " 병원치료 경험	33.3	40.2
4. " 교양목적 독서경험	54.0	54.2
5. " 무척 참기 어려웠던 일	71.8	80.2
6. " 인생의 무가치, 무의미에 대한 느낌	57.5	68.6
7. " 힘들거나 어려운 일의 경험	60.4	72.6
8. "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한 경험	48.9	49.4
9. 지난 일년간 음악회 관람 경험	29.0	12.6
10. " 미술 전시회 관람 경험	24.2	18.9
11. " 영화 관람 경험	79.2	84.1
12. " 여행한 경험	44.4	42.0

출처 :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일상생활조사』 자료, 1992년 4월).

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없었으며, 힘든 일·인생의 무가치와 무의미에 대한 느낌이 더 많았다. 또한 식사를 거르거나 약복용·병원치료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수가 중·고교가 최종학력이므로, 대학진학 등을 비롯한 교육에의 열망을 갖고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사업체내의 야간학교, 전문대학, 또는 통신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향학열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받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 상사와 동료, 친구와 또래집단의 도움으로 해소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모님의 심리적 지지와 뒷받침, 상사와 동료의 걱정과 보살핌, 또래들의 상호의존과 어려움 같

이 나누기 등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산업카운셀링, 전문심리상담, 특별활동 프로그램(지식향상, 취미·오락, 친목, 스포츠, 예능, 시민교육 등)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이화수, 1992).

4.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 일터,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중간단계의 과도기이다. 이들은 과중한 학업부담, 입시지옥, 직장에서의 심리적 압박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숙하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모, 형제, 친척, 친구·또래, 직장 상사와 동료, 교사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한층 더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문 요약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 속의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가족관계 속에서는 부모와의 세대차이와 심리적 거리지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또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추구하고 자율성을 함양하려 한다.

둘째, 또래관계 속에서는 우선 우정관계 형성과 유지가 중요하며, 일생에서 가장 동조성이 높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시기이다. 특히 이때 자기노출, 자존심의 증가와 감소 등이 우정관계 형성의 결정적인 변인이 되며, 물과 같이 담담하고 온건한 자세로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느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장면에서의 청소년기 인간관계는 역시 학업성적 등의 압박 속에 교사, 동료 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때, 이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이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정서함양을 위한 특별과외활동, 진로 및 심리상담과 같은 전인교육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일터에서의 청소년은 경제적인 독립능력과 사회적 근로주체로서의 자부심은 강하나, 좌절된 고등교육의 꿈, 경제적 곤란과 사회계층 갈등 문제로 인한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보다 원만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직장에서의 물리적·심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가족, 친지, 사회에서의 심리적 지지와 격려가 더욱 요청된다.

연구 과제

1. 부모-자녀 세대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2. 부모의 어떤 양육형태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가장 잘 촉진하는가?
3. 또래나 친구관계가 청소년기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4. 우정관계를 가장 잘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5. 학교상황에서 교사의 영향은 어떠한가?
6. 일터에서 상사의 영향은 어떠한가?
7. 「한평생발달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인간관계는 이들의 일생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참 고 문 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연구 I”, 정신건강연구(제1집), 서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 김병성 (1983). “학교학습풍토: 그 접근과 분석”, 한국교육, 10(1), 67-82.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 이종환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충기 (1988),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진로와 직업선택”, 이춘재 등 공저, *청년심리학*, 제 10장,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문용린 (1992), “학생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발표대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대화의 광장*, 문화방송 (1991). '91 MBC 청소년백서.
- 박성수, 이재창, 김충기 (1985), *한국카운슬링의 발전계획*, 서울: 한국카운슬러협회.
- 윤 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윤 진 (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 진 (1988),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문제”, 이춘재 등 공저, *청년심리학* (제8장),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 진, 최상진 (1990) 번역, *사회심리학*, 서울: 탐구당. (E. Aronson(1988) 원저, *The Social Animal* (5th Ed.)) N.Y.: W.H.Freeman.
- 이길홍 (1983),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정신건강”, *새교육*, 35(4), 73-79.
- 이동탄 (1969) 번역, *명심보감* (현암신서 제 6권), 서울: 현암사.
- 이재창 (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재창, 최운실, 정영애, 최경선 (1983), *청소년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춘재 등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화수 (1992), “근로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 발표대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대화의 광장*.
- 정원식, 김경동, 김신일, 배규환, 최일섭 (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2),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대화의 광장.

한국갤럽 (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한국일보(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일보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송광성 등 공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황정규 (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사대논총 제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Aronson, E., & Linder, D.(1965), Gain and loss of esteem as determinants of interpersonal attractiv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56-171.

Becker, W. C.(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 Hoffman and L.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New York: Russell Sage.

Bengtson, V.L., & Kuypers, J.A.(1971),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Edler, J.H., Jr.(1963), Parental power legitimation and its effect on adolescent, *Sociometry*, 26, 50-65.

Jourard, S.M.(1971), *Self-disclos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 John Wiley.

Lowenthal, M. F., Thurnhur, M., & Chiriboga, D.(1976),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Wright, P. H.(1969), A model and a technique for studies of friend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65-273.

Wright, P. H.(1978), Toward a theory of friendship based on a conception of self,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4, 196-207.

9.

청소년의 정신건강

개 관

청소년기는 흔히 ‘심리적 격동기’,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되고 있듯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중요해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상태와, 좀더 우려할 만한 적응의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과 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대처하는 치료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정신건강, 정상, 비정상, 불안, 시험불안증, 사회공포증, 학교공포증, 강박증, 우울, 자살충동, 약물남용, 정신분열증, 심리치료, 예방적 접근.

* 오경자, 연세대학교 교수

1.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기준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상태에 관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여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누가 보기에든 분명히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상적인 적응상태를 보이는 경우는 판단이 어렵지 않겠으나, 대부분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속하게 되므로, 때로는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심리상태의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데는 다음 몇 가지 기준들이 사용되어 왔다. 첫째, 비슷한 연령이나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에서 많이 일탈되어 있는 경우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소위 통계적 기준을 들 수 있다. 둘째, 본인의 심리적 고통이 여러 심리장애가 지닌 특징처럼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셋째, 어떠한 행동이나 심리상태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이것의 적응성, 즉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심리상태가 그 사람이 생활해 나가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면 이는 비정상으로 보게 된다.

위의 기준을 구체적인 예에 적용시켜 보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첫째, 그 정도가 다른 고등학생들의 불안정도에 비하여 특히 심한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이나 기타 친구·가족간의 관계들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시험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비슷한 상황에서 남들이 느끼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혹은 시험에 대하여 불안해 하더라도 실제 학업수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기타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증상의 수효, 증상의 지속기간,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영역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증상이 한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일 때, 증상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지속될 때, 그리고 불안, 우울 등의 단순한 정서적 증상 이외에 학습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든지, 반항적 행동, 음주,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행동문제까지 함께 보이는 경우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에게서 심리적 부적응의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 자체만 보아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더 심각한 심리장애의 시작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서는 심각한 정신병리의 표징으로 알려져 있는 증상들도, 소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듯했던 문제가 실상은 심각한 정신병리의 시작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은 드러나는 증상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적응양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2. 청소년기의 적응문제의 표현 양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으로 적응문제가 표현되는 양상에서도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성인의 심리장애의 양상이 점차 자리잡기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연결지을 수 있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심리적 부적응이 표현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나누어 불안, 우울 등의 내적인 증상이 주가 되는 정서장애(emotional disorder)와 내적인 긴장, 갈등을 밖으로 행동화하여 표현하는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에게서는 이 두 유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청소년들에게서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증상과 함께, 반항적인 행동, 혹은 비행 등의 행동장애가 뒤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아래에서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때의 특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아울러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신분열증 등

의 증상과 임상적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려고 한다. 행동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인 비행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불안

불안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누구나 간혹 경험한다. 그러나 불안의 대상이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수 없는데도 심한 불안을 느껴 본인이 생활해 나가는데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불안감은 그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채 막연한 상태로 경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물건에 대하여서만 강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불안이 전반적인 상태로 경험될 때 그 주관적 경험은 1) 몸이 떨리고 긴장되며 짹짹 놀라기 쉽고 안절부절 못하는 소위 운동성 긴장, 2) 가슴이 뛰고, 입에 침이 마르며, 식은 땀이 나고, 현기증, 설사, 배탈 등 자율신경기능의 항진을 의미하는 신체적 증상들, 3) 무슨 나쁜 일이 곧 일어날 듯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4) 주의 집중이 어렵고 주의가 산만하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면증을 보이는 등 여러 영역에서 증상을 보이게 된다.

불안의 대상이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는 경우,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는 예는 시험 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평가상황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낯선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책을 읽거나 말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등교와 관련지어 강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시험불안증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상황을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어 항상 실패에 관한 걱정을 하며 지나치게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험불안이 심하면, 시험을 실제 치를 때 뿐 아니라, 시험이 임박했을 때부터 심하게 불안해지며 무기력해지고, 주의집중이 안되며, 두통,

복통 등의 신체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험이 가까와 질수록 더욱 심해져서 시험지를 받으면 당황하여 눈앞이 캄캄해지고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시험불안은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그 핵심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사례 1 참조).

〈사례 1〉

중학교 3학년인 L양은 시험을 칠 때면 부척 떨리고, 배가 아프며, 시험지만 받으면 집중이 안되고 결과가 걱정되어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성적도 1등을 하다가 25등을 하는 등 진폭이 심한 편이라고 하였다. L양은 국민학교 4학년때에도 산수시험에 계산이 틀려서 답을 못 맞추는 일이 잦았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L양의 오빠 또한 중학교부터 시험에 대한 불안이 심하였다. 시험 시작 20분쯤부터 배가 아파오고, 몸에 힘이 빠지며 문제를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각할 기운도 없어지고 마지막 시간이 되면 지칠대로 지쳐 읽을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성적이 나빠진다고 하였다. 이군의 성적은 평소 4~5등을 유지해왔다.

L양 남매의 어머니는 모든 생활을 아이들의 공부 중심으로 하였다. L양의 아버지는 지방에 가 있는데 어머니는 아이들의 공부 걱정으로 2년 동안 내려가 보지도 않고, 동창회도 나가지 않았다.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항상 “열심히 한다”, “얼마나 힘들느냐”하던 어머니가 성적표만 받아오면 “이게 성적이나”, “네가 언제 공부했느냐”고 욕박지르곤 하였다.

L양 남매의 경우는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아이들에게 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어 시험불안을 일으키게 된 좋은 예이다.

〈김행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 2권 수록 사례〉

사회공포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 볼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하여, 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피하려고 하며 남앞에서 말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 식사를 하는 것 등이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두려움의 밑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

학교공포증은 집을 떠나 등교하는데 대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껴 등교를 기피하는 것으로, 특정상황에 대하여 불안반응이 국한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예

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등교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시작된다기보다, 상당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등교를 회피하게 되기 전부터 보이스카웃이나 특별활동같이 같은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활동에 점차 빠지게 되면서, 외출도 점차 하지 않게 되고 집밖의 세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을 내거나 혐오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집안에서도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신경질을 내고 트집이 심해지며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학교공포증은 근본적으로 가정밖의 바깥 세계에 독립적으로 맞부딪칠 자신이 없는데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경우, 우울증 등의 다른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기도 하며, 혼하지는 않지만, 가끔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심리장애의 초기 증상의 일부로 등교거부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불안이 표현되는 또 다른 형태로 강박증이 있다. 강박증은 특정한 생각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의식속에 자꾸 떠올라 괴롭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 못견디는 것이 그 특징이다. 틀림없이 문을 잠그고도 자꾸 불안해져서 거듭 확인을 해야 된다는지, 손이 불결하다는 생각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박증의 흔한 예이다.

강박성향은 흔히 모든 일을 철저히 하려는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나,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확인 행동은, 본인이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을 중단해도 크게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적인 강박행동과 다르다. 근래 중고등 학교와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 간에 강박적 성향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규, 이철원, 원호택, 1986).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2) 우울

우울감은 불안과 함께 아주 흔히 경험되는 증상으로, 큰 문제없이 잘 적응

해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도 기분이 침체되고 우울해지는 기간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14~15세의 일반 청소년의 약 40%가 면담중 우울한 기분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서(Rutter등, 1976) 청소년층에서 우울감이 아주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과를 찾는 청소년 외래환자 중에서도 우울증은 불안증, 정신분열증과 함께 가장 빈도가 높은 진단 중 하나이다(김영익, 홍강의, 1986).

단순히 우울하고 기분이 침체되는 것은, 특히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각한 정도의 우울한 기분이 상당기간 지속될 때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사례2 참조).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함께 평소에 관심을 갖고 즐겨하던 활동에 대하여서까지 흥미가 없어지고, 식욕감퇴와 체중감소(혹은 반대로 식욕 및 체중의 증가), 불면(혹은 반대로 수면과다) 등 기본적인 신체기능에 변화가 있으며, 쉽게 피로해지고, 사고력이나 주의집중력의 감퇴 등과 함께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아가서는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며,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주로 우울증의 가능성이 크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중 우울한 기분과 들뜨는 기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기분이 들뜨 때는 생각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 되고, 활기에 넘치는 등 우울할 때와는 현저히 다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극단의 정서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 전문가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우울증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성질이 다른 듯한 여러가지 문제행동들과 함께 뒤섞여 나타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다닌다든가, 무단결석, 음주, 약물사용 등의 비행에 속하는 행동들, 무례하고 반항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 우울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행동들이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 등 우울증상과 뒤섞여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두통, 복통, 극심한 피로감, 권태, 무력증 등의 신체적 증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상과 문제행동들이 함께 섞여 나타나는 것은 이들 문제행동들이 우울증상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비행이나 반항적 행동이 우울증상이나 마찬가지로 좌절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저하등 내적 고통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 양상이 다르더라도 그 밑에 깔린 우울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례 2〉

P군은 고2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고 집안에서도 침울하게 지내며 대사에 의욕이 없다고 하였다. 제일 큰 걱정거리는 공부를 해도 별로 성적이 오르지 않고 시험자만 받으면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공부할 때도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기는 하나 그냥 멍한 상태로 공부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일류대학을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으로 자신이 어렵게 공부하던 얘기며 주변의 공부 잘하는 친척 이야기를 하여 P군이 더욱 위축되는 일이 가끔있다고 하였다. 특히 2학년이 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성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심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하였다.

P군의 경우는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비하여 성적이 부진하고 이것이 계속됨에 따라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진 경우로 부모 상담을 통하여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바꾸어 주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투여하여 증세가 호전되었다.

〈이영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2권 수록 사례〉

3) 자살충동

근래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간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 상당히 넓게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병근, 이길홍과 김현수(1979)의 연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269명 중 19.7%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이들 중 8.9%는 실제 자살기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1992). 최근 일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할 욕구가 있다고 하였고, 4.5%는 자

살 생각이 거의 항상 지속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 3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자살한 중·고등학생은 126명으로 평균 3일에 1명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들의 은폐나 사고로 처리된 경우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자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서 자살이나 혹은 자살생각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우울반응이 많은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큰 신체적,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반면 이러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미성숙함으로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10대의 자살 사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할만한 상황이 아닌 듯하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기도 하다. 청소년 자살은 진정으로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절망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서 일종의 도피의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의 사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학업성적 문제와 가족과의 불화와 갈등이 주요한 자살의 이유로 들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적응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지름 좌절되고, 가족·친구 등 심리적으로 지원을 기대했던 사람들도부터도 단절을 경험할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살을 기도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선 우울증상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자살에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비관적인 태도 이상의 다른 성격적 특징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Shaeffer등은 자살을 한 청소년들중에는 ① 남의 비난에 과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②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유형, ③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유형, 그리고 ④ 높은 기준을 고집하는 완벽주의자로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유형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자살은 가까운 가족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이전에 자살기도의 가능성을 알려 주는 경우가 있다. 첫째, 상당기간 지속되는 우울증과 함께 자살생각이나 의도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흔히 자살하겠다고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적다는 말들을 하지만, 실은 자살의도를 평소에 표현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러 가지 적응 문제로 괴로와하던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나 정서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하게 괴로와 하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해질 때, 그리고 아끼던 물건을 주위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등 신변정리를 하는 듯 할 때, 자살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과거에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다시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 Stanley와 Barter(1970)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자살기도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 약 반수가 재차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 한번 자살을 기도했던 집단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고위험 집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주변의 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대화가 단절될 때, 자살기도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자살을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냉담한 편이고 자녀를 다루는데 융통성이 적으며,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관심하고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tanley & Barter, 1970). 이는 부모동 친밀한 인간관계의 질이 자살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일단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충동적인 자살기도를 막는 것이 급선무로,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입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3〉

X양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장녀이다. X양은 중학교 때까지는 밝은 성격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자신감을 많이 잃고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평소 X양은 바로 밑의 남동생은 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그 아래 여동생은 외모가 예쁜데 비해 자신은 여러모로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열등감을 많이 느껴왔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동생들만을 편애하고,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불만스러워 하였다. 아버지와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더 잘 통한다고 믿고 있었다.

자살기도를 하게 된 날 저녁, X양은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남동생이 모외교사 성적을 묻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놀리자, 동생과 다투다가 크게 울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에 X양은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끝내는 아버지에게 맞게 되었다. 그 직후 X양은 자기 방으로 가서 면도칼로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였다.

X양의 자살기도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학업, 기타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해 오던 중 그래도 마음으로 의지하던 아버지에게 받은 충격으로 자살기도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윤성림, 1990)

4)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몇몇 종류에 있어서는 이미 구미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근래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1,2학년생 9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담배는 48.2%가, 술은 58.9%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12.3%는 담배를, 15.1%는 술을 각각 정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종규, 1989). 본드 등의 환각물질, 각성제, 수면제 등의 약물은 그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하나, 남학생 중 7.3%가 환각물질을,

14.8%가 각성제를 사용한 일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이 역시 청소년층에 점차 퍼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통계치는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보고한 것으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보다 부모가 허용적이고 자유방임형인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태도나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한 변인이 될을 알 수 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또래 집단의 영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또한 성격적으로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술을 자주 마시는 청소년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높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가 낮고, 불안과 우울 경향성이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약은 성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자아중심적인 집단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성격적인 요인과 약물 사용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약물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신체적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다가 지속되는 경우,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약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계기가 없이도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권태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약물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 약물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신체적 의존현상은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복용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약물의 공급을 중단하였을 때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 의존은 약물사용에서 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약물에

〈표 1〉 남용되는 약물의 개요

구 분	종 류	약리학적 분류	법적 분류	의존성 약제적/정신적		내성
흥분제	암페타민류 벤제드린 텍스드린 메스드린 필로폰(허로뽕)	중추신경흥분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미약	있음	있음
마약	아편 헤로인 몰핀 코데인 메사돈 코카인	중추신경억제제	마약법	있음	있음	있음
		중추신경흥분제		미약	있음	미약
억제제 (진정·수면제)	바르비탈류 페도바비탈 아미탈 세보날 넴부탈 투이날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있음	있음	있음
평온제	다이제판(바리움) 클로디아제포사이드(리부리움) 로라제팜(아티반)	중추신경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있음	있음	있음
알콜	포도주/맥주/ 소주등	중추신경억제제	(미성년자 보호법)	있음	있음	있음
환각제	대마 마리화나 해시시 LSD, DMT, DET 비스칼린 사일로시빈	중추신경흥분제 그리고, 또는 억제제	대마관리법	미약	있음	있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미약	있음	있음
흡입제	플루엔 아세론 가솔린 헥사네	중추신경억제제	독극물법	미확인	있음	있음
그 외에	러미타 아빌	중추신경억제제		미약	미약	미약

출처 : 김미영 편저, 약물 남용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따라서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이 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체적 의존은 뚜렷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의존으로 인해 약물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를 중단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약물사용은 성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리적 긴장감, 우울, 불안 등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나, 그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약물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이 경감되나,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물사용 자체가 불법적이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약물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 등에 참여하게 되고, 범죄집단과 접촉을 하게 됨에 따라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약물사용 청소년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약물사용이 그 청소년의 생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약물사용은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한 방법이라면, 이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좀 더 적응적인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일시적으로 입원을 통하여 약물사용을 중단토록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곧 다시 사용하게 된다.

약물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예방적 접근이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훈련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시작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5) 정신분열증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가지 적응의 문제들은 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을 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능력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혼하지는 않으나, 현실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성격의 기능이 와해되어 상식의 범주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극도로 혼란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환각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 혹은 암페타민 등의 약물을 장기 사용한 상태에서 사고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드물기는 하나 뇌종양 등 대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잘 적응하던 청소년이 갑자기 행동과 사고의 급격한 변화를 보일 때 대뇌의 기질적 병변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로,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신병적 우울증 등의 소위 정신병에 해당하는 심리장애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된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조울증이나 정신병적 우울증 등 정동의 장애는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므로, 정신분열증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분열증은 1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거의 보기 어렵지만 15세를 고비로 발생율이 급증하여, 청년기에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인다. 주요 증상으로는 주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크게 장애가 있으며, 환청, 망상 등을 보이게 되고, 사고의 논리성이 와해되어 조리가 없고 논리적으로 혼란되어 있으며, 감정표현 등이 부적절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극도로 위축되고, 자신의 내적 세계안에만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사례 4 참조).

청소년기의 정신분열증에서는 몹시 불안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잡을 수 없이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학교 공부나 친구·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적이나 반사회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발병 이전부터 여러가지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경우가 많다. 수줍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남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 하며, 지나치게 예민하고, 간혹 기이한 행동을 하는 등, 어려서부터 남과 다른 성격적 특징을 보였던 사례가 많다. 정신분열증은 평생 발병율이 약 1% 정도로 비교적 드문 심리장애이다.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재발율이 높고, 상당수는 만성적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원인도 심리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기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초기에 발견하여 종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4〉

A는 여고 2학년 학생인데 지방학교에서 서울로 전학온 후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되었다. 가끔 잠도 안오고 공부시간에 앉아 있으면 괜히 선생님이 자신을 훑어지게 쳐다 보는 것 같고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일부터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같고 학급친구와 선생님이 짜고 그러는 것 같기도 했다. 학교 게시판에 간첩자수에 관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간첩으로 오인당하는 느낌을 받고 그 후로는 집으로 오는 귀가 길에도 혹시 형사들이 미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과 점선된 것 같기도 했다. 차츰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고 학교에 가기도 두렵고 외출하기도 두렵고 식욕도 없어졌다. A는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 아줌마들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두려웠고, 기도 중에 백일 동안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부모가 금식중에 있는 A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다.

(유정희, 1987)

3. 청소년 심리장애의 치료

1) 청소년 심리치료의 특징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나타낼 때에도 문제의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치료법이 활용된다. 예컨대 정신분열증

의 치료에서는 약물치료가 중요하며 불안증에는 긴장완화 훈련이나 체계적 둔감법 등의 행동치료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문제에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치료를 꾀하는 소위 심리치료이다.

청소년들은 정서상태나 태도에 기복이 심하여, 심리치료에 대한 태도나 반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자기 주변의 가족, 친구 등에 대해서도 단시일내에 극에서 극으로 태도가 바뀌는 일도 있어 치료자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자살기도, 가출, 범법행위 등을 하겠다고 치료자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간혹 일어난다.

청소년들을 심리치료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치료자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많은 경우, 부모·교사 등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곧 심리치료자에게 전이되어 신뢰로운 관계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심리치료를 원하거나 의뢰한 것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인 경우 심리치료 자체에 반발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심리치료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진실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 주면서 동시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이끌어 주는 치료자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Meyer & Zegans, 1975). 청소년 대담자가 청소년이 함담하지 못한 생각이나 충동을 표현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려 할 때,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해로운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2)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접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예방적인 접근이다. 즉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면한 과제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처능력을 보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가려내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스트레스 대응훈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성 훈련, 적절한 자기표현을 도와주는 자기주장 훈련 등은 예방적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제도상 이러한 예방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응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상담소 등 전문치료 기관의 확충은 물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조치를 해줄 수 있는 학교내의 상담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 글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신건강 문제들을 간략히나마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쓰여졌다. 청소년기에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이지만 비교적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중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들을 무조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가볍게 보고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일찍이 파악하여 각각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정신건강 관리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문 요약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정

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국내외의 연구조사 결과 또한 청소년 중 20~30%정도가 실제로 상담교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상태의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통계적 기준, 주관적 심적 고통, 적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비슷한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리상태에서 크게 일탈된다든지, 본인이 주관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껴거나,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자신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저해요인이 된다면, 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밖에 증상의 수효, 지속성, 증상이 나타나는 영역 등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위험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크게 불안감을 갖게 되어 생활에 지장이 되는 불안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면서 식욕감퇴, 체중감소, 불면,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퇴, 죄책감 등을 느끼는 우울증은 정서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자살충동은 청소년들 중 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한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고통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에 걸친 적응문제로 심리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심리적으로 지원을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할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관계 또한 중요한 변인이 된다.

약물남용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층에 술이나 각성제, 본드 등의 환각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약물사용은 성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리적 긴장감, 우울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이 경감되나,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장애의 대표적인 예로, 사고

가 혼란되고 망상, 환청 등 현실을 왜곡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현실 판단력 또한 훼손된다. 감정표현 또한 부적절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발병 이전부터 여러가지 적응문제가 있어 왔던 경우가 많고, 그 원인도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기제, 심리사회적 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초기에 발견하여 종합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진실한 태도와 아울러 필요할 때에는 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끌어 주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미비하므로, 문제 발생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예방 Program,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조기진단 Program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과제

1.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되는 정서불안정 상태와 이 시기의 인지 정서적 특징을 관련시켜 설명해 본다.
2. 행동이나 심리상태에서의 정상과 이상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리해 본다.
3. 청소년기에 우울증상의 경험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4. 자살의도를 미리 알려주는 행동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5. 청소년을 상담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 연구 I 집, 1-39
- 김미영 편저 (1990), 약물남용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 세생활 예방 상담 시리즈 I, 나침반사.

- 김영익, 홍강의(1986), “소아정신과 외래 청소년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6, 183-192
- 김행숙(1991), “시험불안증의 치료 : 증례 보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2권, 56-62
-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1979), “한국청소년 학생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를
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II, 2, 35-42
- 박종규(1989),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섭(1992),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정희(1987), “정신분열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 *등불* 2권, 22-25.
- 윤성림(1990), 자살생각 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식, 구영진, 이길홍(1991), “입시병의 유형과 대처방안”,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2권.
- Erikson, E.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reud, A.(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13, 255-278.
- Meyer, J.H., & Zegans, L.S.(1975), Adolescents perceive their Psychotherapy, *Psychiatry*, 38, 11-23.
- Rutter, M., Tizard, T. Yule, W. Graham, P. & Whitmore, K.(1976), Isle of Wight Studies, 1964-1974, *Psychological Medicine*, 6, 313-332.
- Stanley, E.J. & Barter, J.T.(1970),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0, 87-96.
- Weiner, I.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0.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비행

개 관

최근 청소년비행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및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청소년비행의 개념, 이론, 통계, 유형 및 현황을 알아보고 심리측면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비행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청소년의 일탈행동,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의 연령기준,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의 예방

* 심응철, 강원대학교 교수

1. 서 론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는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다변화되고 있다. 십 수 년 전부터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노인문제,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자녀교육문제, 청소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높은 문화적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의 내적인 수용능력의 여부에 관계 없이 서구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청소년 비행의 개념, 이론, 통계, 유형 및 현황을 알아보고 심리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비행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 비행의 연령기준을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서구에서는 대체로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는 이유는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은 심리학에서는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성인의 경우는 범죄(crime)라고 한다.

Encyclopedia of psychology(1972)에 의하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행은 대부분 절도(thief)와 횡령(embezzlement)이고, 2차대전 이후 성인 범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탈(deviance)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행과 같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탈은 규범을 전제로 정의한다. 사회학자들은 규범이 없으면 일탈도 존재하지 않고 일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규범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탈이란 속임수, 야바위, 기

만, 불평등, 범죄, 비열, 궤변부리기, 새치기, 부도덕, 불성실, 배신, 사기, 증오 및 죄 등을 말한다.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3. 비행이론의 유형

청소년의 비행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은 크게 사회학적(범죄사회학적), 유전 및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구조적, 문화전달적 측면, 아노미 상황, 빈부차에 따른 가치추구,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데서 오는 갈등, 사회적 통제에 대한 개인의 통제, 규범에 대한 이탈 등으로 비행을 설명하고 있다.

유전 및 생물학적 이론은 비행의 원인을 혈통, 유전자 결함(염색체 이상), 체격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리학적 이론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일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은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은 개인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행과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신지체 이론(mental retardation theory)

정신지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이 낮은 지능으로 인한 법규의 잘못 이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 이론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지능지수를 측정할 때 개인의 지능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를 사용하는데 이 지능지수는 생득적 및 환경적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지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범죄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예: 횡령범죄, 성범죄자). 또 다른 문제점은 범법

행위를 하고 체포된 사람의 수가 범법 행위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범법 행위를 하고서도 체포되느냐 안되느냐는 범인의 지능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2) 성격 이론(personality theory)

특수한 성격이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좌절된 상황에서 보통사람들은 곧잘 적응해 내는데 어떤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는 좌절감을 준 사람 혹은 대치불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이미 대담하고 싸움에 말려들기 쉬우며, 쉽게 성을 내고, 부모나 선생님의 꾸중을 반항적인 성격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견해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동기가 불분명하며 위우침이 전혀 없고 뻔뻔스러우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요인은 특수한 성격요소가 비행의 직접원인이냐 아니냐와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정신병적 이론(psychotic theory)

정신병적 이론은 성격이론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특수한 성격장애보다 그 증상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자는 본능적인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약하고 비협조적이며 사회적 요구에 쉽게 부응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부분의 범죄는 미리 계획한 흔적이 없고 행위자체가 충동적 순간적으로 행해지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또한 신경증이나 정신병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신경증 환자들의 비행은 일반적으로 비공격적인 범죄나 노출증 혹은 도벽정신이상(kleptomania)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도벽정신이상도 도벽행위의 목적이 물질

이 아니라 성욕구가 위장되어 표출된 것으로 본다.

정신질환자들은 현실과의 접촉결여로 환상(fantasy)이나 환각(hallucination)에 의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재소자의 약 5%가 정신착란 증 환자로 판명되었다. 한 조사 결과는 정신질환성 재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9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30세 이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정신분석학적 이론(psychanalytical theory)

지그문트 프로이트(S.Freud)는 인간에게는 성과 공격이라는 두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었다.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요소가 초기 어린시절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만일 성장기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의 죄책감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한 개인이 어려서 행한 금지된 행동에 대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범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프로이트 계통의 존 돌라드(John Dollard, 1939)는 욕구좌절-공격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막으면 공격욕구가 유발되어 욕구좌절을 일으킨 사람이 대상에 손상을 주려는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가설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청소년의 억압된 욕구가 위장되어 때로는 공격행동이나 절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들의 추리를 검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5)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학습이론은 본능이나 욕구좌절에 의해 공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습절차와 마찬가지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반두라(A. Bandura, 1973)에 의하면 욕구좌절은 괴로운 상황에서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반응하게끔 학습된 사람들은 보다 더 공격을 촉발시킨다고 한다. 반두라는 실험을 통해 공격행동은 모방과 모델링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공격적 행동에 강화(reinforcement)가 주어졌을 때는 공격반응율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맥캔들리스(McCandless, 1972)는 청소년 비행은 욕구와 좌절이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기는 새롭고 강렬한 좌절을 겪게 되고 이러한 좌절은 여러가지 형태의 공격적 행동을 포함하는 비행을 유도하며 특히 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은 모방(imitation)이나 모델링(modeling)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은 또한 동기나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특정 범죄자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높은 동기수준을 갖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그와 유사한 조건일 때 동일한 범죄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6)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

자아개념은 생득적으로 주어진 개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즉, 사회적, 심리적인 객관 세계가 제공하는 기회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각 개인은 제공받는 기회나 경험 차원이 다르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신체적, 표출적, 평정적 자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국면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연속으로 형성된다. 또한 자아개념은 주체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개념을 설정하고 조화시키면서 정체감(identity)을 추구해 간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개념이 역기능적 역할을 할 때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이나 성격상 부적응이 일어나며 이러한 부적응이 소외와 무규범적 자아를 촉발시킴으로써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어떤 형태의 비행이나 범죄이든 간에 사회학적(범죄사회학적), 유전 및 생

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을 갖지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영향이 더 큰가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이들 각각의 제한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유전 및 생물학적 이론은 한 개인이 이미 부여 받았거나 혹은 자신이 통제하기 곤란한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회학적 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 즉, 중요한 당사자에 대한 비행원인을 직접 다루거나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리학적인 관점은 유전 및 생물학적인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의 중간 입장에서 상호연결의 이점이 있으며, 또한 비행이나 비행의 원인 중 개인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으로 보아 어느 이론보다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학적인 이론만으로 비행의 원인을 모두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리학적인 이론이 주축이 되고 유전 및 생물학적 이론과 사회학적 이론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비행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4.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고도 들켜거나 잡혀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행현황은 크게 기록비행(official delinquency)과 숨은비행(hidden delinquency)으로 분류되는데 기록비행 혹은 공식적 비행은 경찰서나 관계기관에 입건된 비행통계를 말하고, 숨은비행은 비행을 저지르고도 입건되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숨은비행은 기록비행의 10배내지 15배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1990년말 현재 105,567명:대검찰청 집계). 기록비행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여기에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지위비행과 성비행 및 약물사용비행을 첨가하여 비행유형별로 그 요인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최근 청소년 비행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인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강간, 폭행, 약물사용 등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단지 어린 청소년층에서만 나타나는 귀가시간 위반, 무단결석, 상습적인 만행, 미성년자 음주, 무단 가출 등이 있다. 또한 1960년 이래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성인범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빠르다. 기록비행에서 남녀의 비율을 보면 3.9:1로 여성이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일본의 청소년 비행의 동향을 보면, 최근 10년간 형법범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교사폭행, 부모구타 등). 비행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형법범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신나, 본드, 약물남용 등의 비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증가되었고, 교내폭행, 자살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또한 폭주족이 770개 그룹에 4만여명이나 된다. 이와 같은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는 문화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청소년 비행의 추세를 참고로 주변환경과 심리적인 요인 및 비행유형별로 비행원인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가족 및 가정환경과 비행

S.Freud는 아동기의 초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맴모 삼천지교 역시 한 개인의 초기 성장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좋은 예이다. 한 개인의 가정 환경은 성격형성, 가치관 정립, 자아개념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의 구성원, 특히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비행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소년원생의 경우 56.2%가 양친과 동거), 최재석(1979)은 소년비행과 결혼가족과의 상관관계 고찰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정은 한 개인의 중요한 생활장소인 동시에 어떻게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비행소년들 중에 양친과 동거하지 않는 비행소년이 통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부모의 자녀교육이 청소년의 비행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비행사례

인적사항	성 명 : 한 오 성(가명) 나 이 : 20 세 학 력 : 중 1 퇴 벌 죄 명 : 특수 강간, 초범, 징역 1년 가족관계 : 부 56세(국졸, 목수), 모 55세(부학, 계모) 여 동생(회사원)
성장환경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이 넉넉치 못해 쪼들리는 생활을 하던 중,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계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계모)는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상냥하게 대하다가도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무섭게 대해,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기회가 있으면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중학교 입학후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해 퇴학 당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복지회에서 목공기술훈을 습득하여 취업(16세) 했었으나, 이웃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비행을 저질렀다.
부모의 양육태도	아버지는 매우 인자하고 자비로운 반면, 어머니(계모)는 냉혹하고 손찌검도 자주 했다고 말한다.
친구관계	학업을 계속 못하고, 이사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절친한 친구가 없었다.
성 격	매우 유순하며 조용한 성격으로 남의 말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범행개요 및 동기	친구 6명이 야외로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본 여학생 2명을 껴어 차례로 윤간을 하였다. 단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수감 이후의 생활 및 전망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신앙생활(기독교)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계모의 격려편지로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역시 많이 사라졌다. 책임감과 자기의 뚜렷한 주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 외에도 가정환경의 심리적 측면에서 비행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있다. 김광문 등(1982)의 연구는 청소년의 79.5%가 비행원인을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불충분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64.5%가 가정불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환경의 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가정환경의 질적인 측면인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남승(1972)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비행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환경 중에서 가정환경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소년감별소(1981)에서 조사한 부모의 훈육태도는 방임이 54.3%로 가장 높고, 소년원생의 38.5%가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거부적이었으며, 29.2%가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간접적 요인으로 교사는 부모와 대화의 기회가 없고, 아울러 부모가 그릇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45.4%), 학생 역시 48.5%가 부모와 대화의 기회가 없고 그릇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이재창, 198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교육을 방관하는 경우와 아울러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일 때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 주는 심웅철(1992)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전제형, 민주형, 방임형)와 청소년 비행간에는 양육태도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방임형일 때 비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제형의 부모였으며, 민주형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정은 한 개인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아울러 가족간의 심리적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고 민주적이나에 따라 청소년 비행 증가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 학업 및 교우관계와 비행

최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입시문제이다. 입시위주의 학업

방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진정한 인간교육의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무조건적이며 높은 학업성취욕구는 때때로 자녀로 하여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바람직하지 못한 친구를 사귀어 비행소년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41등 이하는 비행집단이 23.7%인데 비하여 학생집단은 9.9%에 불과하고,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비행집단이 월등하게 낮았다. 서울소년감별소(1981)에서 비행소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32.8%가 학교를 혐오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62.2%로 비행과 학업성취와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도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비행집단은 25.8%인 반면에 학생집단은 15.4%로 나타났고, 교사에게 자주 야단 맞은 경험도 비행집단(35.0%)이 학생집단(4.2%)보다 훨씬 높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태도조사는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5.2%에 불과하다(이재창, 1986).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욕구 수준과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의 심리적 갈등이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업성취 수준 자체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용철등(1982)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8.26%, 상냥함만한 선생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3.79%, 자신의 일에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0.35%로 나타나, 학교수업 이외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의 방관이나 무관심이 염려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교사나 동료로부터 인정 받는 기준과, 임시위주의 교육방식은 열등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우관계와 관련된 비행사례	
인적사항	성명 : 정 찬 군(가명) 나이 : 21 세 학력 : 중 2 퇴 범죄명 : 강도, 초범, 징역 3년 가족관계 : 부 57세(국출), 모 57세(국출) 형 22세
성장환경	국민학교 시절부터 학교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오락실을 드나들거나, 수업을 때먹기 일쑤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내다 급기야는 중1때 보충수업비를 낸다면서 돈을 어머니에게 요구하자 어머니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야단을 쳤고, 이것을 계기로 가출하여 서울에서 직공으로 전전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아버지는 주벽이 심해 처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가정일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이인으로 순종적이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대체로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친구관계 성격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는 없었고, 수시로 이 친구저 친구를 사귀는 편이었고, 내성적이며 수줍음을 잘타는 성격으로,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지내는 타입이다.
범행개요 및 동기	서울에서 가족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중, 동료 1명과 그 동료의 친구와 함께 군대가기 전에 한전에서 술이나 싹싹 마시는 자는 피임에 넘어가 같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하고, 가정집에 가스 검침원으로 속이고 들어가 여주인을 칼로 위협하여 현금 16만원을 갈취하였다. 본인은 범죄를 저지르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장난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친구따라 강압가는 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수감 이후의 생활 및 전망	교도소에 수감된 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힘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탈선 내지 비행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취지에 위배되며, 아울러 인간다운 교육보다 학업성취 우선의 교육이 가져오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다운 도덕성,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우선교육을 토대로 학업성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자아개념과 비행

Rogers(1970)는 자기는 “나”나 “나에게”를 특징짓는 모든 생각, 지각 및 가치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생득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이루어 지는데 생득적 요인으로는 성(sex)과 유전자(gene)를 들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은 가족구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양육방식, 성장배경 등으로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개념은 자신이 어떤 목적,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Reckless 등(1956)은 같은 우범지대에 거주하면서 비행자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범지대에 거주하는 소년들을 비행으로부터 격리시켜 주는데 자아개념이 효과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Schwartz 등(1965)이 10쌍의 양극형용사를 사용하여 비행소년과 정상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비행소년이 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강문희(1982)는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 유전적 특성, 성장시 외상적 경험, 성장시 환경,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들었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과 관련하여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심용철등(1986)은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에서 자아개념, 도덕적 자아, 능력적 자아, 가정적 자아에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장배경과 자아개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고, 양육방식에 있어서 보상방식이 적절할수록 자아개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심용철 등(1982)의 고등학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든 일이 남

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남학생 29.6%, 여학생 3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흔히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

자아상과 사회의식에 대한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는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소년원생은 학생이나 근로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재비행을 한 경우 처음 비행자보다 더욱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성격적 특징은 대부분 본질적으로 손상받은 자아개념을 반영한다(Fitts & Hammer, 1969).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Mussen et al., 1984)가 있다. 예를 들면, 불행한 정상가정보다는 결손가정에서 더 적은 비행을 보인다는 Nye(1958)의 연구와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것보다는 불화나 갈등이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Rutter(1971)의 연구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양육방식이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행의 과정적 측면에 관심을 둔 이론으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들 수 있다. 낙인이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Becker(1963)에 의하면, 비행이란 어떤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상행위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비행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에 의해 낙인찍힌 행위라는 것이다. Jensen(1972)은 “비행자”라는 낙인은 자아개념에 혐오적 효과를 일으키며, Bliss(1977)는 낮은 자아개념 점수가 비행자 낙인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Dorn, 1968; Fitt & Hammer, 1969). 낙인이론은 이처럼 비일탈자가 낙인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함으로써 일탈자로 되어가는 과정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비행을 자아개념과 관련시키고 있다.

심용철(1992)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자아개념 수준이 모든 비행(지위, 폭력, 재산, 성, 약물)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자아개념은 비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개념은 비행집단과 정상집단을 변별하는데 유용한 변인이고 나아가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격리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이론은 자아개념, 특히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사회화의 산물로서 비밀탈적인 가치의 내면화와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의 기대에 동조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으로 비행을 설명하는데 사회구조적인 변인 못지 않게 자아개념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변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비행에 대한 과정적 측면으로서 자아개념의 강조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을 통해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비행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비행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4) 약물남용과 비행

약물남용의 역사는 고대 종교의식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에서부터 비롯되었고, 1960년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파워혁명과 월남전이 약물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주한 미군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연예인이나 불량 청소년 사이에 환각제가 남용되고 있다. 주왕기등(1982)이 춘천시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고교생(각 4개교 총 39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결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본드흡입 경험은 14.9%로 미국(Johnston등, 1978)의 11.9%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주왕기(1983)의 조사에 의하면 일정 약물남용 경험자 중에 또 다른 약물을 남용한 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친구, 가정, 학교, 사회, 자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약물 남용자들이 비경험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과 약물남용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약물남용자가 다른 비행경험자에 비하여 타인의 재산(물건)을 훔친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용철등(1982)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신나, 본드,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01%로 보고하고 있다. 안순덕등(1985)은 환각제 사용의 경우, 학생은 3.3%인데 비하여 소년원생은 33.4%로 비행 청소년이 무려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창(1986)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각물 소지 경험율은 16.0%로 나타났다.

Chinlund(1974)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동기를 모험 추구형(adventure-seeking type), 평화 추구형(peace-seeking type), 교우관계 추구형(friendship-seeking type),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 미적 감각 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 성적 동반자 추구형(sex-companion seeking type), 초월명상 추구형(transcendence-seeking type)으로 분류하였다.

약물남용은 그 자체가 비행이다. 약물남용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개개인에게서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몇몇 원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

첫째로,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다.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잘 이겨내는데 어떤 개인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같은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의 지위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이다. 따라서 정서적인 불안이나 갈등 또는 심한 압박감에 쫓길 때 즉흥적인 현실도피의 도구로서 “약물을 남용하는 친구”의 매개로 약물을 사용하기 쉽다.

셋째, 따뜻한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의사소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바른 사회생활 속에 지친 나머지 자녀에 대한 무관심내지 냉대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어려움을 주고 또래집단의 부정적 행동에 동조하기 쉽도록 한다.

넷째, 교우관계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약물남용으로 진행되기 쉽다. 청소년 세계에서 이미 약물남용을 경험한 선배나 동료들의 약물남용 기회제공은 압력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 공동체 의식내지 연대감을 갖게 되어 약물남용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왕기

(1990)는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첫째, 기본적 약물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의학상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관련되는 강좌에 편성해야 한다.

둘째, 약물남용의 잠재적 위험들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비감정적이고, 비명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약물을 사용하도록 자극하는 측면들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와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넷째, 약물에 관한 현재의 법률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연구·검토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 음주 및 흡연과 비행

(1) 음주

주왕기등(1982)은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음주경험은 81.6%로 미국(72.0%)보다 높은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소간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심응철등(1982)은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경험 유무에서 남학생은 71.6%, 여학생은 16.4%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안순덕등(1985)의 음주조사 결과는 소년원생은 88.2%, 학생은 70.9%로 비행소년이나 정상소년 대부분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흡연

한국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경험은 60.2%로 미국(35.5%)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약 20여년간 매스컴을 통해 흡연에 대해 유해성을 적극 계몽한 결과 현재 35-40%에 머물고 있다. 한국 여대생의 경우 1970년대 0-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20%로 추산되고 있다. 남자 대학생의 흡연경험은 80%로 미국(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왕기 등, 1982). 심응철 등(1982)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1.85%, 여학생의 3.21%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소년원생과 학생을 비교한 흡연실태조사는 소년원생은 88.0%가 흡연경험이 있고, 학생은 44.6%로 비행청소년이 훨씬 높은 흡연을 하고 있다(안순덕 등, 1985). 이재창(1986)의 조사는 남자 고등학생이 45.1%, 여학생이 4.9%로 보고하고 있다.

6) 지능과 비행

지능과 비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IQ가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으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oodward(1955)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미국련 노동자보다 IQ점수에 있어서 약 20점 정도 높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평균 IQ점수가 비교적 낮았다.

공식적 비행(official delinquency)에서 사회계층이나 인종간의 차이에 의한 비행자와 무비행자 사이의 IQ점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기보고 비행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문화적 영향과 IQ의 상관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능과 관련된 비행 중 횡령범이나 사기범은 대체로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

7) 학습장애와 청소년 비행

Charles A. Murray(1976)는 학습장애가 비행을 야기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과적 연쇄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습장애가 궁극적으로는 비행을 초래하는 일련의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학교생활의 실패로 비행을 초래하는 경로와, 둘째 일상적인 사회적 제재로 인한 보상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비행을 초래하는 경로이다. 첫째 경로에서 학습장애가 비행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성인들은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훈육문제아동으로 지각하게 되며, 동시에 다른 아동들이 사

회적으로 미숙하며 흥미 없는 아이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은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에 대한 동기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학습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와 같은 효과들이 많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비행행위와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경로에서 학습장애로 초래되는 효과로는 일반적인 충동성, 열등한 사회화 단서의 수용, 열등한 경험으로부터의 학습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경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효과들이 중재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행동을 일으킨 감수성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비행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Hirschi(1976), Compton(1974) 등의 사례연구는 학습장애와 비행 사이에 연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연계에 반대하는 사례연구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연계에 반대하는 사례연구에서 학습장애란 많은 학교생활의 실패 원인 중 단지 하나의 방식이며, 또한 비행행위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많은 심리적 특질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학습장애 자체만으로 이러한 연계를 밝힌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8)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이라 함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비행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이상이거나 높은 편이며, 외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초기에 높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낮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보다 그 특성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상습적이며, 일단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은 기질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기질적인 원인은 반사회적 비행아동은 선천적으로 뇌에 기질적인 장애가 있거나 특정 호르몬 기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환경적 원인은 부모간의 불화, 원하지않는 임신에 의한 출산으로 원만하지 못한

부모-자녀관계나 무관심 또는 방관을 듣고 있다.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적 진단을 실시하여, 기질적 및 구조적 원인을 치료 및 개선하고 아울러 정서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인간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의 발전이 필요하다.

9) 성격과 비행

성격은 원래 생득적인 유전요인과 성장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Eysenk는 일반성격이론을 적용하여 비행자와 범죄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외향적이며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Michael(1971)은 자기의 치료소(clinic)에 의뢰되었던 아동 중에서 외향성 성격자들이 내면성, 양면성 성격소유자보다 비행이나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Bartholomew(1963)는 기관에 수용된 범죄자들이 비범죄자들보다 더 외향적이며 신경증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Price(1968) 역시 기관에 수용된 비행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소녀들보다 더 외향적이며 신경증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Parson(1947)은 여성지배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는 강박적인 과남성성으로 전환되기 쉽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Barclay와 Cusumano(1967)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소년들의 경우 과남성성(hypermascularity) 보상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지배적 가정이나 부의 결손, 사회계층이 낮은 집안의 비행소년이 그렇지 않은 비행소년보다 더 강박적인 남성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성격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 이론을 어떤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지나친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 강박적인 과남성성 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에 이르기 쉽다.

10) 공격행동

Farrington(1978)과 Robin(1966, 1978)은 청소년 초기의 공격성은 그 후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하였으며, Olweus(1978)는

공격성이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동과 명백히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공격행동과 관련되는 많은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 처한 직접적인 환경요인(부모의 양육방법이나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태도)을 강조하였고, TV의 폭력물 시청량, 폭력장면의 노출량 등이 공격행동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11) 성비행

성비행(sexual delinquency)이란 가벼운 언어적인 것에서부터 강력범죄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과 유형이 다양하다. 성비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성을 전제로 한 심한 욕설, 음란전화, 부녀자 희롱, 강제적인 신체 접촉, 키스 및 물리적인 힘이나 흥기 또는 약물을 이용한 강간 등이 있다.

조선일보(92.6.12)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연간 약 25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가 36.0%, 20-25세가 21.6%로 나타나 성범죄의 약 57%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비행의 원인으로는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유전 및 생물학적 요인은 주로 성호르몬 기제와 관련이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외설적인 영화, 비디오, 잡지, 만화, 소설 등의 외형적인 요인이 친구와 또래집단을 매개로 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향락문화가 만연되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모든 개인은 유전인자가 다르고 성장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의 주체가 되는 성격이나 자아개념에 개인차가 있다. 특히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는 성행동은 물론 성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인 성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행동은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녀교육에 임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경우 자녀는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없고 나아

가 잘못된 성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자에 대해서 더욱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귀환(feedback)되어 나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5. 청소년을 위한 어른의 역할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이 머지않아 한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 줄인공이 되리라는 말이다. 인간의 교육은 억압과 요구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어른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현실을 사고하고 그들의 욕구를 평가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구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시절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준하여 현재의 청소년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과의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결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예:학부형). 둘째, 성인은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 고도의 산업화와 물질만능적인 이기주의는 청소년에게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예: 남의 자식, video, 폭력 등). 셋째로, 학생이나 직업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청소년이 갖는 학업문제, 진로문제, 취업문제, 정서문제 등의 고심을 해결해 주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예: 상담실, 직업보도실 등의 효율화). 성인은 무조건 억압이나 요구 이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슬기를 가져야 한다. 넷째로, 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리듬을 읽자. 모든 인간은 개인의 동기, 정서, 건강 및 적절한 휴식에 따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예: 데크레이션, 컨디션). 자발적이고 동기수준이 높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항상 동일한 시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들에게 사회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의 이해와 함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한다.

6.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언 및 대책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년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등 청소년에 대한 법령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청소년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이 법제화 되었으며, 체육청소년부에서는 1991년에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1991.12).

청소년의 선도,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책으로 첫째, 시대적 조류, 사회풍조 및 청소년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에 맞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각종 법규와 법령의 개선, 보완 및 신규 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동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되어 있는데 규범은 제자리에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각종 법규나 제도가 청소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보다는 청소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차원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법규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둘째, 전술한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을 위한 법규와 법령을 구체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각종 청소년 단체의 신설, 확장과 그 기능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아무리 법률의 구조나 골격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육성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각종 청소년 단체까지도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소년교도소, 소년원, 갱생보호소 등의 기관에 순수 행정을 수행하는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집단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다.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받은 상당수가 교정교육을 받고도 재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사회적 측면

청소년의 비행이란 국가, 문화권, 사회변동 및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당대가 규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상이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이 생기는 이유는 각종 규범 외에도 당시의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대적 풍조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는 8·15 해방이후 서구문화의 무작정 수용은 인륜을 근거로 한 전통적 가치관을 크게 뒤흔들어 놓아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질서를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 불건전한 퇴폐풍조와 쾌락추구적인 사회적 측면은 한 시대를 공존해 가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각 연령층간에 갈등이 크다 할지라도 국가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흐름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내 민족, 내 후손을 내가 사랑하는 생각으로 청소년을 대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들은 청소년의 모델이 되어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교육적 측면

지금까지의 교육 장면은 대부분이 미국의 교육방식을 모방내지 답습해 나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지나친 개인주의를 발전시키는 반면, 동료간의 사랑과 협동, 양보와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의 특성이 있다.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서구적인 방식의 좋은 점을 접목해 나가는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장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업 성취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업이 모든 완성된 인간을 대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임시 위주의 학업 방식은 인간의 정

서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인간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서함양, 도덕적 발달, 윤리적 측면의 인간교육을 철저하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구성원들간의 사랑과 관용은 직장, 단체, 동료, 또래들간의 따뜻한 인정을 피울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장면에서 대별하고 당연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다.

4) 심리적 측면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가트케 어떤 심리학자는 “폭풍과 같은 노도”라고 표현하였고, 어떤 이는 “떠다니는 부유물”같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며 성인도 아닌 입장에서 갖가지 사회변동 및 사회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충동하는 시기이다. 아직 미성숙된 그들의 정체감은 역할혼미(role confusion)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혼미는 갖가지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청소년의 갈등요인으로는 첫째,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인처럼 행동하고 싶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고 능력면에서도 성인과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러한 심리적 갈등은 때때로 기성세대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은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항을 갖고있다. 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는 기성세대가 경험한 청소년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청소년기를 보낸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사고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셋째, 사회의 갖가지 규범과 제도는 청소년의 행동을 제한하고 성인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간에 사회제도와 현실은 청소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갖가지 사회자극은 정체감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남음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기성세대는 자신이 지낸 청소년 시절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준하여 오늘날의 청소년을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젊은이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어른을 두려워하고 믿지못하여 중요한 문제를 동료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하겠다. 둘째, 고도의 산업사회가 물고 온 물질위주의 이기주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나와는 관계 없다”라는 식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부리한 요구보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와 선도를 해야 한다. 넷째, 가능한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독서, 음악, 미술, 운동, 레크레이션 등의 청소년 활동은 현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 선용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문 요약

청소년비행이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물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에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비행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은 크게 사회학적, 유전 및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구조적, 문화전달적 측면, 아노미 상황, 빈부차에 따른 가치추구,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데서 오는 갈등, 사회적 통제에 대

한 개인의 통제, 규범에 대한 이탈 등으로 비행을 설명하고 있다.

유전 및 생물학적 이론은 비행의 원인을 혈통, 유전자 결함, 체격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리학적 이론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일한 문화권과 동일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일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은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은 개인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의 청소년의 비행의 추세를 참고로 주변환경과 심리적으로 인한 비행 유형별로 비행원인을 개관해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았다.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시대적 조류, 사회풍조 및 청소년 가치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에 맞고 최대한 실현가능한 각종 법규와 법령의 개선, 보완 및 신규제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전술한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을 위한 법규와 법령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각종 청소년 단체의 신설, 확장과 그 기능을 최대화시킨다. 셋째,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의 기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각종 청소년 단체까지도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흐름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아울러 성인물은 청소년의 모델이 되어 청소년선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서 함양, 도덕적 발달, 윤리적 측면의 인간교육을 철저하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 첫째,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젊은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고도의 산업사회가 물고 온 물질위주의 이기주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가능한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과제

1.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들에 대해 살펴본다.
2. 비행의 원인을 주변환경과 심리적 요인 및 비행 유형별로 파악해 본다.
3.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분희(1982), “자아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학생생활 연구, 제2집, 경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광문, 정철희, 윤화련(1982), 일련의 자율화 조치에 따른 청소년비행방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
- 김남승(1972), 청소년 비행, 범죄의 환경적 요인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 정영애, 이인호(1982), 중등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종합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황(198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용철, 이한교(1982), “고교생의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청소년 비행 연구, 강원대학교 청소년 비행연구소.
- 심용철(1985), 청소년 비행의 이론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
- 심용철, 최광현(1986),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8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심용철(1989), “성장환경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9집, 강원대학교 논문집.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덕, 차동희, 김원, 김경애(1985), 한국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윤달원(198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자아실현에 관한 비교연구, 경성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재창(1986), 청소년의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이훈구(1979), “청소년의 태도 그리고 환경지각”, 학생생활연구, 제4권,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주왕기(1982), “한국의 약물남용 실태-한국과 미국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조사 비교”, 청소년 비행연구, 강원대학교 청소년 비행연구소.

주왕기(1983), “한국 중,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사회과학: 강원대학교, 18, 161-183.

주왕기(1990), 약물남용, 세계사, pp.312-317.

최재석(1979), “소년비행과 가족유형”, 행동과학연구, 제4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청소년대책위원회(1962-1991), 청소년 백서.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rtholomew, A.(1963), Some comparative australian data for the MPI,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15, 46-51.

Becker, H.S.(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Bliss, D.C.(1977), The effect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n self-concept, *Criminal Justice Abstracts*, 10, 297-298.

Deitz, G.E.(1969), A comparison of delinquents with non-delinquents on self-concept, self-acceptance and parent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sychology*, 115, 285-295.

Dollard, J., Miller, N.E., Doob, C.W., Mowrer, O.H., & Sears, R.R.(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Dorn, D.S.(1968), Self-concept, alienation, and anxiety in a contraculture and subculture: a research report,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9, 531—535.
- Eysenck, H.J., Arnold, W. & Meili, R.(1972), *Encyclopedia of Psychology*, London: Search Press.
- Farrington, D.P.(1978), The family background of aggressive youths, In L. A.Hersov, M. Berger & D.Shaffer(Eds.),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xford: Pergamon.
- Fitts, W., & Hammer, W.(1969), *The Self-Concept and Delinquency*, Nashville: Mental Health Center (Research Monograph No.I).
- Jensen, C.F.(1972), Delinquency and adolescent self-conceptions: a study of the personal relevance of infraction, *Social Problems*, 20, 84—103.
- Johnston, L.D., O'Malley, P.M. & Eveland, L.K.(1978), Drugs and delinquency: a search for causal connections, In D.B.Kandel(Ed.), *Longitudinal Research on Drug Use*, New York: Wiley.
- McCandless, B.R., Roberts, A. & Starnes, T.(1972), Teacher's amrks, achievement test scores, and aptitude relations with respect to social class, race, and sex,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3, 153—159.
- Michael, J.H.(1971),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Delinquency*, pp.23—31.
- Murray, C.A.(1976), *Learnig Disability and Juvenile Delinquency*, Washinton D.C. Department of Justics.
- Mussen, P.H. et.al.(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Nye, F.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Parsons, J.E. (1974), *Causal Attribution and the Role of Situational Cu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valuative Judg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Price, J.B.(1968), Some results on the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from a sample of girls in Borstal,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8, 383—401.
- Reckless, W.C.(1961), *The Crime Problem*,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 Reckless, W.C., Dinitz, S. & Murray, E.(1956), Self concept as as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44—746.
- Robins, L.N.(1966), *Deviant Children Growing Up*, Baltimore, Md: Williams and Wilkins.
- Robins, L.N.(1978), Study of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antisocial behavior: replication from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8, 611—622.
- Rogers, C.R.(1970),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vghton Mifflin.
- Rutter, M.(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60.
- Schwartz, M., Tangri, S.S.(1965), A note on self concept as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922—926.